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문학석사 학위논문

한국어 수사의문문의 기능 및 형식 연구

2023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국어학 전공

박 지 상

한국어 수사의문문의 기능 및 형식 연구

지도교수 박 진 호

이 논문을 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10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국어학 전공
박 지 상

박지상의 문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3년 1월

위 원 장 _____ ㊞

부위원장 _____ ㊞

위 원 _____ ㊞

국문초록

본고는 정보를 요구하는 일반의문문과는 다른 기능을 갖는 수사의문문의 전반적인 특성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수사의문문의 특징과 수사의문문이 담화에서 작동하는 방식을 설명하고, 여타 간접화행과의 차이점을 제시하며, 의문문을 수사의문문으로 해석되게 하는 형식적, 의미적 요소에 대해 살펴보고 이들에게서 의미적 경향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2장에서는 먼저 한국어 수사의문문의 특징을 세 가지로 정리한다. 수사의문문은 첫째로 형식은 의문문이지만 강한 단언, 비난, 명령, 감탄 등을 이행할 수 있고, 둘째로 청자에게 응답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나 종류에 따라 응답을 오히려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며, 셋째로 대체로 극성이 전환된 함축을 가지나, 항상 극성이 전환되지는 않는다. 이러한 관찰을 바탕으로 수사의문문을 '형식, 발화 의도, 중의성 정도'를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다. 다음으로, 수사의문문은 화자가 가진 믿음을 부정하는 상황을 마주했을 때, 그러한 믿음이 화청자의 공통 기반에 있다는 전제를 공고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화될 수 있다. 한편 수사의문문은 질문 화행의 적정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의문문과 구별되며, 청자는 화자가 협력적인 대화 상대임을 가정했을 때 맥락적 단서를 활용해 그 함축을 추론해 낼 수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간접화행이 요청이나 명령의 발화수반력을 약화하여 공손성을 높인다면, 수사의문문은 반대로 발화수반력을 강화하고 불손성을 높이는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3장과 4장에서는 의문문을 수사의문문으로 해석되게 하는 형식적, 의미적 요소를 살피고 이들에게서 어떤 경향성이 나타나는지를 관찰한다. 형식적 요소들은 어휘 층위, 구문 층위, 숙어 및 속담 층위, 통사적 현상 층위로 나뉘며, 의미적인 요소로는 '일반적 통념과의 대립', '항진명제', '화자 자신의 심리나 지식', '대상의 온전한 상태 및 태도에 대한 의심'을 관찰할 수 있다. 이렇게 제시된 일부 항목들이 갖는 의미는 첫째, 명제가 실현 가능성이 극히 높음을 드러내는 인식 양태와 둘째, 명제가 실현 가

능성이 극히 낮음을 드러내는 인식 양태, 그리고 셋째로 명제 내용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화자의 태도를 표현하는 감정 양태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수사의문문이 강력한 발화수반력을 동반한다는 본고의 주장과 맥을 같이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본고는 수사의문문이 화자가 자신의 강한 믿음을 강조하고, 화청자의 공통 기반에 해당 믿음이 존재함을 공고히 하는 설득적인 의문문이라고 그 성격을 정리한다. 이는 수사의문문을 실현하는 형식적 요소나 의미적 요소가 가지는 경향성으로 뒷받침된다. 이러한 연구는 여타 의문문과 비교되는 수사의문문의 지위를 명확히 하면서, 한국어 교육 분야나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도 실용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주요어 : 의문문, 수사의문문, 편향, 간접화행, 불손성
학　번 : 2020-21293

목 차

1. 서론 ····· 1
1.1. 연구 목적 ····· 1
1.2. 선행 연구 ····· 5
1.3. 논의의 구성 ····· 9
2. 기본적 논의 ····· 10
2.1. 수사의문문의 개념 및 특징 ····· 10
2.2. 수사의문문의 분류 ····· 22
2.2.1. 형식적 기준에 따른 분류 ····· 22
2.2.2. 발화 의도에 따른 분류 ····· 26
2.2.3. 중의성 정도에 따른 분류 ····· 30
2.3. 수사의문문의 작동 원리 ····· 34
2.4. 수사의문문과 간접화행 ····· 50
3. 한국어 수사의문문의 형식적 실현 요소 ····· 56
3.1. 어휘 층위 ····· 57
3.1.1. (이)나, (이)라도 ····· 58
3.1.2. (이)라고 ····· 61
3.1.3. (이)야 ····· 62
3.1.4. 의문사+은/는 ····· 65
3.1.5. -답시고 ····· 66
3.1.6. -기로 ····· 67
3.1.7. -거든 ····· 68
3.1.8. -ㄴ들 ····· 68
3.1.9. -(으)ㄹ라고 ····· 71
3.1.10. -(으)ㄹ쏘냐 ····· 72
3.1.11. 리 ····· 73

3.1.12. 턱 ····· 74
3.1.13. 어련하다, 어련히 ····· 74
3.1.14. 뭐 ····· 75
3.1.15. 어디 ····· 78
3.1.16. 무슨(뭔) ····· 79
3.1.17. 좀, 여간, 하루 이틀, 어제오늘, 하나, 한둘 ····· 84
3.1.18. 오죽 ····· 87
3.1.19. 대수 ····· 88
3.1.20. 별것(별거) ····· 89
3.1.21. 감히, 설마, 차마 ····· 89
3.1.22. 하물며 ····· 90
3.1.23. 아무려면(아무렴) ····· 91
3.1.24. 어쩌면(어쩜) ····· 92
3.1.25. 뭐 하러 ····· 93
3.2. 구문 층위 ····· 95
3.2.1. 의문사 + -다고 ····· 96
3.2.2. -아/어 봤자 ····· 98
3.2.3. -(으)면 다이- ····· 100
3.2.4. -(으)면 (어디가) 덧나- ····· 102
3.2.5. -(으)면 -게 ····· 103
3.2.6. -(으)면 -지 ····· 104
3.2.7. 이/가 어디- ····· 105
3.2.8. -는 법이 어디 있- ····· 107
3.2.9. 거 아니- ····· 108
3.2.10. 이/가 다 뭐- ····· 110
3.2.11. -다 뿐이- ····· 112
3.2.12. -지 뭐- ····· 114
3.2.13. -(으)ㄹ 줄 알고 ····· 116
3.3. 숙어 및 속담 층위 ····· 117

3.4. 통사적 현상 층위 ····· 118
3.4.1. 되풀이 현상 ····· 119
3.4.2. 의문사항과 대응하는 성분의 공기 ····· 126
4. 한국어 수사의문문의 의미적 실현 요소 ····· 128
4.1. 일반적 통념과의 대립 ····· 129
4.2. 항진명제 ····· 132
4.3. 화자 자신의 심리나 지식 ····· 134
4.4. 대상의 온전한 상태 및 태도에 대한 의심 ····· 135
4.5. 수사의문문 실현 요소의 의미적 분류 ····· 137
5. 결론 ····· 144
참고문헌 ····· 146
Abstract ····· 153

표 목 차

[표 1]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수사의문문의 정의 및 특징(국외) … 10
[표 2]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수사의문문의 정의 및 특징(국내) … 11
[표 3] 수사의문문을 실현하는 조사, 어미, 단어, 구 …… 57
[표 4] 감히, 설마, 차마'의 사전적 의미 …… 91
[표 5] 수사의문문을 실현하는 구문 …… 95
[표 6] '이/가 다 뭐야' 구문의 의미 분류 …… 110
[표 7] 수사의문문을 실현하는 통사적 현상 …… 119
[표 8] 형식적 실현 요소들의 양태 의미에 따른 분류 …… 142

그 림 목 차

[그림 1] 수사의문문의 하위 분류 …… 32

1. 서론

1.1.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수사의문문(rhetorical question)의 특징으로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바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 수사의문문의 특징과 분류를 새롭게 제시한다. 둘째, 수사의문문이 담화에서 작동하는 방식을 설명한다. 셋째, 의문문을 수사의문문으로 해석하게끔 유도하는 형식적·의미적 요소를 관찰하고 어떤 특징과 경향성을 보이는지 살핀다.

'의문문'은 기본적으로 의문사, 의문형 종결어미, 억양 등의 형식으로 실현되며, 그 일차적인 기능은 '화자가 의문을 가지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청자에게 대답을 요구'하는 일이다. 이현희(1982)에서는 '의문'을 "원칙적으로 화자가 청자에게 응답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보고, 의문의 의미가 있는 문장을 '의문문'으로 규정하였다(이현희 1982:1-3). 이창덕(1992) 역시 '질문문'을 "상대방에게 질문함으로써 대답을 요구하는 문장"으로 보고 '대답 요구'를 질문문의 일차적 기능으로 제시하였고, "의문이 생겼을 때 그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청자에게 대답을 요구하는 것"을 '질문 행위'라고 설명하였다(이창덕 1992:32-33). 류현미(1999)는 의문문의 형태적 특징으로 의문사, 의문문 어미, 의문의 억양 또는 강세를 갖출 것을 들었고, 내용적 특징으로는 "기본적으로 화자가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어떠한 사실에 대해 의문을 갖고 질문하는 기능을 수행"(류현미 1999:11-17)하며 응답할 의무를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부과함을 들었다.

위 선행 연구의 공통점은 화자의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대답을 요구하는 일을 의문문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으로 보되, 그러한 기능을 갖지 않는 특수한 의문문의 부류가 있음에 주목했다는 점이다. 의문문이 순수하

게 정보를 구하는 기능을 가지는지 아닌지에 따라 ‘일반의문문’과 ‘특수의문문’으로 나누고, 정보를 요구하는 일반의문문의 예를 먼저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ㄱ. 오늘이 네 생일이야?
ㄴ. 네 생일이 언제야?
(2) ㄱ. 밥을 먹을래, 빵을 먹을래?
ㄴ. 저녁은 요리할까, 외식할까?
ㄷ. 너 아침 먹을래, 안 먹을래?
ㄹ. 너 아침 먹을래, 말래?

(1ㄱ)은 ‘판정의문문’, (1ㄴ)은 ‘설명의문문’이다. 판정의문문은 의문사를 포함하지 않는 의문문으로, 그 대답으로 ‘네/아니오’ 따위의 대답을 요구한다. 설명의문문은 의문사를 포함하는 의문문으로, 의문사에 대응하는 정보를 대답으로 요구한다. (2)는 ‘선택의문문’의 예로, 의문문에 제시된 여러 선택지 중에서 하나를 취해 대답할 것을 요구한다. (2ㄱ)은 ‘밥’과 ‘빵’이라는 두 대상을, (2ㄴ)은 ‘요리하는 것’과 ‘외식하는 것’이라는 두 행위를 선택지로 제시하며 하나를 고를 것을 요구한다. (2ㄷ, ㄹ)은 정반(正反)의문문의 예로, ‘아침을 먹다’의 긍정형과 부정형을 나란히 제시하는 형태이다. 이때 (2ㄷ)처럼 ‘안’ 부정을 이용할 수도 있고, (2ㄹ)처럼 ‘말다’를 이용해 묻기도 한다.

위 판정의문문, 설명의문문, 선택의문문이 화자의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청자에게 대답을 요구하는 일반적인 의문문이라면, 특수의문문은 그 외의 기능을 갖는 의문문을 말한다.

(3) ㄱ. 우리 저번에 본 영화 있잖아?
ㄴ. 우리 저번에 본 영화 있지?

(3ㄱ, ㄴ)은 ‘확인의문문’의 예로, 화자가 알지 못하는 정보를 청자에게

요구하기 위해 발화되는 것이 아니라 화자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 혹은 화자가 인식한 내용에 대해 상대방의 확인이나 동의 등을 요청하는 목적을 가진다(류현미 1999:109-110). 특히 (3ㄱ)처럼 '-지 않-' 형태가 쓰였을 경우 특별히 청자의 응답이 요구되지 않으나, (3ㄴ)처럼 종결어미로 '-지'가 사용되었을 때는 응답이 어느 정도 요구된다고 보기도 한다(류현미 1999:115).

(4) (초등학교 선생님이 반 아이들에게) 여러분, 3 곱하기 7이 뭐예요?

위 (4)는 시험 질문(examination questions)의 예시이다. 시험 질문의 화자는 의문문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시험 질문의 발화 목적은 화자가 모르는 정보를 청자에게 제공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청자의 지식에 그러한 정보가 있는지가 불확실할 때 이를 알아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아래에서 보일 예시들은 청자에게 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며, 청자의 동의를 구하거나 지식을 시험하는 대신 다른 기능을 보이는 발화들이다.

(5) ㄱ. 그 애가 올 턱이 있니?
ㄴ. 누가 그를 막을 수 있겠는가?

위의 각 예문은 '그 애가 올 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를 묻기 위해 발화된 것이 아니다. (5ㄱ)에서 화자가 의도한 의미는 '그 애가 올 턱이 없다'로, 의문문의 표면적인 극성이 전환된 해석을 갖는다. (5ㄴ)에서 화자가 의도한 의미는 '아무도 그를 막을 수 없을 것이다'로, 부정 전칭 양화로 해석된다.

(6) ㄱ. 조용히 {안, 못} 해?

ㄴ. 어쩌면 이렇게 귀엽지?

(6ㄱ)은 선행 연구에서 '명령적 의문문'(이현희 1982), '명령의문문'(류현미 1999), '명령적 질문'(서정수 2013) 등으로 명명되어 온 유형이다. (6ㄱ)은 '조용히 하는지 안/못 하는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해'라는 명령의 기능을 수행한다. (6ㄴ)은 '감탄적 질문'(서정수 2013)으로도 불렸던 것으로, '어떻게 하면 이렇게 귀여울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아닌 '매우 귀엽다'는 감탄을 표현한다.

예문 (5, 6)에서 공통되는 성격이라면, 의문문이 표면적으로 요구하는 답에 대해 화자는 이미 알고 있으며, 따라서 청자에게 정보를 요구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여기서 화자의 의도는 자신이 가진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확인의문문과 차이를 보이며, 또 불확실함을 가지고 청자의 지식을 알아보기 위해 의문문을 발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시험 질문과도 다르다. 본고에서는 위 (5, 6)의 예들을 모두 수사의문문으로 간주하고 그 기능과 형식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이러한 연구는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실용적 가치를 지닌다. 먼저,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 실용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한국어 교재에서 수사의문문을 더욱 다양하고 폭넓게 다룰 필요가 있다는 사실은 서희정·홍윤기(2011)나 김연희(2020) 등의 선행 연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본고에서 제시하는 논의나 수사의문문의 형식적, 의미적 요소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수사의문문을 교육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도 본 연구가 활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Bhattasali et al.(2015)에 따르면 수사의문문은 일반적인 의문문과 형식이 같아 식별이 어려운 데 반해 수사의문문을 식별하는 일은 질의응답, 문서 요약, 저자 식별, 의견 추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력이 높다. 따라서 본고와 같은 연구는 수사의문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 및 단서를 제공함으로써 수사의문문의 식별률을 높이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1.2. 선행 연구

수사의문문을 대상으로 삼는 연구를 국외와 국내 연구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Schmidt-Radefeldt(1977)에서는 '수사적'(rhetorical)이라는 용어의 개념이나 범위가 선행 연구에서 제대로 정립되지 못하고 다소 비체계적이고 모호하게 사용되어 왔던 연구사를 지적하였다. 이에 수사의문문의 의미·화용적 기준을 세우고자 시도하고,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포르투갈어에서 수사의문문이 어떤 전략적인 기능을 가지고 사용되는지를 분석하였다.

Frank(1990)에서는 화행 이론이 수사의문문을 기술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자연 발화 코퍼스를 분석하여, 수사의문문이 화용적인 면에서 복잡성을 띠기 때문에 기존의 간접화행 이론으로는 수사의문문의 판별과 해석에 어려움이 있음을 보였다. 이어 이를 보완할 방책으로 담화 분석의 방식을 차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Ilie(1994)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관찰되는 수사의문문에 대한 오해들을 규명하고, 수사의문문의 주요 특징 다섯 가지를 정리하였다. 이는 각각 '①형식과 기능이 일치하지 않음, ②수사의문문과 함축된 단언 사이에 극성의 전환이 일어남, ③수사의문문에 대한 함축적이고 배타적인 대답을 가짐, ④화자는 함축된 대답에 대해 믿음을 지님, ⑤동시에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함'이다. 또한 수사의문문에는 대답이 제시되지 않는다는 선행 연구에 반박하여, 수사의문문에 대응해 나타날 수 있는 대답(answer)과 응답(reply)의 종류를 세분화하였다. 그런 다음 정치적 연설과 재판 담화 코퍼스를 활용해 각각의 담화 상황에서 수사의문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용되는지 화용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Rohde(2006)에서는 수사의문문에 뒤따르는 응답의 유형을 새로 정리하였다. 또 수사의문문이 성공적으로 발화되기 위한 적정 조건 세 가지로 첫째, 수사의문문에 분명한 답이 존재하며, 둘째, 대화참여자들도 이에 대해 알고 있으므로 답은 새로운 정보를 주지 못할 것, 셋째, 화자와 청자가 알고 있는 답은 충분한 유사성을 지닐 것을 명시하며, 이를 뒷받

침하기 위한 공통 기반(common ground) 모델을 제시하였다.

Špago(2016)에서는 영미 희곡 30편에서 1,205개의 수사의문문을 추출한 뒤, 이 중 15%가 특정한 형식에 기대고 있다는 점을 밝혀냈다. 이러한 통사적 표지로는 ①극성 어구, ②정보의문문과 양립할 수 없는 어휘적 요소로 의문문 시작하기, ③ 후행하는 우스꽝스러운 대답, ④의문사 why + 동사 원형으로 의문문 구성하기, ⑤평서문이나 명령문에 이어서 의문문 쓰기, ⑥의문문에 대한 화자의 자답 등이 관찰되었다. 그 외 의미적 표지로는 의미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상호 배타적인 개념들이 한 의문문 안에서 사용되는 경우를 들었다.

국내 연구 중에서는 수사의문문만을 중심으로 한 연구보다는 의문문 체계 전반을 다루거나, 혹은 수사의문문의 해석을 유발하는 구체적인 개별 요소에 주목한 논저들을 주로 찾아볼 수 있다. 박종갑(1982)에서는 간접언어행위(indirect speech acts)의 일종인 서술형의문문, 요청의문문, 명령의문문을 차례대로 살폈다. 형태는 의문문이나 문장의 극성이 그 의미 및 통사적 특성과 반대되는 의문문을 서술형의문문으로 칭하고, 강력한 진술이나 감탄의 의미를 갖는 수사의문문은 서술형의문문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범주로 규정하였다. 그 밖에 독자나 청중에게 반문하는 설의법이 사용된 의문문 또한 수사의문문에 포함했다. 서술형의문문에는 극성이 전환되는 반어적 용법과 전환되지 않는 비반어적 용법이 존재함을 설명하였으며, 이어서 요청의문문과 명령의문문의 통사구조와 적정조건에 대해 논하였다.

김영희(1994)에서는 “어딜 가니, 가기는/를”처럼 서술어에 명사형 접미사 ‘-기’가 결합해 명사구를 구성한 뒤 ‘는’ 또는 ‘를’이 결합해 독립된 성분으로 한 번 더 반복되는 현상을 ‘되풀이 현상’으로 명명하였고, 되풀이 현상이 적용될 수 있는 의문문은 ‘긍정 진술’, ‘부정 진술’, ‘긍정 명령’, ‘부정 명령’으로 해석되는 수사의문문에 한정됨을 밝혔다. 이러한 되풀이의 동기는 일반적인 의문문으로 해석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되풀이가 일어나는 범위는 의문사에 후행하는 부분에 한정됨을 밝히고, 그 이유는 정보 초점을 받는 부분, 즉 부정이 되는 영

역을 표시하는 역할을 의문사가 가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에 따라 의문사에 선행하는 부분은 의문사를 포함해 되풀이가 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되풀이되는 성분은 문두 및 문미에 올 수 있으나, 문미에 놓이는 경우를 제외하면 의문사 뒤에 놓일 수 없다는 규칙을 밝혔다.

류현미(1999)에서는 수사의문문을 특수의문문으로 분류하고 수사의문문의 개념과 의미, 사용되는 화맥 및 형태·통사적 표지를 제시하였다. 수사의문문의 형식이 의미와 정반대로 나타나곤 하는 현상을, 화자가 가지고 있는 확정적인 명제가 청자의 인식 속에서는 확정적이지 않은 데서 발생하는 불일치가 수사의문문을 발화하는 부정장면으로 기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수사의문문적인 해석을 유발하는 형태·통사적 표지로는 시인보조동사문, 되풀이 현상, '감히, 어떻게, 설마, 어찌, 차마, 도대체' 등 화자의 심리적 태도를 드러내는 부사 등을 들었다. 그 외에 상대방의 행위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인 태도를 드러내는 의문문을 명령의문문으로 규정하였다.

이경희(2011)에서는 일반의문문과 구별되는 수사의문문만이 갖는 특징으로 '의문문의 형식을 가지나 확언을 전달함', '의문문 내에 반대극성을 내포', '청자에게 정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비난, 설득, 요청, 동의, 비동의, 촉구 등의 화용기능을 수행하고 이에 동의해 줄 것을 암시함', '상대방의 답변을 지향하지 않음' 등을 제시하였다. 또 맥락에 상관없이 사회적 규범, 도덕적 가치에 대한 강한 진술을 함축하는 '보편적 수사의문문'과, 일반의문문과 형태가 같거나 형태적 표지, 비언어적 표지를 갖는 '맥락의존적 수사의문문'으로 분류하여 한국어와 러시아어에서 수사의문문을 변별하는 표지들을 분석하였다.

김송희(2014)에서는 장형 부정 확인 의문문, 수사 의문문, 부가 의문문을 아울러 '부정 확인 의문문'으로 묶고, 다양한 선어말어미와의 결합 양상, 응답이 이어지는 양상, 부정극성요소와의 결합 제약, 인식 양태 요소와의 결합 여부를 분석하였다. 부정 확인 의문문의 의미 기능으로는 '확인 및 동의 요구', '질책과 비난'이 제시되었다.

김종현(2004)에서는 영어 수사의문문을 분석 대상으로 하여, 영어에서

수사의문문을 의문문의 한 부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개별 맥락에서 결정되는 의문문의 용법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합의되지 않았음을 지적한다. 이에 '조건절을 포함하는 수사의문문', '의문대명사를 포함하는 Wh-수사의문문' 등 대표적인 형식을 띠는 수사의문문을 중심으로 하여 기본적인 하위 유형과 구성 요건, 그 함축된 의미에 접근하는 추론 과정을 밝혔다.

이연우(2016)는 청자의 인식 등급에 따른 수사의문문이 종류를 '현실성 수사의문문', '중의적 수사의문문', '비현실성 수사의문문'의 세 가지로 나누어 보고, 이들이 작동하는 원리를 관련성 이론에 입각해 설명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김사랑(2015)에서는 수사의문문의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함과, 한국어 교육에서 수사의문문의 화용적 측면을 중심으로 한 보완이 요구됨을 강조하였다. 또한 실제 담화에서 수사의문문의 사용을 자세히 분석하여 ①논지 강화 발화 전략, ②동의 촉진 발화 전략, ③복수 기능의 발화 전략으로 이용되는 양상을 관찰하였다. 이어서 이를 바탕으로 화맥을 고려한 수사의문문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서희정·홍윤기(2011)에서는 기존 연구들에서 수사의문문의 반어적인 용법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 반드시 극성이 전환되지 않는 수사의문문도 있음을 예를 통해 보였다. 한국어 교육에서 반어적 용법의 수사의문문만을 제시하고 있다는 한계를 지적하며, 수사의문문에 대한 접근을 달리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추구할 것을 제안한다. 여기서 주로 다루는 '무슨' 의문문은 비반어적 용법의 한 가지 예로, '무슨'이 갖는 일반적인 통사적 제약을 무시한 채로 수사의문문에 자주 사용되어 '어떤 사건이나 사실에 대한 청자 또는 화자의 생각이 화자의 기대와 다름'을 표현하는 기능을 가진다고 하였다.

김연희(2020)에서는 기존 한국어 교재의 한계를 지적하며, 한국어 교재에서 가장 빈번히 제시되는 '-아/어서야'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그리고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의미와 통사적 특성을 분석한 뒤, 마지막으로 한국어 교육에서 이를 어떻게 기술할지를 제안하였다.

강규영(2022ㄱ)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수사의문문을 주로 반대 극성으로의 단언으로 설명해 왔던 사실을 지적하고 이와 같은 기술이 수사의문문의 성격을 정확히 포착하지 못함을 보였다. 이에 수사의문문을 질문 화행의 양태적 속성을 사용하여 의외성과 관련된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는 의문문으로 간주하고, 한국어 수사의문문의 종류를 단언을 나타내는 '화·청자 공유' 유형과 감탄을 나타내는 '화자 무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1.3. 논의의 구성

본고는 먼저 2장에서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수사의문문의 개념과 특징을 살펴보며 한국어 수사의문문의 특징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 수사의문문의 하위 분류를 여러 기준에 따라 나누어 볼 것이다. 또한 수사의문문이 담화에서 어떻게 발화되고 이해되는지, 또 다른 의문문이 갖는 간접화행과 수사의문문의 화행은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볼 것이다. 어떤 의문문이 수사의문문으로 해석되는 데는 맥락이 크게 관여한다고 볼 수 있으나 형식적, 의미적인 요소의 영향도 없지 않다. 이에 수사의문문의 해석을 유발하는 형식적, 의미적인 요소를 3, 4장에 걸쳐 나열하고 4장의 마지막에 이들이 어떤 의미적 경향성을 띠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5장에서는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하며 마무리한다.

본고에서 제시한 예문의 일부는 저자가 직접 작성하였으며, 일부는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하는 '모두의 말뭉치' 중 '일상 대화 말뭉치 2020(버전 1.2)'과 '구어 말뭉치(버전 1.2)'에서 추출하였다. 말뭉치에서 인용한 예시 중에서 일부는 띄어쓰기 및 맞춤법 오류를 교정하기 위해 수정하였음을 밝힌다.

2. 기본적 논의

2.1. 수사의문문의 개념 및 특징

이 절에서는 국외 및 국내 연구에서 기술하는 수사의문문의 정의 및 특징을 정리하고 예시를 들어 자세히 설명한 뒤, 필요할 경우 기존 기술을 수정하여 수사의문문의 특징을 새롭게 정리하고자 한다. 먼저 국외 연구에서 설명하는 수사의문문을 정의하는 방식과 그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수사의문문의 정의 및 특징(국외)

저자	정의 및 특징
Schmidt-Radefeldt (1977)	- 화자가 대화상대방에게 대답을 기대하지 않음 - 특정한 주장을 강조하기 위해 쓰임 - 수사의문문의 명제 내용은 사소하거나 잘 알려진 것 - 진정한 의문문에 대한 대답으로도 사용될 수 있으며, 이때 앞선 부적절한 의문문에 대한 짜증이나 분노 등의 태도를 표현하기도 함 - 의심, 당황, 불확실함 등을 비롯해 비난, 분노, 항의, 놀라움, 실망 등의 명제적 태도를 표현함 - 표면 형식은 의문문이나, 의미적으로나 화용적으로 실제 발화수반력은 단언임
Brown& Levinson (1978)	- 대답을 구하기 위한 의도로 묻지 않는 질문
Quirk et al. (1985)	- 구조상으로는 의문문이나 강한 단언의 힘을 가지는 것 - 일반적으로 대답을 기대하지 않음

	- 판정의문문의 경우, 극성이 반대되는 의미를 가짐 - 설명의문문의 경우, 의문사의 극성이 반대의 의미를 지니는 요소로 대치됨
Frank (1990)	- 대답을 기대하지 않는 질문 - 답이 자명함 - 단언의 발화수반력을 지님 - 단언을 강화할 수도 있고. 잠재적인 체면 위협을 완화할 수도 있음
Ilie (1994)	- 형식과 기능의 괴리 - 수사의문문과 함축된 단언 사이에 일어나는 극성의 전환 - 수사의문문에 대한 함축적이고 배타적인 대답 - 함축된 대답에 대한 화자의 믿음 - 동시에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함
Haverkate (1997)	- 단언적인 정보를 전달함 - 단언과 감탄의 화행을 지님 - 완화가 아닌 강화와 강조의 기능을 지님

다음으로 국내 연구에서 설명하는 수사의문문의 정의 혹은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수사의문문의 정의 및 특징(국내)

저자	정의 및 특징
박종갑 (1982)	화자의 강력한 진술(forceful statement)이나 감탄(exclamation)으로 해석되는 의문문
이현희 (1982)	그 형식은 의문법이나 내용은 단정(斷定)임

남기심·고영근 (1985)	- 대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화자의 강한 긍정진술을 표시 - 형태는 의문문이면서 의미상으로는 의문문이 아닌 의문문
고영근 (1989)	청자에게 어떠한 답변도 요구하지 않음. 형식은 의문법이지만 화자의 강력한 진술(forceful statement)로 해석. 때로는 감탄(exclamation)으로 해석되는 일도 있음
김영희 (1994)	간접 표현(indirect expression)으로서 '긍정 진술', '부정 진술', '긍정 명령', '부정 명령' 등을 언표내적효력으로 지니고 있는 의문문
김종현 (2004)	- 문장 구조의 형식으로는 의문문이지만 전달하는 뜻으로는 단언 진술문의 기능을 나타내는 것 - 주어진 명제내용에 대해 '부정단언'(negative assertion)을 나타내는 것
한지현 (2007)	- 청자의 응답의 유무와 관계없이 화자가 청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정보를 강조 - 진술을 바탕으로 부정, 청유, 명령과 같은 여러 가지 의미기능을 전달하기 위하여 화자가 의미하는 바와 반대, 모순되는 형식으로 묻는 말을 발화하는 것
박재승·권선아 (2009)	- 문자기호가 지시하는 표면적인 의미와 반대되는 의미를 나타내는 문형 - 일부 설명의문문은 통사구조의 변화 없이 담화환경이나 문맥에 따라 반어문으로의[1] 문형 변환이 가능 - 반어문에만 쓰일 수 있는 요소로 '어휘적 요소', '의도된 통사규칙의 파괴', '반어문 표지'가 존재 - 세 가지 상황에 따라 다양한 화용적 기능을 가짐: (1) 화자의 의도나 예상과 어긋나는 경우 (①화자의 불만, 분노, 질책, 훈계, 권고, 아쉬움 표현, ②놀라움 표현), (2)의견 제시 및 요청(①반박, ②주의 환기, 재촉, 요청,

	③동의 구하기), (3)겸손, 예의의 표시
서희정·홍윤기 (2011)	의문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어떠한 응답도 요구하지 않으며 화자의 강력한 진술을 나타내는 문장
이경희 (2011)	- 자신의 생각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표현 기교 중의 하나로 형태상 의문문의 구조를 갖지만 상대방의 대답을 요구하지 않는 특수한 의문문의 유형 - 의문문의 형식을 가지나 확언을 전달 - 의문문내에 반대극성을 내포 - 청자에게 정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비난, 설득, 요청, 동의, 비동의, 촉구 등의 화용기능 수행, 이에 동의해 줄 것을 암시 - 상대방의 답변을 지향하지 않음
서정수 (2013)	- 형태로는 의문문이지만 의미 효과로는 강한 서술적 표현을 드러내는 문장 - 보통 긍정적 질문 형식일 때에는 강한 부정적 서술 표현이 드러나고, 부정적 질문 형식일 경우에는 강한 긍정적 서술 표현이 드러남 - 응답을 기대하지 않음
김송희 (2014)	- 장형 부정 확인 의문문, 수사 의문문, 부가 의문문을 묶어 '부정 확인 의문문'으로 규정 - 부정 의문문의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화자가 청자에게 확인을 요청하는 용법을 보이는 의문문 - 응답 양상은 일반적인 부정 의문문에서와 달리 반대로 나타남 - 부정극성요소가 사용될 수 없음 - 본래 부정 의문문을 형성하지 못하는 인식 양태 요소는 부정 확인 의문문에서는 사용될 수 있음 - 화자의 청자에 대한 확인 및 동의 요구, 질책과 비난 등의 기능을 가짐

김사랑 (2015)	수사법 중에서도 형태상 의문문이나 정보획득의 목적을 지닌 질문이 아니며 상대방의 행동수행이나 대답을 요구하지 않는 것
이연우 (2016)	문장구조의 형식으로는 의문문이지만 전달되는 의미는 강력한 진술(assertion)의 힘을 가지며 응답을 기대하지 않는 의문문
박진호 (2019)	- 청자에게 대답/정보를 요구하지 않는 의문문 - 형식이나 문장 유형상 의문문이지만, 화행상으로는 진정한 질문이 아니라 오히려 진술 화행의 언표내적 효력(illocutionary force)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음
김연희 (2020)	형태는 의문문이지만 의미상으로는 강한 서술을 나타내는 문장

이상의 선행 연구를 따라 수사의문문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수사의문문은 형식은 의문문이나, 화행상으로는 강한 단언, 명령, 감탄 등을 수행한다. 둘째, 청자에게 응답을 요구하거나 기대하지 않는다. 셋째, 표면적인 극성과 반대되는 의미를 지닌다. 아래에서 이들을 예시와 함께 순서대로 다뤄볼 것이다.

첫째로, 형식과 의미의 불일치는 수사의문문의 핵심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수사의문문이 형식은 의문문이나 실제로는 질문이 아닌 다른 화행을 갖는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어떤 화행을 이행하느냐에 대해서는 연구자마다 다른 입장을 취한다. 일반적으로 가장 자주 논의가 되는 것은 강한 단언(assertion), 혹은 강한 진술(statement)의 기능이다.

(1) ㄱ. 그 애가 올 턱이 있니?
ㄴ. 누가 그를 막을 수 있겠는가?

1) 박재승·권선아(2009)에서 중국어 술어 '反問句'에 대응하는 한국어 술어로 '반어문'을 채택하고 있는데, 해당 논저에서는 본고의 '수사의문문'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1ㄱ~ㄴ)에서 화자가 의미하는 바는 각각 '그 애가 올 턱이 없다', '아무도 그를 막을 수 없을 것이다'라는 내용의 단언이다. 그러나 대응하는 단언으로 발화할 때에 비해 더 강한 발화수반력을 지닌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렇게 형태는 의문문이지만 단언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수사의문문은 일반적인 의문문에 대답으로 제시될 수도 있다 (Schmidt-Radefeldt 1977:388). 아래 예에서 표면적으로는 '옥봉'이 '인식'의 물음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옥봉'의 발화는 '가짜로 이혼하고 싶은 사람은 없다'는 의미로, '인식'의 물음에 '그렇다'라고 답하는 것과 같다.

(2) 인식: 그럼 정말로, 정말로 그 나이에 나랑 이혼이 하고 싶단 얘기야?
옥봉: 그럼 가짜로 이혼하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살맛납니다 127회>

수사의문문과 함께 자주 언급되는 다른 화행은 청자를 향한 '비난 및 질책'이다.

(3) 이렇게 조금 먹어서야 되겠니? (김연희 2020:72)

예문 (3)은 '이렇게 조금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강한 단언으로 해석되는데, 이에 더하여 조금밖에 먹지 않는 청자에 대한 질책과 비난 또한 읽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강한 단언에 그치지 않고, 그러한 내용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청자의 발화나 행위에 대해 질책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이는 후술할 수사의문문이 발화되는 배경과 관련이 깊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수사의문문은 명령으로도 해석되나, 역시 일반적인 명령문으로 발화할 때에 비해 특수한 의미나 조건이 더해진다.

(4) ㄱ. 조용히 해.
ㄴ. 조용히 {안, 못} 해?

(4ㄱ)과 (4ㄴ)의 화행은 명령으로 동일하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대응하는 명령문과 달리 수사의문문으로 발화된 (4ㄴ)의 경우는 '조용히 하는 것이 당연함'이 강조되고, 당연한 행위를 하지 않는 청자에 대한 비난이 섞여 행동 촉구의 기능이 더욱 강력해지는 효과를 가진다는 점이다.

(5) ㄱ. 귀여워라!
ㄴ. 어쩌면 이렇게 귀엽지?

(5ㄱ)은 감탄문, (5ㄴ)은 감탄의 기능을 가지는 수사의문문이다. 감탄문인 (5ㄱ)을 발화할 때는 화자의 개인적인 느낌을 표현하는 데 그치지만, (5ㄴ)의 수사의문문으로 발화할 때는 그러한 심리를 청자의 내면으로부터 유도해 내어 공감을 유도하려는 기능이 엿보인다.

이상의 다양한 화용적 기능은 공통적으로 '청자 설득'의 목적을 지닌다고 하겠다(Ilie 1994:25). 강한 단언과 명령은 화자의 주장이나 의견이 당연히 옳다고 청자를 설득하여, 이를 믿거나 이에 따라 행동을 하도록 촉구한다. 청자가 그 명백함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청자를 비난하거나 질책하는 효과가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다. 수사의문문이 감탄을 이행할 경우, 화자 내면의 감정을 표현함과 동시에 청자의 내면에서도 같은 감정을 유발하고 공감을 유도하는 효과를 갖는다. 이에 따라 수사의문문을 통해 발화하면 본래의 화행에 맞는 문형으로 발화했을 때보다 더욱 기억에 강렬하게 남고 설득력이 높아지게 된다(Špago 2016:103).

둘째로, 수사의문문은 대체로 청자에게 대답을 요구하지 않는 특징을 보인다. 일반의문문이 화자가 알지 못하는 정보를 요구하는 질문(information-seeking questions)인 것과 달리, 수사의문문은 도리어 정보를 제공하는 질문(information-giving questions)의 기능을 가진다. 화자

가 답을 몰라서 의문문을 발화하는 것이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대답 또한 기대하지 않는 것이다. 이에 따라 Frank(1990)에서는 말뭉치에 나타나는 어떤 의문문이 수사의문문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데는 청자의 대답이 뒤따르는지 아닌지가 강력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는 재고가 필요하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대답이 주어지지 않는 의문문이라고 해서 쉽게 수사의문문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담화에서 대답이 마땅히 주어질 수 있는 자리에 대답이 제시되지 않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Frank 1990:729). 우선, 어떤 의문문이 대답을 요구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청자의 판단이 항상 옳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대답이 뒤따르는지 아닌지는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없다. 아래도 그러한 예 중 하나로, 선행 발화가 수사의문문임을 깨닫지 못한 'Maverick'이 물음에 대답하려 하고 있다.

(6) Simpsone: ... I have everything I need to have you court-martialed and dishonorably discharged. <u>So what do I do, risk the lives of my pilots and perhaps the success of this mission or risk my career by appointing you team leader?</u>

Maverick: Sir...

Bates: I think the Admiral is asking a rhetorical question, Captain.

<Top Gun: Maverick>

심지어 수사의문문이 아닌 일반적인 의문문을 들은 다음에도 청자는 대답을 하지 않기를 택할 수가 있다(Ilie 1994:32). 어떤 담화 속에서 발화된 의문문이 응답을 요구하는지 아닌지는 의문문을 발화한 화자가 가장 정확히 알 수 있으며, 분석을 하는 입장에서 객관적인 기준을 세우기는 쉽지 않다(류현미 1999:118). 따라서 대답의 유무로 수사의문문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할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수사의문문의 화자가 대답을 기대하지 않는 것과 청자가 실제로 대답을 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실제 대화에서는 수사의문문의 뒤를 이어 다양한 대답이 제시되는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Ilie(1994)에서는 수사의문문에 뒤따를 수 있는 반응(responses)을 표면적인 의문문에 대한 '대답'(answer)과 함축된 의미에 대한 '응답'(reply)으로 나누어 그 유형을 분류한 바 있다. 아래는 '대답'의 예이다.

(7) What use are the most effective new medicines if they are laden with unacceptable side effects and risks? <u>No use at all</u>.

(Ilie 1994:106-107)

(8) A: Would I lie to you?
B: <u>Yes!</u>

(Ilie 1994:114)

(7)은 화자가 자문자답하는 형식으로, 자신이 발화한 수사의문문에 대한 대답을 제공함으로써 수사의문문이 단언한 내용이 한 번 더 강조된다. 표면적으로 위 수사의문문은 '효과가 매우 좋은 신약이라 할지라도 용납할 수 없는 부작용과 위험성을 안고 있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하고 있지만, 함축된 의미는 '효과가 매우 좋은 신약이라 할지라도 용납할 수 없는 부작용과 위험성을 안고 있다면 아무 소용도 없다'는 단언으로 이해된다. 이어서 제시된 '아무 소용도 없다'는 자답(自答)은 후자가 아니라 전자, 즉 표면적인 의문문에 대한 대답이다. (8)에서 A의 의문문은 표면적으로는 '내가 너에게 거짓말을 하겠어?'라는 질문이지만, '나는 너에게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함축한 수사의문문이다. B의 답인 '그렇다'는 이 중에서 표면적인 판정의문문에 대한 대답이지, 함축에 대한 대답은 아니다.

아래는 반대로 수사의문문에 함축된 뜻에 청자가 반응하는 '응답'의 예

이다.

(9) A: Yeah, I mean, <u>what could be better than that?</u>
B: <u>That's right.</u>

(Ilie 1994:123)

(9)에서 A의 수사의문문은 '그보다 좋은 것이 무엇이 있을까?'를 묻고 있다. 하지만 함축된 의미는 '그보다 좋은 것은 없다'이며, 이를 알맞게 이해한 B가 그러한 함축에 동의를 표하고 있다. A의 의문문이 의문사에 대응하는 정보를 구하는 설명의문문이었다면 이와 같은 응답은 적절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수사의문문에는 화자 자신이 자문자답을 하거나, 청자가 표면적인 의문문 또는 함축된 의미에 답을 하는 등 충분히 응답이 뒤따를 수 있다.

한편 수사의문문이 선택의문문 중에서도 정반의문문으로 나타날 때는 대체로 청자에게 대답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10) 너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엄마한테 맹세했어 안 했어?

(박진호 2019:19)

위 예문은 대안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을 요구하는 선택의문문 중에서도 긍정형('맹세했어')과 부정형('안 했어')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정반의문문의 예이다. 선택의문문에서는 의문문이 제시하는 두 대안 중 한쪽에 편향이 발생할 수 있는데, 정반의문문은 본래 편향이 없는 질문만을 나타내지만 수사의문문일 때에는 예외적으로 편향을 가진다. 예를 들어 위 예문에서는 긍정형인 '맹세했다'에 편향이 발생한다. 이와 같은 정반의문문의 형식을 취하는 수사의문문은 다른 수사의문문에 비해 화자가 청자에게 대답을 하라고 요구한다는 느낌을 준다. 위 수사의문문을 들은 상대방은 '맹세했다'고 대답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낄 것이다. 이는 판정의문문과 비교했을 때 선택의문문 쪽이 "이분법적인 대답을 강하게 요구"

하는(박진호 2019:10)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겠다. 그러나 역시 이때도 ‘청자가 엄마에게 맹세했는지, 안 했는지’가 궁금하여 대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함축된 의미에 긍정하는 행위 자체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는 다른 수사의문문과 다르지 않다.

정리하면 수사의문문은 화자가 알지 못하는 정보를 요구하는 의문문이 아니기에 대체로 대답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대신에 단언, 명령, 감탄 등을 이행하는 만큼 그에 대한 반응으로 대답이 나타날 수 있으며, 때에 따라 정반의문문처럼 대답을 요구하기도 하지만 이 역시 의문문이 요구하는 정보를 얻기 위함은 아니다. 핵심은 수사의문문의 화자가 응답에 대한 불확실함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특정한 응답에 대해 강한 편향을 가지고 의문문을 발화한다는 사실이다.

셋째로, 의문문과 실제 의미가 반대되는 극성을 갖는다는 점은 여러 연구에서 주목하는 수사의문문의 두드러지는 특징 중 하나이다.

(11) ㄱ. 그 애가 올 턱이 있니?
ㄴ. 누가 그를 막을 수 있겠는가?

의문사가 포함되지 않은 (11ㄱ)의 경우, 표면적인 극성이 전환되어 ‘그 애가 올 턱이 없다’로 해석된다. 의문사가 포함된 (11ㄴ)의 경우 부정 전칭 양화로 극성이 전환되어 ‘아무도 그를 막을 수 없다’로 해석된다.

그러나 수사의문문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꼽히는 극성의 전환도 모든 수사의문문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12) ㄱ. (쉬운 것을 질문하는 상대방에게) 넌 그것도 모르냐?
ㄴ. 하지 말라고 내가 {얼마나, 몇 번} 말했어?
ㄷ. 공부 시작한 지 {얼마나, 몇 분} 됐다고 쉬니?
ㄹ. 그 레스토랑이 어떤 덴데. (강규영 2022ㄴ:7)
(맛있기로 유명하잖아/불친절하다고 소문났잖아/...)
ㅁ. (엄마가 아들에게) 누가 너 낳아주고 키워줬어?

(12ㄱ)의 극성을 전환한다면 '너는 그것을 안다'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자연스러운 담화 상황에서 이러한 의문문이 발화되었다면 '너는 그것을 안다'로 해석될 것이 아니라, 상대의 무지를 인지하고 그에 대한 못마땅함을 표현하는 의미에 가깝다고 생각된다. (12ㄴ)의 예 역시 극성을 전환한다면 '나는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나, 오히려 '나는 이미 여러 번 말했는데, 네가 듣지 않았다'라는 의미를 내포한다고 볼 수 있다. (12ㄷ)은 '공부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쉰다'를 뜻하며, 여기서의 '얼마나', '몇'은 (12ㄴ)에서와 반대로 '얼마 되지 않는 짧은 시간'을 뜻하게 된다. 이렇게 '얼마'나 '몇' 등이 쓰이면 맥락에 따라 '극대 혹은 극소'로 해석되는 경향을 보인다. (12ㄹ)의 '어떤' 또한 양의 방향 혹은 음의 방향으로 정도성이 강조된 극단적인 해석을 갖는 것은 분명하나, 구체적인 해석은 맥락에 따라 다르게 결정될 것이다. (12ㅁ)는 '아무도 너를 낳아주고 키워주지 않았다'로 해석될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너를 낳아주고 키워주었다'로 해석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수사의문문이 상위언어적 부정(metalinguistic negation)의 기능을 가질 경우에도 극성의 전환으로 그 의미를 설명하기 어렵다. 상위언어적 부정이란 "선행 발화의 고정함축 및 대화 함축, 형태, 스타일, 레지스터, 음성적 실현 등 다양한 층위를 근거로 선행 발화를 부정"하는 것으로(Horn 1985), 이전 발화의 다양한 국면이 부정의 대상이 된다.

(13) A: 너 지금 어디 가?
B: <u>어디 가긴 어디 가?</u> 늘 가던 데지.

위 대화에서 B의 밑줄 친 발화를 이해할 때 극성을 역전시킨다면 '아무데도 안 간다'로 이해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B의 발화는 선행하는 질문의 명제 내용을 부정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질문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평가하기 위해 쓰였다. 즉 발화의 내용이 아닌 발화 자체에 대한 부정인 상위언어적 부정으로 이해된다.

이상의 논의에 따라 수사의문문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수사의문문은 형식은 의문문이나, 화행상으로는 강한 단언, 비난, 명령, 감탄 등을 수행한다. 둘째, 정보를 요구하는 의문문이 아니기 때문에 청자에게 응답을 요구하거나 기대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나, 의문문의 종류에 따라 응답을 오히려 요구하기도 한다. 셋째, 표면적인 극성과 반대되는 의미를 지닐 때가 많으나, 항상 극성이 전환되지는 않는다.

2.2. 수사의문문의 분류

이 절에서는 앞서 논의한 수사의문문의 특징들을 바탕으로 '형식', '발화 의도', '중의성 정도'의 다양한 기준을 내세워 한국어 수사의문문의 하위 분류를 제시하고자 한다.

2.2.1. 형식적 기준에 따른 분류

의문문 중에서도 어떤 의문문의 형식을 취하는지에 따라 수사의문문은 '판정의문문', '설명의문문', '선택의문문'으로 나뉜다.

2.2.1.1. 판정의문문

수사의문문이 판정의문문 형식을 취할 때, 긍정 판정의문문과 부정 판정의문문 모두로 나타날 수 있다.

(14) 그 애가 올 턱이 있니?

(15) ㄱ. 아들놈 그만큼 키웠으면 이제 밥벌이야 어련히 알아서 안 할까.
ㄴ. 조용히 안 해?

(14)는 긍정의 판정의문문 형태를 한 수사의문문으로, ‘그 애가 올 턱이 없다’로 해석된다. (15)는 부정의 판정의문문 형태를 한 수사의문문이다. (15ㄱ)은 극성이 반전되어 ‘이제 밥벌이를 어련히 알아서 할 것이다’로 해석된다. (15ㄴ) 또한 극성이 반전되어, ‘조용히 하라’는 명령을 이행한다.

2.2.1.2. 설명의문문

수사의문문이 설명의문문의 형태를 취할 때도 일반의문문에서 사용되는 모든 의문사가 사용될 수 있다. 의문사 중에서도 정도성을 나타내는 ‘얼마’는 나머지와 다른 독특한 쓰임을 보이기에, 여기서는 ‘정체성 의문사’와 ‘정도성 의문사’로 나누어 살펴본다.

먼저 정체성 의문사가 포함된 수사의문문의 예는 다음과 같다.

(16) ㄱ. 이게 뭐가 어려워?
ㄴ. 누가 너를 도와준댔어?
ㄷ. 노력하면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어?
ㄹ. 내가 언제 화를 냈냐?
ㅁ. 사람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하지?
ㅂ. 내가 왜 너를 도와줘야 하냐?

(16)과 같은 수사의문문은 일반적으로 정체성 의문사가 부정 전칭 양화로 이해된다. 따라서 (16ㄱ)은 ‘아무것도 어렵지 않다’를, (16ㄴ)은 ‘아무도 너를 도와준다고 하지 않았다’를, (16ㄷ)은 ‘노력하면 안 되는 일은 어디에도 없다’를, (16ㄹ)은 ‘나는 화를 낸 적이 없다’를, (16ㅁ)은 ‘사람이 그런 짓을 할 수가 없다’를, (16ㅂ)은 ‘내가 너를 도와줄 이유가 없다’를 의미한다. 이와 같이 정체성 의문사를 포함한 수사의문문은 대체로 해당 명제 내용을 충족시키는 지시체가 존재하지 않음을 부각시킨다(김종현 2004:144).

(17) (‘뭐/누구/어디/언제/어떻게/왜?’ 라는 상대방의 물음에)

ㄱ. 뭐기는 뭐야?

ㄴ. 누구기는 누구야?

ㄷ. 어디긴 어디야?

ㄹ. 언제긴 언제야?

ㅁ. 어떻게긴 어떻게야?

ㅂ. 왜긴 왜야?

한편 위와 같이 의문사가 되풀이되어 형성된 수사의문문의 경우, 상위언어적 부정의 기능을 가진다. (17ㄱ~ㅂ)은 상대방의 선행 발화가 의문사를 포함한 의문문일 때, 질문의 내용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질문 자체가 부적절함을 표현한다.

다음으로, 정도성 의문사인 ‘얼마’를 포함하는 의문문을 들 수 있다.

(18) A: 걔는 회사 다니던데, 돈은 얼마나 버나?

B1: 갓 입사한 애가 얼마를 벌겠냐?

B2: 저번에 승진까지 했는데 얼마를 벌겠냐?

(19) A: 저거 괜찮아 보이는데, 혹시 비싼 거 아냐?

B1: 한눈에 봐도 싸구려인데, 얼마나 비싸겠니?

B2: 한눈에 봐도 고급스러운데, 얼마나 비싸겠니?

예문 (18, 19)에서 ‘얼마’와 부사 ‘얼마나’를 포함한 ‘얼마를 벌겠냐?’, ‘얼마나 비싸겠니?’는 화자의 의도에 따라 정반대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B1의 경우는 각각 ‘얼마 못 벌 것이다’, ‘전혀 비싸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미로, B2의 경우는 ‘아주 잘 벌 것이다’, ‘매우 비쌀 것이다’로 해석되는 것이 흐름상 자연스럽다. 이와 같이 ‘얼마’는 수사의문문에서 맥락에 따라 다른 방향의 극단을 가리켜 정도성을 강조한다.

2.2.1.3. 선택의문문

수사의문문은 선택의문문의 하위 부류인 '체언 선택 의문문', '용언 선택 의문문', '정반 의문문'의 형식을 모두 취할 수 있다.

(20) 밤낮 누워만 있으면 밥이 나오니 떡이 나오니?

(21) ㄱ. 엄마한테 말대꾸하는 것 봐라. 너 오늘 밤에 안에서 잘래, 밖에서 잘래?
ㄴ. 날 피하는 이유가 뭐야? 내가 널 때리기를 하니, 잡아먹기를 하니?

(22) ㄱ. 너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엄마한테 맹세했어 안 했어?
ㄴ. 또 버릇없이 굴 거야, 말 거야?

(20)은 선택지로 체언을 제시하는 체언 선택 의문문의 예이다. 여기서는 '밥'과 '떡' 모두가 부정되어 '누워만 있는다고 해서 밥도, 떡도 나오지 않는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21)은 선택지로 용언을 제시하는 용언 선택 의문문이다. 그런데 (21ㄱ)은 선택지 중에서 '안에서 잔다' 쪽에 강한 편향이 담겨 '안에서 자고 싶으면 행동을 잘 하라'는 의미가 되는 반면, (21ㄴ)에서는 제시된 '때린다'와 '잡아먹는다' 모두가 부정되어 '나는 너를 때리지도, 잡아먹지도 않는다'는 의미가 된다. (22ㄱ)은 긍정형과 부정형이 나란히 제시된 정반의문문의 예로, '맹세했다' 쪽에 편향을 가지고 묻는 수사의문문이다. (22ㄴ)은 '말다'가 이용된 정반의문문으로, 여기서는 '말다'에 편향이 담겨 있다. 앞서 말한 적이 있듯 수사의문문이 이러한 정반의문문의 형식을 취할 경우, 다른 수사의문문과는 다르게 화자의 편향이 담긴 선택지로 대답해야 한다는 화자의 강요가 더해지기도 한다.

정리하면 수사의문문이 선택의문문으로 나타날 경우 선택지 모두가 부

정되거나 선택지 한쪽에 화자의 강한 편향이 담기게 되는데, 정반의문문의 경우 후자에 속하며 청자에게 그러한 편향된 선택지로 대답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2.2. 발화 의도에 따른 분류

수사의문문의 발화 의도는 '명제, 행위, 발화 중 어느 것에 관해 발화된 것인지'와, '어떤 면을 강조하기 위함인지'에 따라 나누어 볼 수 있다.

2.2.2.1. 지향 대상: 명제 지향적 대 행위 지향적 대 발화 지향적

명제 지향적인 수사의문문은 어떤 정보를 나타내는 명제를 강하게 단언하거나, 명제에 대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23) ㄱ. 누가 그를 막을 수 있겠는가?
ㄴ. 이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 있니?
ㄷ. 뭐 저런 인간들이 다 있냐. (강규영 2022ㄱ:494)

(23ㄱ)은 '아무도 그를 막을 수 없다'는 화자의 주장을 강하게 단언하며, (23ㄴ)은 '이 세상에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는 주장을 강조한다. (23ㄷ)에서는 '저런 인간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한 반감을 드러낸다.

그런가 하면 행위 지향적인 수사의문문은 행위를 촉진하거나 행위에 대해 평가하거나, 행위에 대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24) ㄱ. 조용히 {안, 못} 해?
ㄴ. 지금 나한테 반항해?
ㄷ. 왜 천천히 걸어, 천천히 걷기는.
ㄹ. <u>뭐 하러 거기까지 밥 먹으러 갔냐?</u> 집에서 먹지.
ㅁ. 어쩌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24ㄱ)은 '조용히 하라'는 명령의 화행을 이행하는 수사의문문이다. (24ㄴ)은 '나한테 반항하지 마라'는 명령의 화행을 이행한다고 볼 수 있다. (24ㄷ)은 천천히 걷는 상대의 행위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다. (24ㄹ)은 '뭐 하러'를 붙임으로써 '거기까지 밥을 먹으러 간' 행위가 무용하다고 판단하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낸다. (24ㅁ)은 누군가의 행위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표현하고 있다.

발화 지향적인 수사의문문은 선행 발화에 대한 반응으로 해당 발화에 대한 평가나 태도를 드러낸다.

(25) ㄱ. A: 너 설마 삐진 건 아니겠지?
B: <u>삐지긴 누가 삐져?</u>
ㄴ. A: 듣자 하니 너 집에서 쫓겨났다며?
B: <u>내가 쫓겨났다고 누가 그래?</u>
ㄷ. A: 너 지금 어디 가?
B: <u>어디 가긴 어디 가?</u> 늘 가던 데지.

(25ㄱ, ㄴ)에서 밑줄 친 B의 수사의문문은 각각 A의 선행 발화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드러낸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선행 발화가 전혀 가당치 않음을 나타내면서 선행 발화를 부정하려는 목적으로 발화되었다. (25ㄷ)에서 수사의문문의 기능은 상위언어적 부정으로, 상대방의 앞선 질문 행위 자체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2.2.2.2. 강조 대상: 극성, 양화, 정도성, 태도

수사의문문은 대체로 어떤 척도상의 극단을 가리키는 의미를 띠며 극성, 양화, 정도성, 태도를 강조하게 된다. 가령, 표면적인 의미에서 극성을 전환하여 얻어낸 함축에서는 반대 극성으로의 전환이 강조되거나, 부정 전칭 양화가 강조된다. 정도성이나 태도를 강조할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것의 양의 방향이나 음의 방향의 극단을 의미하게 된다.

첫째로, 극성이 전환됨을 강조하는 수사의문문의 예는 아래와 같다.

(26) ㄱ. 그 애가 올 턱이 있니?
ㄴ. 나는 안 바쁘냐?

(26)과 같은 판정의문문은 주로 표면적인 의미와 함축된 의미가 서로 반대 극성을 가진다. 가령 (26ㄱ)은 표면적으로 긍정 의문문이지만 '그 애가 올 턱이 없다'로 해석되고, (26ㄴ)의 경우 표면적으로 부정 의문문이지만 '나도 바쁘다'라는 긍정의 의미로 해석되며 반대 극성의 함축을 강조하는 효과를 낳는다.

둘째로, 부정 전칭 양화를 강조하는 수사의문문을 들 수 있다.

(27) ㄱ. 이게 뭐가 어려워?
ㄴ. 누가 너를 도와준댔어?
ㄷ. 노력하면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어?
ㄹ. 내가 언제 화를 냈냐?
ㅁ. 사람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하지?
ㅂ. 내가 왜 너를 싫어하냐?

앞서 설명의문문의 형태를 한 수사의문문에서 한 차례 보였던 것처럼 이들은 명제 내용을 충족하는 대상이 존재하지 않음을 나타내어, 부정 전칭 양화를 강조하는 해석을 가진다.

한편 부정 전칭 양화로 해석되는 수사의문문은 맥락에 따라 구체적인 지시 대상을 가리키는 경우가 있다.

(28) A: 너는 내 친구잖아.
B: <u>누가 네 친구야?</u>

(29) (엄마가 버릇없이 구는 아들에게) 누가 너 낳아주고 키워줬어?

(28)에서 밑줄 친 B의 발화는 일차적으로 의문사가 부정되어 '아무도 네 친구가 아니다'로 해석되지만, 맥락에 따라 구체적인 해석은 '(따라서) 화자는 네 친구가 아니다'로 이해된다. (29)는 의문사를 부정한다면 '아무도 너를 낳아주고 키워주지 않았다'로 해석되지만, 맥락을 고려하면 그 누구도 아닌 바로 '화자 자신이 상대를 낳아주고 키워주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나머지 수사의문문은 '정도성'과 '화자의 태도'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먼저 정도성을 강조하는 예를 아래에 든다.

(30) ㄱ. 하지 말라고 내가 {얼마나, 몇 번} 말했어?
ㄴ. 공부 시작한 지 {얼마나, 몇 분} 됐다고 쉬니?
ㄷ. 그 레스토랑이 어떤 덴데.
ㄹ. 네 말대로 되면 오죽 좋을까?
ㅁ. 둘이 그렇게 사이좋게 지내니 좀 좋으냐?

(30ㄱ~ㄷ)에서처럼 '얼마', '몇', '어떤' 등 수량이나 상태를 묻는 말이 쓰이면 정도를 강조하는 효과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0ㄱ, ㄴ)에서 '얼마'와 '몇'은 맥락에 따라 최대 혹은 최소의 정도를 표현한다. 예를 들어 (30ㄱ)에서는 '하지 말라고 내가 여러 번 말했다'를, (30ㄴ)에서는 '공부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쉰다'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30ㄷ)의 '어떤'도 정도를 강조하지만 구체적인 해석은 맥락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30ㄹ, ㅁ)의 '오죽'과 '좀' 또한 '얼마'와 비슷하게 극단적인 정도를 강조하되, 항상 최대치만을 나타낸다. 이들 수사의문문이 늘 양의 방향이든, 음의 방향이든 척도상의 극단을 의미하지 중간을 의미할 수는 없다는 점은 아래 수사의문문에 이어지는 내용의 예에서 확인할 수 있다.

(31) ㄱ. 하지 말라고 내가 {얼마나, 몇 번} 말했어? {열 번은 말했잖아/#두 번 말했잖아.}
ㄴ. 공부 시작한 지 {얼마나, 몇 분} 됐다고 쉬니? {겨우 5분 지났잖아/#적당히 지났잖아.}
ㄷ. 그 레스토랑이 어떤 덴데. {무척 유명하잖아/#평범하잖아.}
ㄹ. 네 말대로 되면 오죽 좋을까? {정말 좋겠지/#조금 좋겠지.}
ㅁ. 둘이 그렇게 사이좋게 지내니 좀 좋으냐? {정말 좋잖아/#조금 좋잖아.}

이어서, 수사의문문이 화자의 태도를 강조하는 경우가 있다.

(32) ㄱ. 어쩜 이렇게 귀엽지?
ㄴ. 넌 그것도 모르냐?
ㄷ. 내가 바보로 보이냐?
ㄹ. 어디 가긴 어디 가?

(32ㄱ)은 대상에 대한 긍정적인 감탄을 표현한다. (32ㄴ)은 쉬운 것을 알지 못하는 상대에 대해, (32ㄷ)은 화자를 바보로 여기는 듯한 상대의 말 혹은 행동에 대해, (32ㄹ)은 '어디에 가느냐'고 묻는 상대의 선행 물음에 대해 화자가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2.3. 중의성 정도에 따른 분류

수사의문문 중에는 맥락에 따라 일반의문문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의문문이 있는가 하면, 어떠한 맥락에서도 그러한 중의성을 지니지 않는 의문문도 존재한다.

(33) ㄱ. A: 우리 시험 날짜가 앞당겨진다고 하더라.
B: 누가 그래?

ㄴ. A: 이번 주 주말에 같이 놀러 가자.
B: (잠깐 생각한 뒤) 우리 시험이 언제인지 알아?

(33ㄱ)에서 B의 물음은 '그 말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 정보의 출처를 묻는 질문일 수도 있고, '아무도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 즉 '그런 말은 터무니없다'를 의미할 가능성도 있어 중의적이다. (33ㄴ)에서 B의 질문은 A의 제안에 답을 하기 전 시험이 언제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정보를 구하는 것이 목적일 수도 있고, 혹은 A에게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기 위해 발화한 것일 수도 있어 중의적인 성격을 가진다. 후자의 경우 간접적인 거절이 될 수 있으므로, B의 질문을 들은 A는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알고 물어보는 거야?'라고 반문함으로써 A의 정확한 의도를 확인해야 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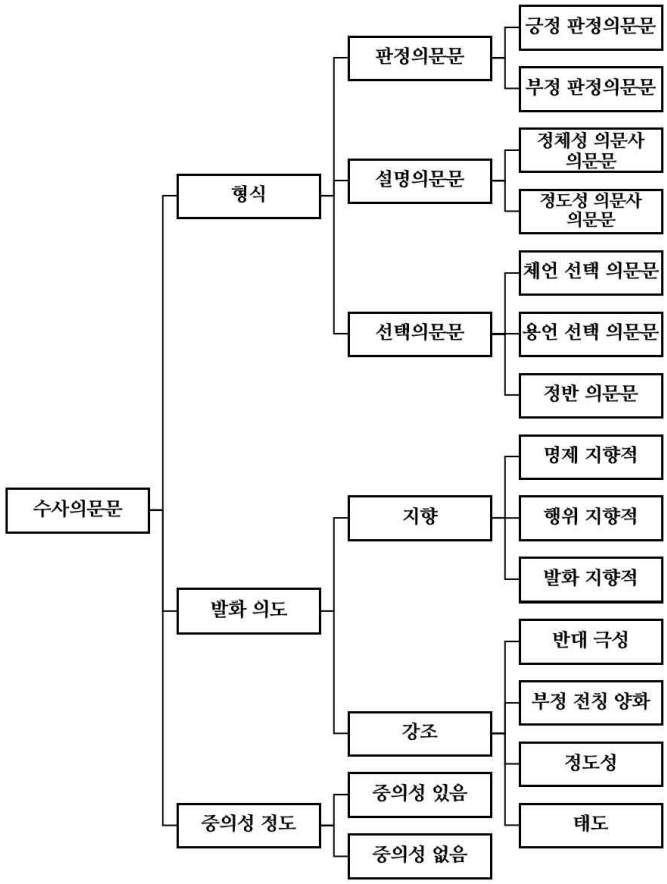
그러나 다음 의문문은 맥락과 관계없이 항상 수사의문문으로 해석된다.

(34) ㄱ. 내가 너에게 질쏘냐?
ㄴ. 괜찮을 리가 있습니까?
ㄷ. 내가 아무렴 그런 짓을 하겠어?
ㄹ. 지겹다 뿐이니?
ㅁ. 이걸 누구 코에 붙이냐?
ㅂ.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ㅅ. 누구기는 누구야?
ㅇ. 남의 것을 훔치면 되니?

(34ㄱ)은 '나는 너에게 지지 않는다'를 의미하는 수사의문문으로만 해석되는데, 그 이유는 '-(으)ㄹ쏘냐' 자체가 수사의문문에서만 출현하기 때문이다. (34ㄴ)은 항상 부정적인 내용하고만 어울리는 '리'의 성격으로 인해, 실제 의미는 '괜찮을 리가 없다'가 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34ㄷ)은 명제에 대한 화자의 강한 긍정을 나타내는 부사 '아무렴'으로 인해 순수한 의문문으로의 해석이 어렵다. (34ㄹ)의 '-다 뿐이-' 구문은 수사의문문에만 관습적으로 사용되는 양상을

보이고, (34ㅁ, ㅂ)과 같은 숙어와 속담은 의문문의 형식만 취하는데 이때 항상 수사의문문으로 해석된다. (34ㄹ)에서는 의문사가 되풀이되는 독특한 현상을 보이는데, 이러한 구조는 수사의문문에서만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34ㅇ)은 '남의 것을 훔치면 안 된다'는 일반적인 규범과 대립하는 질문이므로, 맥락과는 독립적으로 수사의문문으로 해석된다. 이상의 하위 분류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수사의문문의 하위 분류



앞에서 수사의문문의 특징을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수사의문문의 하위 분류 체계를 세웠다. 그러나 제시한 조건들로 수사의문문을 완벽히 구별해 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의문문을 일반의문문으로 볼지, 수

사의문문으로 볼지는 맥락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의문문과 혼동될 여지도 존재한다. 심지어는 담화의 맥락을 공유하는 대화참여자들조차도 의문문이 어떤 의도로 발화된 것인지 확신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은 (33)에서도 확인되었다. Ilie(1994)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영어 사용자들이 수사의문문의 의도를 알맞게 해석하는지를 알아보았는데, 결과에 따르면 제시된 수사의문문이 일반의문문이라고 인식한 참여자들이 다수 존재했다. 이처럼 의문문의 진정한 의도는 맥락이 주어져 있을 때조차도 항상 완벽하게 파악할 수는 없기에, 모든 수사의문문을 변별할 수 있는 틀을 제시하는 것은 본고의 소임에서 벗어나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일반의문문과 수사의문문이 대화참여자들에 의해 항상 완벽히 변별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넘어, 어떤 의문문이 두 의문문의 성격을 동시에 가질 수 있다고 보는 주장도 선행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

(35) 그 사람이 남을 돕니? (서정수 2013:406)

(35)는 서정수(2013)에서 '서술적 질문'의 예로 든 문장으로, '강한 서술적 표현 효과를 보이면서도 물음의 기능도 같이 가지는 의문문'이라고 기술되었다. 그에 따르면 (35)의 화자는 '그 사람은 남을 돕지 않는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35)를 발화함으로써 서술적 명제를 강하게 드러내면서, 동시에 '그 사람이 정말 남을 돕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응답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일반의문문과 수사의문문은, 판정의문문과 설명의문문, 선택의문문이 서로 구분되듯이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 부류라기보다 어떤 연속선상에 놓여 있는 것으로 파악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어떤 의문문이 두 의문문의 사이에 놓여 있다면 어느 쪽인지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고, 둘 모두에 속하는 것으로 인지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수사의문문은 일반의문문과 어떤 차이가 있으며 그 차이는 어떻게 인식되는가를, 다음 절에서 수사의문문의 작동 원리를 통해 살펴볼 것이다.

2.3. 수사의문문의 작동 원리

이 절의 목적은 수사의문문이 담화에서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대화에 참여하는 화자와 청자 측으로 나누어 알아보는 것이다. 먼저 화자가 수사의문문을 발화하는 조건과 효과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청자는 이를 어떻게 수사의문문으로 이해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길(2005)에서는 수사의문문이 발화될 수 있으려면 선행 발화나 생각, 상황 등이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고 본다.

(36) A: 영희가 예쁘지요?
B: <u>영희가 예쁘기는 뭐가 예뻐?</u>

(한길 2005:138)

예를 들어 위 대화에서 B가 발화한 수사의문문은 A의 '영희가 예쁘다'라는 선행 발화에 대한 반응으로 발화된 것이다. 이렇게 수사의문문은 어떤 전제에 대한 반응으로서 발화되는 성격을 갖는다(한길 2005:138). 반대로 이러한 전제가 없는 상황에서 수사의문문은 잘 발화되지 않는다. 아래와 같이 수사의문문이 담화 시작 위치에서 사용되었을 때를 가정한 청자의 반응에서도 이를 살펴볼 수 있다.

(37) A: 그것 좀 안 줄래?[2)]
B: 언제 달라고 했니?
B′: 뭐라구? 좋게 달라고 해.

(김미숙 1998:75)

(37)에서 A의 발화는 '그것 좀 줘'라는 명령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청자의 반응은 위의 두 가지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B처럼 '너는

2) 이때 A의 발화는 문장 자체로는 요청을 이행하는 의문문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어지는 B의 반응으로 보아, 이 대화에서는 A가 요청을 한 것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울 성싶다.

달라고 한 적이 없다'며 A의 선행 발화가 적절하지 못함을 드러낼 수도 있고, 혹은 B´처럼 불쾌감을 느끼고 화자의 태도를 문제 삼는 것도 가능하다.

그런데 선행 발화가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발화된 수사의문문은 자연스럽지 않다.

(38) A: 처음 뵙겠습니다. 제가 좀 일찍 도착해서 미리 돼지고기로 시켜 놨어요.
B: 저는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B´: 제가 돼지고기를 먹겠어요?
B´´: #제가 돼지고기를 안 먹겠어요?

A의 물음에 대한 B와 B´의 대답은 '나는 돼지고기를 안 먹는다'로 그 의미가 같다. 그런데 위 대화에서 A와 B가 이제 막 처음 만난 사이라고 가정할 때, 수사의문문인 B´은 자칫 불쾌하게 느껴질 가능성이 있으며 평서문인 B에 비해 자연스럽지 못한 등 그다지 선호될 만한 대답은 아니다. 한편 B´´처럼 대답하면 반대로 '나는 돼지고기를 먹는다'는 뜻이 되는데, 이 또한 흐름에 맞지 않아 부자연스럽다. 이로부터 수사의문문이 자연스럽게 발화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수사의문문의 발화 맥락에 관여하는 두 가지 종류의 편향(bias)과 '공통 기반'(common ground)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증거적 편향'(evidential bias) 혹은 '맥락적 편향'(contextual bias)으로, 현재 대화 맥락에 존재하는 증거에서 비롯되며, 따라서 대화참여자 사이에 공유될 수도 있는 믿음과 관련된 편향을 말한다(Sudo 2013:278)[3]. 달리 설명하면, '명제 p에 대해 대화 참여자 상호 간의 동의가 가능

3) Gunloson(2001)은 평서문의 예를 들어 맥락적 편향을 설명하였고, Sudo(2013)을 비롯해 의문문의 편향에 대해 논하는 논저들이 주로 부정 판정 의문문을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긍정 판정의문문 및 설명의문문을 발화할 때도 맥락적 편향과 인식적 편향이 충분히 존재할 수 있으리라 본고는 판단한다.

함과 동시에, 어느 한 대화 참여자가 이미 p에 대한 신념을 갖고 있어 ¬p에 대한 상호 간의 동의가 불가능할 때, p에 대한 맥락적 편향이 발생한다고 말하기도 한다(Gunlogson 2001:47).

(39) A: 네가 돼지고기를 잘 먹으니까 삼겹살을 주문할게.
B: 내가 돼지고기를 좋아하겠어?
B′: #내가 돼지고기를 안 좋아하겠어?

(40) A: 네가 쇠고기를 안 먹으니까 삼겹살을 주문할게.
B: 내가 쇠고기를 안 좋아하겠어?
B′: #내가 쇠고기를 좋아하겠어?

위 (39)에서 A의 발화로 보아 A는 이미 'B는 돼지고기를 좋아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므로, 'B는 돼지고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명제에 대해 A와 B가 모두 동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즉, 이러한 A의 발화를 근거로 'B는 돼지고기를 좋아한다'는 맥락적 편향이 생성된다. 이에 대해 B가 발화한 수사의문문은 흐름상 자연스럽지만 B′의 수사의문문은 부자연스러운데, 이유는 B′의 표면적인 명제, 'B는 돼지고기를 안 좋아한다'가 맥락적 편향인 'B는 돼지고기를 좋아한다'와 대립하기 때문이다. (40)과 같이 극성이 반대가 되어도 이는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수사의문문이 발화되는 배경에는 맥락적 편향이 존재해야 하며, 수사의문문은 표면적으로 담화의 맥락적 편향과 대립할 수 없다고 결론을 지을 수 있다. (38)에서 B′′의 수사의문문이 어색한 이유도 표면적으로 수사의문문이 담화의 맥락적 편향과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구분되는 또 다른 편향은 '인식적 편향'(epistemic bias)으로, 대화 맥락 속 증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화자의 개인적인 믿음에 기반한 편향을 가리킨다. 혹은 맥락에 따라서 사회 규범이나 화자의 개인적 바람에 기반한 기대를 인식적 편향으로 볼 수도 있다(Sudo 2013:282).

(41) (A, B, C는 자주 함께 식사를 하는데, B는 C가 돼지고기를 전혀 먹지 않는다는 것을 눈치챘다. 셋은 식당에 왔다.)
A: 우리 삼겹살 시키자.
B: C가 돼지고기를 먹겠냐?

A의 발화로부터 'A, B, C는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다'라는 맥락적 편향이 발생한다면, B가 발화한 수사의문문은 'C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라는 B의 인식적 편향을 드러낸다. B에게 이러한 인식적 편향이 있는 것은 해당 담화에 존재하는 어떤 증거 때문이 아니라, 평소 B가 관찰한 바를 토대로 C의 음식 취향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만약 위와 같은 맥락이 없어 C가 돼지고기를 먹는지 먹지 않는지에 대해 B가 아무 생각이 없는 상태라면, 위와 같은 수사의문문은 발화될 수 없다. 다시 말해, 수사의문문은 화자가 인식적 편향을 지닐 때 발화된다. 이는 어떠한 편향도 실리지 않을 수 있는 일반의문문과 차이를 보이는 부분으로, 편향이 강해질수록 의문문은 수사의문문에 가까워진다고 하겠다. 앞서 수사의문문이 일반의문문과 혼동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는데, 청자가 화자의 편향을 어느 정도라고 인식하느냐에 따라 일반의문문, 수사의문문, 혹은 둘의 중간에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눈여겨볼 점은 '세 사람은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맥락적 편향과 수사의문문의 표면적인 명제 'C가 돼지고기를 먹을 것이다'는 양립이 가능해야 하지만, 'C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라는 B의 인식적 편향은 맥락적 편향과 충돌한다는 것이다. 이로부터 화자의 인식적 편향이 맥락적 편향과 양립하지 못할 때 수사의문문이 발화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수사의문문이 나타내는 반대 극성으로의 함축, 명제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놀라움 등은 이와 같이 맥락적 편향이 화자의 인식적 편향과 불일치함을 드러내는 데서 비롯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4] 즉 수사의문문은

4) 반대 극성으로의 해석과 감탄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 것은 두 해석 모두가 의외성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으로 보인다. 강규영(2022ㄱ:487-488)에서도 각각을 '의문사에 할당할 값이 없음', '의문사에 할당할 값을 모르겠음'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반기대적인 상황에서, 화자의 의외성을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여기에 더해, 수사의문문은 공통 기반이 상정된다는 조건이 덧붙는다.

(42) (A, B, C는 식당에 왔다. C는 둘에게 자신이 돼지고기 알레르기가 있다고 말했다. 잠시 후 종업원이 주문을 받으러 왔다.)
A: 우리 삼겹살 시키자.
B: C가 돼지고기를 먹겠냐?

(43) (A, B, C는 식당에 왔다. A가 화장실에 간 사이, C는 B에게 자신이 돼지고기 알레르기가 있다고 말했다. 잠시 후 A가 자리로 돌아왔다.)
A: 우리 삼겹살 시키자.
B: #C가 돼지고기를 먹겠냐?

(42)에서와 달리 (43)에서 B의 수사의문문이 부자연스러운 이유는 두 담화 사이 맥락의 차이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42)에서 A가 C의 말을 귀담아들었다면 'C는 돼지고기를 먹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반면 (43)에서는 A가 이를 알고 있거나 추론할 만한 근거가 없다. 정확히 말하면 B로서는 A가 이를 알고 있다고 생각할 만한 근거가 없는 것이다. 처음 만나 서로에 대해 아는 것이 없는 사람들끼리의 대화인 (38)에서 B′이 답변으로서 선호되기 어려운 이유 또한 이와 같다. 이렇게 수사의문문은 대화참여자들이 어떤 믿음을 공유한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발화되면 부자연스럽거나 적절하지 못하다. 이는 수사의문문에 함축된 명제가 참임을 청자도 알 것이라고, 즉 화청자의 공통 기반에 명제가 속해 있다고 여겨질 때 수사의문문이 발화되기 때문이다.

공통 기반이란 '대화참여자들이 가진 공통적인 믿음을 나타내는 명제들의 집합'으로 정의할 수 있다(Gunlogson 2001:39). 어떤 믿음이 공통 기반에 속해 있다는 것은 대화참여자들이 그 믿음을 공유할 뿐만 아니

둘이 의미적으로 가까움을 보인 바 있다.

라, 그러한 믿음을 상대방도 알고 있다는 사실 자체도 상호적으로 의식함을 의미한다. 즉 개인적인 믿음이나, 우연히 둘 다 갖고 있어서 서로 의식하지 못하는 신념은 공통 기반에 속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이러한 공동의 믿음을 상정하는 데는 개인적인 이력이나 이전의 상호 작용, 담화 도중 일어나는 현실의 사건들 등 다양한 것이 근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대화참여자들끼리 반드시 아는 사이라야 공통 기반이 구성된다는 법은 없다. 심지어는 처음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본인과 상대방이 모두 갖고 있다고 인식하는 일반적인 신념들이 존재한다. 특정 문화의 구성원으로서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간주되는 신념들, 해당 담화가 진행되는 시간, 장소, 소통 수단 등 물리적인 환경에 대한 정보 등이 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Gunlogson 2001:40-41).

Rohde(2006)에서는 Gunlogson(2001)의 공통 기반 모델을 이용하여 수사의문문의 적정 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수사의문문이 성공적으로 발화되기 위해서는 그것에 명백한 답(answer)이 있어 화청자들에게 공유되어야 하며, 수사의문문은 이 답에 대한 강한 편향을 전달한다. 그러려면 이 답은 대화참여자들의 기존 신념, 즉 공통 기반에 이미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바, 먼저 Rohde(2006)의 주장을 살펴보기로 한다.

(44) A: So, who's your favorite team?
B: <u>Who do you think?</u> The Dallas Cowboys!
(Rohde 2006:135)

위 예문에서 밑줄 친 B의 발화가 성공적인 수사의문문이 되기 위해서는 A, B 모두가 'B가 좋아하는 팀이 댈러스 카우보이임'을 알고 있거나 유추할 수 있어야 한다. 수사의문문이 함축하는 명제는 대화참여자들이 공유하는 공동의 믿음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야 한다(Rohde 2006:136). 대화참여자들은 상대방이 그러한 명제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수사의문문은 기본적으로 대답할 필요가 없으며, 대화참여자의 신념 집

합을 갱신하지도 않는다.

(45) How high are taxes going to be when my kids are my age?
(Rohde 2006:136)

위 수사의문문이 발화된 대화의 참여자 모두가 장래에 세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이미 생각하고 있다면, 각자의 신념 집합에는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지 않을 것이다. 수사의문문에 대해 화자와 청자가 생각하는 분명한 답은 정확히 일치하거나, 적어도 맥락과 관련된 척도상에서 같은 방향의 극단에 놓여 있어야 한다(Rohde 2006:136). 예를 들어 위 수사의문문과 관련해 세율의 높고 낮음을 나타내는 척도를 상정할 수 있는데, 세율이 얼마나 높아질 것인지에 대해 화자와 청자가 정확히 똑같은 추정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해도, 둘 다 '매우 높을 것'이라는 양의 방향의 극단에 놓인 답을 가지고 있다면, 수사의문문은 충분히 성공적으로 발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정리하면 수사의문문은 정보를 구하거나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불필요한(redundant) 의문문으로 간주되며, 수사의문문의 성공 여부는 공통 기반에 속해 있는 대화참여자들의 신념의 상태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 Rohde(2006)의 주장이다. 수사의문문의 발화 효과는 대화참여자들의 신념을 일치시키고, 그들이 세계에 관하여 공유하는 신념을 확실히 하는 것이다(Rohde 2006:135). 수사의문문이 성공적으로 발화되기 위한 적정 조건을 Rohde(2006)는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46) ㄱ. 화청자의 신념 속에 명백한 답이 존재할 것
ㄴ. 답이 새로운 정보를 주지 못할 것(uninformativity)
ㄷ. 화자와 청자가 가진 답이 충분한 유사성을 지닐 것

그런데 Rohde(2006)의 기술은 몇 가지 의문을 자아낸다. 첫째로, 수사의문문을 정말로 '불필요한' 의문문으로 취급할 수 있는가를 물을 수 있

다. 화청자가 가진 신념이 정말로 동일하다면, 애초에 수사의문문이 신념을 일치시킬 필요성은 어디서 발생하는지가 드러나 있지 않다.[5] 둘째로, 수사의문문이 발화되기 전부터 수사의문문의 답이 둘의 공통 기반에 반드시 존재하고 있어야 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는 점이다. 수사의문문의 화자가 가진 인식적 편향이 청자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수사의문문이 자주 발화되기 때문이다.

(47) A: 네가 돼지고기를 잘 먹으니까 삼겹살을 주문할게.
B: <u>내가 돼지고기를 좋아하겠어?</u>

B의 수사의문문은 '나는 돼지고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로 해석되며, 이는 곧 B가 가진 신념이다. 그런데 A의 말에 따르면 A는 B가 돼지고기를 좋아한다고 인식하고 있으리라 짐작된다. 이렇게 청자와 화자의 인식이 대립하는 것이 분명한 가운데서 화자의 신념이 청자와 공유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화자와 청자가 신념이 같다면, 애초에 A가 위와 같이 말하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 아래와 같은 수사의문문은 화자가 청자의 신념 집합에 대해 알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발화되기도 한다.

(48) ㄱ. 충남 섬 주민 유일한 뱃길 끊겨서야 되겠는가
(《충청투데이》, 2022년 11월 15일 화요일)
ㄴ. (아들 철수 때문에 화가 머리끝까지 난 아버지가 현관문을 열자마자) 철수, 이리 안 와!
ㄷ. 어쩌면 이렇게 귀엽지?

(48ㄱ)은 신문 기사의 제목으로, '유일한 뱃길이 끊겨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어지는 내용에서 기사는 충남 섬 지역과 내륙 사이를

5) 게다가 발화가 새로운 정보를 주지 못한다고(uninformative) 해서 곧 그 발화는 의미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Gunlogson(2001:62-69) 또한 새로운 정보를 주지 못하는 것(uninformativeness)과 무의미한 것(vacuousness)을 구분하였다.

오가는 항로의 운항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으며, 충청남도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때 글을 읽는 독자의 신념에 대해 글쓴이는 알지 못한다. (48ㄴ)은 '어서 이리 오라'는 뜻의 명령으로 해석되는데, 위 상황에서 화자가 청자인 아들의 신념에 대해 알고서 수사의문문을 발화한 것은 아니다. (48ㄷ)은 청자의 신념 집합에 '이것은 매우 귀엽다'라는 신념이 들어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없더라도 화자의 감정 표현을 위해 발화되기도 한다. Rohde(2006)의 적정조건대로라면 위 수사의문문은 성공적으로 발화된 것이라고 간주할 수 없겠지만, 본고의 판단으로는 지극히 자연스럽다.

이에 본고는 공통 기반을 골자로 한 Rohde(2006)의 중심적인 주장에는 동의하되 관점을 약간 달리하여 보기로 한다. 함축된 명제가 이미 화청자의 공통 기반에 포함된 상태에서 수사의문문이 발화된다기보다, 화자가 그렇게 전제한 상태에서 발화되는 것에 가깝다. 화자가 청자와의 공통 기반을 전제하는 근거는 다양할 수 있다. 어떤 신념이 (49ㄱ)처럼 일반적인 상식에 속하거나, (49ㄴ)처럼 두 사람이 공유하는 경험에서 비롯되었거나, (49ㄷ)처럼 화자의 개인적인 믿음이거나, 그 외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화청자가 갖고 있어야 마땅하다고 판단한다면 화자가 수사의문문을 발화하는 근거가 된다.[6]

(49) ㄱ. <u>남의 것을 훔치면 되니?</u> 도둑질이 나쁘단 건 어린애라도 알겠다.
ㄴ. <u>쟤가 돼지고기를 먹겠냐?</u> 알레르기 있다고 전에 우리한테 말했잖아. 기억 안 나?
ㄷ. <u>어떻게 신문을 안 보냐?</u> 세상 돌아가는 걸 알려면,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신문만 보면 돼.

이와 같이 설정했을 때의 차이점이라면, 설사 해당 명제가 본래는 공통 기반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수사의문문을 통해 공통 기반을

6) 물론, 말했듯이 청자가 이에 대해 도저히 알 도리가 없는 상황인데도 수사의문문으로 표현한다면 자칫 불쾌감을 줄 가능성이 있다.

갱신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수사의문문과 유사한 다른 의문문과의 비교가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을 듯하다. 박유경(2020)에서는 장형부정의문문의 기능을 '화청자의 공통 기반에 어떤 명제가 편입되는 데 대한 청자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설명하며, 장형부정의문문을 상위부정형과 하위부정형으로 나누고, 하위부정형은 다시 두 개로 나누었다. 이 중 '하위 부정형2'와 '상위 부정형' 의문문이 기존 확인의문문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맥락적 편향과 화자의 인식적 편향 면에서 수사의문문은 상위부정형과 유사하다.

(50) ㄱ. 미나가 오-지∨않았니? (하위부정형1)
ㄴ. 미나가 ∨오-지 않았니? (하위부정형2)
ㄷ. 미나가 왔지 않니? (상위부정형)

(박유경 2020:83)

하위부정형1은 '미나가 오지 않았다'에 대해 편향을 가지는 반면, 하위부정형2와 상위부정형은 '미나가 왔다'라는 명제에 대하여 편향을 가진다. 하위부정형1은 화자의 편향과 상관없이 명제에 대한 부정적인 맥락 증거가 존재할 때, 즉 미나가 오지 않았다고 판단할 만한 상황에서 발화되고, 상위부정형과 하위부정형2는 중립적인 맥락과 명제에 대해 부정적인 맥락 증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모두 발화될 수 있다. 상위부정형과 하위부정형2의 차이는 상위부정형은 '미나가 왔다'라는 명제가 화청자의 공통 기반에 존재한다고 전제하고 이 공통 기반을 점검 및 확인하는 기능을 하나, 하위부정형2는 그러한 전제 없이 청자의 대답에 따라 청자의 공적 믿음을 확인하고 공통 기반을 갱신하는 목적을 지닌다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박유경 2020:88).

수사의문문과 상위 부정형 의문문은 맥락 증거와 화자의 편향적 믿음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발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사해 보인다. 다만 '점검'이나 '확인'이라는 단어에서도 느껴지는 것처럼 후자는 어디까지나 명제 내용이 화청자의 공통 기반에 있다는 화자의 전제에 대해 청자의 인

정을 요구하는 느낌이 짙다. 확인의문문은 화자가 어느 정도 믿거나 아는 내용에 대하여 청자의 동의를 구하는 의문문으로 자주 기술되며(류현미 1999; 서정수 2013), 그리하여 발언의 강도를 약화하고 체면 위협을 방지하기 위한 의문문으로 여겨졌던 것 같다(신자영 2015:123).

반면, 수사의문문은 '확인'을 넘어 '강한 단언'과 '설득'을 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선행 연구들에서 수사의문문의 기능이 '확인'이 아니라 '강한 단언, 명령, 감탄'으로 주로 기술된다는 점이 이를 보여 준다. 이때는 청자의 동의나 확인이 필요하지 않다. 화청자의 공통 기반에 대한 화자의 단정적인 전제를 바탕으로 공통 기반이 갱신되기 때문이다. 이 둘을 비교하기 위해 아래에 박유경(2020)에서 든 상위부정형 의문문과 수사의문문을 함께 제시한다.

(51) ㄱ. (영숙은 퇴근길 집에 있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고, 아들과 함께 있던 딸아이와도 통화했다. 그런데 집에 와 보니 딸 혜리는 보이지 않는다. 영숙은 집에 있는 아들에게 묻는다.) <u>혜리가 왔지 않아?</u> (박유경 2020:85)

ㄴ. (영숙은 오랜만에 딸이 집에 왔다고 하여 퇴근길에 딸이 좋아하는 새우를 사서 집에 갔다. 그것을 보자마자 아들이 웬 새우를 사 왔느냐고 묻는다. 영숙은 딸이 벌써 집에 왔으며 딸이 새우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아들도 알 것이라고 생각하고 답한다.) <u>혜리가 왔지 않아?</u>

(51ㄱ)은 박유경(2020)에서 든 상위부정형 의문문의 예를 맥락과 함께 가져온 것이고, (51ㄴ)은 같은 문장이 수사의문문으로 쓰일 수 있도록 맥락을 재구성한 것이다. (51ㄱ)과 (51ㄴ)의 밑줄 친 의문문에 대하여 화자는 모두 '혜리가 왔다'는 명제에 대한 편향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한 믿음이 청자와 공유되고 있다고 가정하고 있으며, 맥락 증거는 이와 대립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51ㄱ)이 그 믿음이 공통 기반에 속해도 되는지에 대해 청자의 동의를 구하고 있다면, (51ㄴ)은 자신의

믿음이 공유되어야 마땅하다고 전제하고 공통 기반을 갱신한다.

따라서 상위부정형 장형의문문, 혹은 확인의문문은 '어떤 명제가 공통 기반에 속해 있다고 전제되는 상태에서, 청자로부터 확인을 구함으로써 공통 기반의 상태를 결정하고자 발화'하는 의문문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반대로 수사의문문은 '화자가 전제하는 공통 기반과 일치하도록 공통 기반을 갱신한다'는 설명으로 둘을 구별할 수 있겠다.

앞서 제시했던, 화자가 청자의 신념에 대해 알기 어려운 상황에 발화된 수사의문문의 예를 아래 다시 든다.

(52) ㄱ. 충남 섬 주민 유일한 뱃길 끊겨서야 되겠는가
ㄴ. (아들 철수 때문에 화가 머리끝까지 난 아버지가 현관문을 열자마자) 철수, 이리 안 와!
ㄷ. 어쩌면 이렇게 귀엽지?

(52ㄱ)의 글쓴이는 '충남 섬 주민의 유일한 뱃길이 끊겨서는 안 된다'가 자신과 독자의 공통 기반에 이미 존재하는 것처럼 가정함으로써 해당 명제를 역설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52ㄴ)을 들은 아들은 '이리 와'라는 명령문을 들을 때보다도 아버지에게 가는 행위의 급박함을 강하게 느낄 것이다. 실제와는 별개로, 이미 아버지에게 가야 한다는 것이 화청자의 공통 기반에 존재하는 것처럼 발화되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52ㄷ)과 같은 감탄의 수사의문문은 감탄의 내용이 공통 기반에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함으로써 공감을 유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 따라 수사의문문이 발화되는 배경은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53) ㄱ. 화자는 어떤 명제에 대한 강한 인식적 편향을 지니고, 편향된 믿음이 청자와의 공통 기반에 포함되어 있다고 전제한다.
ㄴ. 화자가 가정하는 공통된 믿음과 맥락적 증거가 충돌한다.
ㄷ. 화자가 전제하는 공통 기반과 화청자의 공통 기반을 일치시

키기 위해 화자는 수사의문문을 발화함으로써 공통 기반을 갱신한다.

수사의문문의 화자는 어떤 명제가 공통 기반에 존재한다고 전제하는 고로, 이러한 '당연함'이 바탕이 된 수사의문문은 일반적인 단언보다도 한층 더 강한 단언으로 기능한다. 어떤 행위를 해야 한다는 사실이 화청자의 공통 기반에 존재한다고 여겨질 때, 청자가 그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은 화자의 기대에 어긋나므로 화자는 수사의문문을 통해 반기대적인 행동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드러냄으로써 명령의 의미를 나타낸다(강규영 2022ㄱ:500). 때로 수사의문문은 화자가 느끼는 감정을 마땅히 느껴야 하는 것처럼 만들어, 상대방의 내면에도 화자와 같은 감정을 촉발하는 기능도 가진다.

그렇다면 왜 평서문, 명령문, 감탄문 대신에 의문문으로 표현이 되는가? 본고는 이것이 의문문이라는 문장 유형 자체가 갖는 특성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한다. 우선, 화자의 기대와 상황이 충돌할 때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자연스러우므로, 의문문은 반기대적인 상황에 대한 의외성을 표현하는 데 효과적이다(강규영 2022ㄱ:499). 또한, 의문문의 직접 화행인 질문에서 비롯되는 효과가 존재한다. 예컨대 진술은 화자가 일방적으로 명제 내용을 전달하므로 청자와의 상호작용을 항상 요하는 것은 아니다. 반면에 일반적으로 질문은 의문문에 포함된 명제 내용이 참인가, 아닌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Gunlogson 2001:66), 청자에게 대답을 요구함으로써 상호작용을 유도한다(김미숙 1998:61). 이는 박진호(2019)에서 수사의문문이 상대방에게 '한 번 생각해 볼 것'을 유도한다고 기술한 사실로도 뒷받침된다. 그 결과 청자가 "반사적으로 질문 자체에 대한 사고 과정을 겪게 되며 발화에 내포된 단언적 가치에 대해 자연스럽게 권유"(김사랑 2015:69-70)를 받게 되는 효과를 낳는다.

다음으로, 청자 측에서는 어떤 의문문이 수사의문문임을 어떻게 이해하며, 함축된 의미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선행 연구에서는

이를 주로 화행의 적정 조건 및 대화의 격률로 설명한다. 화행이 성공적으로 이행되기 위한 적정 조건에는 세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첫째로 예비 조건(Preparatory conditions)은 화행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 갖춰져야 하는 전제를 말한다. 둘째로 성실성 조건(Sincerity conditions)은 화자가 반드시 가져야 하는 믿음이나 태도를 말하며, 셋째로 본질 조건(Essential conditions)은 화자가 의도한 화행 혹은 그 화행으로써 성취하려는 바가 무엇인지에 관한 조건이다. '질문' 화행의 경우, 예비 조건에 따라 화자는 의문문에 대한 답을 몰라야 하며, 성실성 조건에 따라 화자는 의문의 답을 알고 싶어 해야 할 것이며, 본질 조건에 따라 청자가 질문에 답을 제공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그런데 수사의문문의 경우는 화청자가 가진 공통적인 믿음을 생각하면 화자가 그러한 내용에 진심으로 의문을 가지고 알고 싶어 한다고 간주하기 어렵기 때문에, 성실성 조건을 위배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54) 엄마: 얘! 너 얼굴 왜 이래? 너 싸웠어? 얼굴이 왜 이래? 아유! 잘 난 얼굴이 이게 뭐야?
아들: 그럴 일이 좀 있었어요.
엄마: 그럴 일이 뭔데? <u>나이가 몇인데 싸우고 다녀?</u>
아들: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흔들리지 마 46회>

예를 들어, 위 예문에서 아들이 엄마가 발화한 의문문을 일반의문문으로 해석했다면 대답으로 자신의 나이를 말하거나, 혹은 아들의 나이도 모른다며 불만을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엄마가 자기 아들의 나이를 모를 가능성은 없다는 것을 아들도 알 것이다. 엄마가 발화한 의문문은 '몇'에 해당하는 답을 요구하는 의문문으로 보기 어려워지는 고로, 성실성 조건을 위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화의 격률로 따지자면 엄마는 '질의 격률'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된다. 진실된 것만을 말함으로써 대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질의 격률은 실제로 응답을 요구하지도 않으면서 질문을 하는 수사의문문에 의해 위반되기 때문이다(Brown & Levinson 1987:223; Haverkate 1997:222). 바로 이

러한 위반이 말해진 것으로부터 함축된 것을 추론해 내야 한다는 신호가 된다. 발화를 잘못되거나 무의미한 발화로 취급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대화에 협력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모든 지식과 판단의 근거가 될만한 맥락, 상황적 요소들"을 고려하여 적절한 해석을 추론해 내는 것이다(이창덕 1992:130).

위 예문의 예를 들면, 아들은 엄마의 물음이 성실성 조건을 위배한다는 사실을 인지한 뒤에도 엄마가 협력적인 대화 상대라고 가정하고, 엄마가 잘못된 발화를 했다는 결론을 배제할 것이다. 엄마는 아들의 나이를 알면서 왜 위와 같이 물어보았을까? 아들이 그 이유를 추론하는 과정을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① 엄마는 엉망이 된 아들의 얼굴을 보고 밖에서 싸움을 하고 들어왔으리라는 판단을 내린 뒤 해당 의문문을 발화하였다.
② 엄마가라면 아들이 싸움을 하고 다니는 걸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보통 갈등을 폭력으로 해결하는 것은 성숙한 행동이 아니다.
③ 엄마가 보기에 싸움을 하고 다니는 것은 성숙하지 못하며 자기 나이를 의식하지 않는 사람이나 하는 행동일 것이다.
④ 엄마는 아들이 자기 나이를 안다고 믿을 것이다.
⑤ 상황과 엄마의 전제가 상충하므로, 엄마는 '아들이 몇 살인지'를 아들이 모르고 있는지를 질문을 통해 확인하려 한다.
⑥ 따라서 위와 같은 의문문을 발화했다는 것은, '너의 나이를 너도 알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너의 행동은 그렇지 않아 보인다'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⑦ 최종적으로 아들은 엄마의 발화를 '너는 밖에서 싸우고 다닐 만큼 미성숙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의미로 해석하고, 그럼에도 나이에 맞지 않게 싸움을 하고 다니는 아들을 꾸짖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아들이 '나이가 몇인데 싸우고 다니느냐?'에 대한 대답으로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반응할 수 있는 것은 위와 같은 추론을 거쳐 함축에 다다른 다음이다.

그런데 청자가 의문문을 들을 때마다 이러한 단계적 추론에만 의존하는 것은 아니다. 억양에 따라 일반의문문과 수사의문문이 구별된다고 기술한 연구는 꾸준히 있어 왔는데, 예를 들어 한길(2005)에서는 수사의문문에 특징적인 억양, 음조, 강세 등이 관찰된다고 보았다. 같은 판정의문문이라도 문장 끝에 '급히올림'의 억양이 실리면 수사의문문으로 해석되고, 설명의문문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내림 억양이 놓이지만 수사의문문일 때는 올림 억양으로 실현된다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때로 수사의문문은 문두에 높은 음조가 높이기도 하며, 설명의문문의 형태를 한 경우는 의문사에 강세가 놓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한다.[7)]

비단 억양뿐만이 아니라, 의문문에 출현한 특정한 단어나 표현, 구조, 내용이 해당 의문문이 수사의문문이라는 단서를 제공하기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때 수사의문문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이유는 제각각이다. 앞에서 들었던 중의성을 띠지 않는 수사의문문의 예를 아래 다시 보인다.

(55) ㄱ. 내가 너에게 질쏘냐?
ㄴ. 괜찮을 리가 있습니까?
ㄷ. 내가 아무렴 그런 짓을 하겠어?
ㄹ. 지겹다 뿐이니?
ㅁ. 이걸 누구 코에 붙이냐?
ㅂ.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ㅅ. 누구기는 누구야?
ㅇ. 남의 것을 훔치면 되니?

첫째로, 다른 문장 유형이나 일반의문문에는 쓰이지 않고 오직 수사의문문에만 출현하는 요소가 일부 존재한다. 이들이 문장에 쓰이면 일반의문문의 해석은 자동적으로 배제될 수밖에 없다. 둘째로, 반드시 부정적인 내용하고만 공기하는 표현이 긍정 의문문에 사용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때 실제 의미는

7) 그러나 같은 책에서도 지적했듯이 이는 화자에 따라서 차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체계화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본고에서는 운소적 요소의 영향에 대해서는 이 이상 다루지 않기로 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한길(2005:75-83)을 참고할 수 있다.

극성이 반대로 전환되어 부정으로 해석되어야 하므로 수사의문문으로 이해된다. 셋째로, 인식 양태 및 감정 양태, 곧 명제에 대한 화자의 판단이나 태도를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일부 표현들이 의문문에 포함되면 순수한 의문으로 해석되기 어려우므로 곧바로 수사의문문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 일부 구문, 숙어, 속담은 관습적으로 수사의문문을 형성하는 데만 사용되곤 하며, 수사의문문에서만 허용되는 독특한 구조가 활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형식적인 면뿐만이 아니라, 의문문의 내용에 따라서도 수사의문문임을 판별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일반적인 상식에 비추어 보았을 때 물어볼 필요도 없는 당연한 내용의 의문문이 순수한 의문문으로 해석되기 어려운 것은 명백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어떤 수사의문문을 들었을 때 추론의 과정을 생략하고 의도된 함축에 이르게 하는 방식은 다양하며, 그러한 기능을 가진 요소들은 형태소, 단어, 구문, 숙어 및 속담, 통사적 현상 등 여러 형식적인 층위에 걸쳐 분포되어 있다. 때로는 특정 형식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의문문의 내용에서 일반적인 의문문이 아님이 명확히 드러나기도 한다. 이러한 형식적, 의미적 요소들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제시하고 개별 항목이 수사의문문을 실현하는 양상에 대해 논의하는 작업은 본고의 3, 4장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2.4. 수사의문문과 간접화행

본고는 앞서 수사의문문은 화자의 믿음에 대해 확인을 구하는 것을 넘어 이러한 믿음을 청자에게 강력하게 설득하는 의문문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수사의문문이 '강화장치(amplifier)인지 완화장치(mitigator)인지', '체면 위협 행위를 하는지 혹은 체면 보호 행위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수사의문문이 완화장치의 기능을 한다고 주장하는 논의 중 하나인 Brown & Levinson(1987)은 수사의문문을 체면 위협 행위(Face-threatening Acts)의 영향을 완화하는 한 가지 방책으로 보았다.[8] Ilie(1994)에서는 수사의문문이 맥락에 따라 강화장치와

8) Brown&Levinson(1987)은 여러 언어를 대상으로 공손성의 언어적 실현 양상을 연구하였는데, 변명, 비난, 비꼬기 등의 체면 위협 행위(Face-threatening Acts)를 할 때 그 영향을 완화하는 여러 방책의 한 가지가 수사의문문의 사용이라고 주장한다. 수사

약화장치로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9] Frank(1990)에서도 유사한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반면에 다른 선행 연구(Quirk et al. 1985; 박종갑 1982; 남기심·고영근 1985; 고영근 1989; 서정수 2006; 한지현 2007; 서희정·홍윤기 2011 등)에서는 수사의문문의 기능을 강조 혹은 강한 진술로 기술하고 있다. Haverkate(1997) 또한 수사의문문이 그것이 이행하는 화행의 설득력을 강화한다고 보았고, Zillman & Cantor(1974)도 수사의문문이 갖는 설득의 기능에 주목하였다.

수사의문문의 기능에 대해 강화와 완화라는 상반된 주장이 모두 존재하는 것은 언뜻 혼란스러워 보인다. 심지어는 구체적인 맥락이 주어졌을 때도 받아들이는 이에 따라 다른 판단을 내리기도 한다. Špago(2022)에서는 모욕적인 내용이나 함축을 지닌 수사의문문이 대응하는 진술문에 비해 모욕을 약화하는지 아니면 강화하는지를 알아보는 실험을 진행하였는데, 문장과 발화 맥락이 똑같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피실험자들은 엇갈리는 직관을 보였다. 이렇게 개인에 따라, 또 맥락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는 직관 대신 다른 근거에 기댈 필요가 있다는 것이 본고의 주장이다.

수사의문문은 의문문의 형식을 빌려 단언, 명령, 감탄 등을 이행한다. 어떤 문장의 유형과 그것의 화행이 일치하지 않을 때 이를 간접화행이라고 칭하므로 수사의문문도 마찬가지로 간접화행을 이행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 선행 연구에서도 수사의문문을 간접화행을 행하는 방

의문문은 비공개적인(off-record) 체면 위협 행위에 이용되는데, 일반적인 의문문으로도 수사의문문으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는 중의적 성격 때문이다. 이때 가능한 두 가지 해석 중에서 청자는 판단을 내리게 되고, 그로써 화자는 수사의문문의 발화로 인한 체면 위협의 책임을 회피할 수가 있다. 또 다른 해석이 얼마나 가능성이 높은가에 따라 비공개적인 성격의 정도는 달라지게 된다(Brown & Levinson 1987: 211-212).

9) Illie(1994)에 따르면 강화장치로 사용될 경우 수사의문문은 체면 위협 행위로 기능하게 되며, 대응하는 진술의 강도는 수사의문문의 강도보다 약하다. 그렇게 화자의 관점이나 주장의 영향을 강화함으로써 청자의 지지를 얻는 데 사용되기도 하며, 도발과 공격의 기능도 담당한다. 완화장치로 사용되는 경우는 수사의문문에 대응하는 진술이 수사의문문보다 강도가 높으며 특정한 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정한 맥락에서 나타난다. 수사의문문은 청자의 체면과 화자 자신의 체면 위협을 회피하기 위해 발화의 의미를 완화한다. 이러한 용법의 수사의문문은 자기 보호(self-defense)나 정당화(justification), 방어적인 반대(hedged objections), 자기 평가(self-assessments) 등을 행하는 체면 보호 행위로서 기능한다(Ilie 1994:54).

법의 하나로 기술하고 있다(Frank 1990; 이창덕 1994, 2005; Haverkate 1997; 김애화 2009; 양용준 2020). 예를 들어 이창덕(1994)에서는 간접적으로 단언과 요청을 이행하는 의문문을 모두 가리켜 '담화 책략 질문' 개념으로 설명하며, 김애화(2009)에서도 수사의문문을 따로 구별하지는 않고 의문문이 갖는 다양한 간접화행으로 지시, 요청 두 가지를 제시한다.

다만 수사의문문이 여타 간접화행에 이용되는 의문문과 다른 특징을 가진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일반적으로 간접화행을 사용하는 가장 큰 동기는 공손성이라고 알려져 있다(Searle 1975:74).

(56) ㄱ. 소금 줘.
ㄴ. 소금 줄 수 있어?

(56ㄱ) 대신에 (56ㄴ)을 발화하는 것은 일종의 공손 책략으로 간주되곤 한다. 예시와 같이 청자의 능력을 묻는 의문문으로 요청을 대신하는 이유는 첫째, 화자가 청자의 능력에 대해 안다고 가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손성이 실현되고(Searle 1975:74), 둘째로는 행동을 할지 말지의 여부를 청자가 결정하게 함에 따라 화자의 요청을 완곡하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된다(김애화 2009:25). 반대로 말해 (56ㄱ)의 명령문은 요청하는 행위를 할 능력이 청자에게 있다는 화자의 가정이 드러나며, 청자에게 거절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지 않는다(Searle 1975:74-75).

그런데 아래 평서문으로 표현된 (57ㄱ)과 수사의문문인 (57ㄴ)을 비교하면, 그 함축은 '나는 모른다'로 같을지라도 (57ㄱ)에 비해 (57ㄴ)이 청자에게 불쾌감을 주기 훨씬 쉽다는 점은 분명하다.

(57) (물음에 대한 대답 요구를 받고)
ㄱ. 나는 몰라.
ㄴ. 내가 알아?

그도 그럴 것이, 수사의문문은 화자가 자신의 관점이 당연하며 청자 또

한 이에 동의할 것을 전제하고 발화하는 의문문으로서(Haverkate 1997), 일방적이고 단정적인 성격을 지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른 간접화행과는 반대로 청자에게 결정권을 허락하지 않는 태도가 실리어, 결과적으로 오히려 불손함을 더하는 경향을 보인다. Bousfield(2007)에서는 불손(impoliteness)의 여러 실현 방식 중 하나인 '도발하기'(challenges)가 수사의문문을 통해 행해진다고 기술한 바 있다.[10] 수사의문문을 통한 도발은 상대방에 대한 비판을 표현하거나 혹은 특정한 답을 상대방으로부터 유도해 냄으로써 자신에게 불리한 말을 하게 만드는 기능을 가진다(Bousfield 2007:132).

(58) (단속 요원인 S1이 주차 금지 구역에 주차된 S2의 차 바퀴에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S2가 항의하는 상황)

S1: Can you just answer me one question? Can you see the yellow line visibly under your car?

S2: ... I live here. <u>Why is there a yellow line anyway? Why do I have to park my car three hundred yards up the road?</u> It gets stolen, broken into, vandalised three times this year already. <u>Why have you done it?</u>[11]

(Bousfield 2007:133)

(59) (상병인 S1이 신병인 S2의 전투화에 묻은 흙을 발견한 상황)

S1: Turn around. What's that on the bottom of there?

S2: Dried mud, corporal.

S1: <u>Why's it on there</u>.

---

10) Bousfield(2007:132)에서는 도발을 수사적인 도발(rhetorical challenges)과 응답을 요구하는 도발(response-seeking challenges)로 나누었으나 둘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고, 때로는 문맥이나 청자의 응답만으로 둘이 구분된다고 밝히고 있다. 본고에서는 수사의문문에도 응답이 뒤따를 수 있고, 일부는 응답을 요구하기도 한다고 보므로 두 가지 종류의 도발이 모두 수사의문문으로 행해질 수 있다고 것이다.

11) 이처럼 상대방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연속적으로 의문문을 제시하는 것 또한, 수사의문문임을 알 수 있게 하는 단서의 하나이다.

(중략)

S2: No excuse.

S1: No excuse, fucking right. You've no excuse. …

(Bousfield 2007:243)

예문 (58)에서 밑줄 친 부분은 수사의문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주차 금지 구역에 주차를 했다가 자동차 타이어에 잠금장치가 걸리게 된 S2가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동시에 단속 요원인 상대방을 비난하면서 수사의문문을 발화하고 있다. 밑줄 친 부분은 '노란 선이 여기 있을 이유를 자신은 이해하지 못하며, 자신이 300 야드나 떨어진 다른 장소에 주차를 해야 할 이유가 없음, 또 S1의 행동이 납득이 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잠금 장치를 채운 S1에 대한 비난으로 이해된다. (59)의 밑줄 친 부분은 흙이 묻은 신발을 그대로 둔 S2의 행위가 적절하지 못함을 스스로 인정하게 하기 위해 S1이 던지는 질문이다.

수사의문문이 체면 위협을 가할 수 있음은 수사의문문으로부터 탈종속화를 거쳐 탄생한 형식이 존재한다는 사실에서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60) ㄱ. 이 물 쓰든가.

ㄴ. 이 물 써.

(61) ㄱ. 예쁘기는 뭐가 예뻐?

ㄴ. 예쁘기는.

(62) ㄱ. 이것도 숙제라고.

ㄱ′. 이것도 숙제라고 {해 온 거니?/해오다니!}

ㄴ. 자기도 여자라고.

ㄴ′. 자기도 여자라고 {화장을 한 거니?/화장을 하다니!}

(강규영 2017:92)

문숙영(2015)에서는 ‘이 물 쓰든가’와 ‘이 물 써’를 비교하며, 전자는 ‘이 물 쓰든가 해’에서 명령의 효력을 가지는 ‘해’가 생략됨으로써 문장 유형이 모호해지는 효과를 거둔다고 설명한다. 그 결과 명령형인 ‘이 물 써’에 비해 간접성이 증가하고 발화수반력은 약해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3장에서도 언급할 (61ㄴ)의 ‘-기는’은 탈종속화로 후행절이 생략되어 하나의 종결어미처럼 사용되는데, 이때 강조의 기능을 갖는 원래 수사의문문 구성 (61ㄱ)보다 체면 위협 정도가 낮음이 지적되었다(문숙영 2015:26). 마찬가지로 강한 질책으로 느껴지는 (62ㄱ′, ㄴ′)에 비해, 후행 요소가 생략된 (62ㄱ, ㄴ)은 훨씬 온건하다. 이처럼 명령문과 수사의문문에서 후행 요소의 생략이나 탈종속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수사의문문의 발화수반력이 명령의 그것에 버금갈 만큼 강력하며 체면 위협을 수반하므로 그러한 조치를 통해 온건하게 만들 필요가 있었음을 암시한다고 이해할 수 있겠다. 이로부터 간접화행이 늘 공손 전략이 되지는 않으며, 공손성의 정도에 따라 간접화행을 나누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다.

이처럼 수사의문문의 화행이 다른 간접화행과 함께 자주 다뤄지기는 하지만, 나머지와는 다른 의도와 기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은 주지할 가치가 있어 보인다. 전형적인 수사의문문이 강한 발화수반력을 가진다는 사실은, 다음 3장과 4장에 걸쳐서 제시할 수사의문문의 형식적 실현 요소와 의미적 실현 요소로부터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3. 한국어 수사의문문의 형식적 실현 요소

Ilie(1994)에서는 수사의문문의 복잡한 성격과 기능은 형식적·의미적 분석만으로는 포착할 수 없다고 하였다. 수사의문문을 판별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는 맥락적 요소와 사회문화적 요소, 즉 화용적인 요소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주장이다. 이를 뒷받침하듯 Špago(2016)에서 영미 희곡 30편에서 1,205개의 수사의문문을 추출해 분석한 결과 그중 약 85%가 특별한 형식에 기대지 않고 발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부터 수사의문문의 판별 및 해석은 기본적으로 언어 외적 맥락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고 말할 수 있을 듯하다.

그렇다고 해서 형식적·의미적인 요소에 대한 관찰이 완전히 무의미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언어마다 수사의문문에만 사용되는 형식적·의미적 요소가 관찰되어, 수사의문문의 판별에 도움을 주기도 한다. Ilie(1994:21)에서는 그러한 언어로 중국어(Mandarin Chinese), 오토미어(Otomi), 코르쿠어(Korku), 순와르어(Sunwar) 등을 들고 있다. 영어의 경우도 의문문에 사용될 시 수사의문문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은 특정한 어구, 구문이나 의미적 표지가 존재한다. Špago(2016)에서 관찰한 이러한 형식적 표지는 ①극성 어구, ②정보의문문과 양립할 수 없는 어휘적 요소로 의문문 시작하기, ③ 후행하는 우스꽝스러운 대답, ④의문사 why + 동사 원형으로 의문문 구성하기, ⑤평서문이나 명령문과 이어서 의문문 쓰기, ⑥의문문에 대한 화자의 자답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Brown & Levinson(1987: 212)에서도 수사의문문이 관습적으로 사용됨에 따라 수의적인 통사적 표지들을 획득하게 될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한국어 수사의문문에 특정적으로 쓰이는 형식적 요소를 다룬다. 일부 요소는 의문문에 쓰이면 항상 수사의문문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은 일종의 수사의문문 전용 요소이고, 나머지 요소는 대체로 거의 모든 맥락에서 수사의문문으로 해석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관찰되

었다. 다음에서 이들을 어휘 층위, 구문 층위, 숙어 및 속담 층위, 통사적 현상 층위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3.1. 어휘 층위

이 절에서는 의문문이 수사의문문으로 해석되는 데 기여하는 요소들 중에서도 어휘 층위의 목록을 제시하고 각각에 대해 기술한다. 여기서 '어휘 층위'란 조사, 어미, 단어를 포괄하며, 유일한 구(phrase)인 '뭐 하러'의 경우는 그 자체로 굳어진 하나의 구형 단어로 볼 여지가 크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되었다.

표 3 수사의문문을 실현하는 조사, 어미, 단어, 구

항목	예문
(이)나, (이)라도	ㄱ. 그것이 먹잘 것이라도 있습니까? ㄴ. 철수가 꼼짝이나 합니까?
(이)라고	이것도 일이라고 했니?
(이)야	ㄱ. 자꾸 후퇴해서야 되겠는가? ㄴ. 아무 가죽으로 만들어서야 누가 그 신을 신겠는가? ㄷ. 물건만 좋다면야 값이 문젠가.
의문사+은/는	ㄱ. 누구는 돈이 없냐? ㄴ. 언제는 그 사람이 남 도와주었냐? ㄷ. 돈 주면 잠잘 데가 어디는 없겠어? ㄹ. 그럼 뭐는 이 도시에서 돈 안 주고 얻을 수 있니?
-답시고	ㄱ. 너도 좀 배웠답시고 나서는 거냐? ㄴ. 그걸 그림이랍시고 그렸니?
-기로	아무리 그가 좋기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니?
-거든	까마귀도 어미의 은혜를 알거든, 하물며 사람이 부모의 은혜를 모르겠느냐?
-ㄴ들	아무리 쓸고 닦은들 이 너저분한 집이 깨끗해지니?
-(으)ㄹ라고	세상에 저만 한 사람이 또 있을라고.
-(으)ㄹ쏘냐	내가 너에게 질쏘냐?
리	괜찮을 리가 있습니까?

턱	평생 돈 한 푼 안 벌어봤으니 사회를 알 턱이 있어?
어련하다/어련히	ㄱ. 선생님께서 직접 하신 일인데 어련하시겠습니까. ㄴ. 아들놈 그만큼 키웠으면 이제 밥벌이야 어련히 알아서 안 할까.
뭐	ㄱ. 네가 뭐 사장이야? ㄴ. 너는 그런 걸로 뭘 울어? ㄷ. 뭘요.
어디	너는 어디 돼지 갈비를 사왔냐?
무슨(뭔)	ㄱ. 고생은 무슨 고생이에요? ㄴ. 너 무슨 그런 막말을 하니?
여간, 하루 이틀, 어제오늘, 하나, 한둘	ㄱ. 아이들이 피자를 여간 좋아합니까? ㄴ. 그런 일이 하루 이틀이니? ㄷ. 걔가 그러는 게 어제오늘 일이냐? ㄹ. 그 사람이 손 하나 꿈쩍하는 거 봤니? ㅁ. 그런 사람이 한둘이야?
오죽	네 말대로 되면 오죽 좋을까?
대수	그까짓 물병 좀 그냥 둔 게 대수야?
별것(별거)	인생 뭐 별거 있어요?
감히, 설마, 차마	ㄱ. 감히 어떻게 제가 선생님 흉을 볼 수 있습니까? ㄴ. 홍길동이 설마 맨손으로 호랑이를 잡았겠습니까? ㄷ. 차마 혼자 갈 수 있습니까?
하물며	그 아이는 쪽지시험에도 밤을 새우며 공부하는데 하물며 중간고사는 얼마나 열심히 하겠니?
아무려면(아무렴)	아무려면 우리 세훈이가 그런 인간 같지 않은 짓을 했을까?
어쩌면(어쩜)	어쩌면 이렇게 곱냐.
뭐 하러	뭐 하러 거기까지 밥 먹으러 갔냐?

3.1.1. (이)나, (이)라도

‘(이)나’는 첫 번째로 “마음에 차지 않는 선택, 또는 최소한 허용되어야 할 선택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라는 뜻풀이와, 두 번째로 “마치 현실의 것인 양 가정된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라

는 뜻풀이를 가진다. 각각의 예문을 아래 제시한다.

(1) ㄱ. 그것이나 가져라.
ㄴ. 자기가 무슨 대장이나 되는 것처럼 굴더라.

《표준국어대사전》

(1ㄱ)은 '(이)나'가 결합한 '그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 아니며, 가치가 떨어진다는 평가절하의 의미가 드러난다. (1ㄴ)은 '자기'로 지칭되는 대상이 '대장'이 아님에도 마치 '대장'인 것처럼 행동한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이)라도'는 "그것이 썩 좋은 것은 아니나 그런대로 괜찮음을 나타내는 보조사"로,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그것이 최선의 것이 아니라 차선의 것임을 나타낸다"고 설명한다. (2)는 '라면'이 '밥'만큼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차선이 될 수 있음을 드러낸다.

(2) 밥이 없으면 라면이라도 주세요.

'(이)나'와 '(이)라도'는 공통적으로 앞말이 최선이 아님을 뜻한다. 차이가 있다면 '(이)나'가 결합할 때는 앞말이 최종의 선택이면서 최악의 선택임을 뜻하게 되고, '(이)라도'가 결합할 때는 최선의 선택지가 따로 있으며 단지 앞말은 그에 미치지 못함을 뜻한다는 것이다. 이는 아래 예문에서도 알 수 있다.

(3) ㄱ. 자동차를 사자.
ㄴ. 자동차나 사자.
ㄷ. 자동차라도 사자.

(허경행 2009:390)

(3ㄱ)의 '자동차'에 비해 (3ㄴ, ㄷ)처럼 표현했을 때 '자동차'가 덜 선호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3ㄷ)보다도 (3ㄴ)의 '자동차'에 대해 화자

가 비교적 더 낮게 평가함을 알 수 있다.

‘(이)나’와 ‘(이)라도’가 의문문에 사용되면 공통적으로 앞말에 대해 낮은 평가를 내리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난다. 구종남(2003:15)에서는 아래와 같은 예문을 들어 ‘(이)라도’, ‘(이)나’가 양보적 의미를 가진다고 주장하며 그것에 기인해 수사의문문을 구성할 수 있음을 보였다.

(4) ㄱ. 경희가 한 치{라도, 나} 양보를 합니까?
ㄴ. 미자가 머리카락 하나{라도, 나} 상했습니까?
ㄷ. 송씨가 잘못을 눈곱만큼{이라도,이나} 시인합니까?
ㄹ. 철수가 꼼짝{이라도, 이나} 합니까?
ㅁ. 그것이 먹잘 것{이라도, 이나} 있습니까?

(구종남 2003:15)

위 (4ㄱ~ㄹ) 예문들의 공통점은 ‘한 치, 하나, 눈곱만큼, 꼼짝’과 같이 최소 정도를 나타내는 말 뒤에 ‘(이)라도’, ‘(이)나’가 결합했다는 점이다. 이렇게 최소 정도를 표현하는 말과 함께 ‘(이)라도’, ‘(이)나’가 자주 어울리는 것은 사실이나, 반드시 이들 뒤가 아니더라도 수사의문문을 구성할 수 있다.

(5) ㄱ. 뭘 착각하는 거 같은데, 내가 니 애인이라도 되냐? <운명처럼 널 사랑해 2회>
ㄴ. 뭐예요. 당신이 뭐 변호사라도 돼요. <하얀 거짓말 152회>
ㄷ. 그 월급 받아서 옷값이나 되겠니? <여자를 울려 9회>

(5ㄱ~ㄷ)에서 ‘(이)나’, ‘(이)라도’의 앞말은 그 자체로 최소한의 정도를 나타내지는 않으나, 화자가 이들 보조사를 붙임으로써 앞말이 ‘최소한으로 갖춰져야 할 자격이나 정도’의 의미를 갖게 된다. 즉 (5ㄱ, ㄴ)은 상대방의 선행 발화나 행동을 보고 최소한 대상이 ‘애인, 변호사’는 되어야 할 만한 행동이라고 여기면서, ‘애인, 변호사’도 아니면서 그러한 행위를 하

는 대상에 대해 못마땅함을 표현하기 위해 발화된 수사의문문이다. (5ㄷ)은 화자가 생각하기에 하찮은 금액인 '옷값'을 들어, 옷값에도 미치지 못하는 월급이 적다고 비꼬는 수사의문문이다.

3.1.2. (이)라고

보조사 '(이)라고'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첫째 '마음에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대상임을 나타내는 보조사', 둘째 '뒤에 오는 내용의 원인이나 이유라는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라고 설명하고 있다. 각각의 예문은 아래와 같다.

(6) ㄱ. 아들이라고 하나 있는 것이 부모 속을 그렇게 썩이니.
ㄴ. 이것도 일이라고 했니?

(7) ㄱ. 시험관 앞이라고 좀 긴장했나 봐.
ㄴ. 시골이라고 약국도 없는 줄 아니?

《표준국어대사전》

(6ㄴ)과 (7ㄴ)은 '(이)라고'가 의문문에서 실현된 예문을 든 것이다. 이때의 수사의문문은 화자의 태도를 강조하는 효과를 가진다. 먼저 (6ㄴ)은 '(청자가) 한 것은 일이 아니다'는 의미로 청자가 한 일에 대한 못마땅함,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데서 오는 실망감 등이 드러나며, (7ㄴ)은 '시골이라도 약국은 있다'는 의미로, 시골이라서 약국이 없을 것이라는 청자의 생각에 대한 비판이 드러난다. 이처럼 '(이)라고'가 의문문에서 실현되면 해당 의문문은 수사의문문으로 해석되는데, 공통적으로 못마땅해하거나 과소평가하는 해석이 내포됨을 알 수 있다.

한편 '(이)라고'가 후행절을 이끌지 않고 단독으로 문장을 구성하는 사례도 관찰된다.

(8) ㄱ. 이것도 숙제라고.
ㄱ´. 이것도 숙제라고 {해 온 거니?/해오다니!}
ㄴ. 자기도 여자라고.
ㄴ´. 자기도 여자라고 {화장을 한 거니?/화장을 하다니!}
(강규영 2017:92)

강규영(2017)에서는 (8ㄱ, ㄴ)의 '(이)라고' 뒤에 생략된 수사의문문 혹은 감탄문을 (8ㄱ´, ㄴ´)과 같이 복원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같은 논문에서는 후행절 생략 전과 후는 그 의미에 차이가 발생한다고 보고, 후행절을 생략하기 전에 비해 생략한 후가 훨씬 더 온건한 의미를 나타낸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8ㄱ, ㄴ)은 발화수반력이 약해 혼잣말로 하는 탄식 정도로 이해되지만, (8ㄱ´, ㄴ´)은 강한 질책의 의미가 드러난다(강규영 2017:95). 강규영(2017)에서는 이를 문숙영(2015)에서도 언급된 '문말 요소의 생략을 통한 에둘러 말하기 전략'과 연결 지어 볼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3.1.3. (이)야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보조사 '(이)야'의 뜻을 '강조'로 설명하고 있는 반면, 《고려대한국어대사전》에서는 "'물론' 혹은 '당연히'의 뜻을 더하여 강조해 주는 보조사", "관심을 가질 만한 대상이 아님을 나타내는 보조사", "'그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 결합한 절의 내용을 강조하는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로 세분화하여 풀이한다. 아래는 각각에 해당하는 예문이다.

(9) ㄱ. 우리 반에서 영어야 너를 따를 자가 없지.
ㄴ. 그런 사람이 쓰는 술수야 알아서 무엇하겠는가.
ㄷ. 그의 이름이 이제야 생각이 났다.
ㄹ. 이 일은 열심히 해 봐야 별 볼 일 없을 것이다.

《고려대한국어대사전》

홍사만(2002)에서도 '(이)야'의 기능을 '당연의 장면 제시, 격하 가치 표시, 강조적 첨의'로 간추려 설명한 바 있다.

(10) ㄱ. 속셈이야 어찌 알랴만.
ㄴ. 시험일이야 언제든, 준비만 잘하면 된다.
ㄷ. 자꾸 후퇴해서야 되겠는가?

(홍사만 2002:299-309)

이때 '당연함'을 강조하는 '(이)야'와 '관심을 가질 만한 대상이 아님'을 나타내는 '(이)야', '결합한 절의 내용을 강조'하는 '(이)야'는 의문문에 쓰일 때 수사의문문을 구성하는 경향이 있다.

(11) ㄱ. 자네야 자식이 공부를 잘하니 무슨 걱정인가?《표준국어대사전》
ㄴ. 그런 사람이 쓰는 술수야 알아서 무엇하겠는가.《고려대한국어대사전》
ㄷ. 네가 아무리 궁하다고 그런 일까지 하게야 되겠니?《고려대한국어대사전》

(11ㄱ)은 '자식이 공부를 잘하는 자네는 당연히 걱정이 없다'를, (11ㄴ)은 '그런 사람이 쓰는 술수 따위는 알 것 없다'를 의미한다. (11ㄷ)은 '네가 아무리 궁하다고 해도 그런 일까지 하게 되지 않는다'는 의미를 강조한다.

(11ㄷ)에서 볼 수 있듯이 '(이)야'는 연결어미 뒤에도 곧잘 결합하며, 이때도 의문문일 경우 수사의문문을 형성한다. 여기서는 '(이)야'가 결합한 연결어미 중에서도 '-아/어서야'와 '-면야'의 예를 살피고자 한다.《표준국어대사전》에서 제시하는 '-아/어서야'의 의미는 세 가지이다. 첫째

로, “앞 절과 뒤 절이 순차적인 선후 관계에 있음을 힘주어 나타내는 말. 앞 절이 나타내는 때에 이르러 뒤 절의 일이 비로소 일어남을 강조하여 나타냄”, 둘째로 “뒤에 오는 판단이나 의견에 대한 전제를 나타내는 말”, 셋째로 “주로 ‘-어서야 되겠는가’의 구성으로 쓰여,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됨을 힘주어 나타내는 말”이다. 각각의 예를 아래에 든다.

(12) ㄱ. 밤이 깊어서야 채린은 겨우 잠자리에 들었다.
ㄴ. 아무 가죽으로 만들어서야 누가 그 신을 신겠는가?
ㄷ. 이 큰 도시에 환경 단체 하나 없어서야 되겠는가?
《표준국어대사전》

의문문인 (12ㄴ, ㄷ)은 수사의문문으로 해석된다. 즉 (12ㄴ)은 ‘아무 가죽으로 만들면 아무도 그 신을 신지 않는다’로, (12ㄷ)은 ‘이 큰 도시에 환경 단체 하나 없어서는 안 된다’로 해석된다.

다음으로, 신현규(2019)에서는 ‘-(으)면야’가 ‘선행절 사건의 영향으로 인한 후행절 사건의 긍정적인 실현 가능성’을 나타낸다고 본다(신현규 2019:53).

(13) 물론 성공을 허고 온다면야 좋구말구. (신현규 2019:53)

(14) ㄱ. 값은 걱정하지 말게. <u>물건만 좋다면야 값이 문젠가.</u> <영웅시대 13회>
ㄴ. 지훈이를 위해서라면야 지금 이 상황에서 뭘 못 하겠니. <천하일색 박정금 35회>

(13)은 ‘성공을 하고 온다’는 사건이 실현된다면 ‘좋다’는 후행절의 내용이 당연히 성립함을 나타낸다. (14)는 ‘-(으)면야’가 의문문에 쓰인 예인데, (14ㄱ)은 ‘물건이 좋다’는 조건만 충족된다면 ‘당연히 값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를 의미하고, (14ㄴ)은 ‘지훈이를 위해서’라는 조건이 있다면

‘당연히 이 상황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를 의미한다.

3.1.4. 의문사+은/는

설명의문문에 출현하는 일부 의문사에 화제 표지 ‘은/는’이 결합하면 해당 의문문은 수사의문문으로 해석되는 경향을 보인다.

(15) ㄱ. 누구는 돈이 없냐?
ㄴ. 언제는 그 사람이 남 도와주었냐?
ㄷ. 돈 주면 잠잘 데가 어디는 없겠어?
ㄹ. 그럼 뭐는 이 도시에서 돈 안 주고 얻을 수 있니?
(이창덕 1992:144)

(15ㄱ)은 ‘다른 사람도 돈이 있다’로, (15ㄴ)은 ‘그 사람은 항상 남을 도와준 적이 없다’로, (15ㄷ)은 ‘돈 주면 잠잘 데가 어디든 있을 것이다’로, (15ㄹ)은 ‘이 도시에서 돈 안 주고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로 해석되는 수사의문문이다.

이들이 일반적인 의문문으로 해석될 수 없는 이유는 ‘은/는’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인 설명의문문에서 화자는 의문사에 해당하는 정보를 청자에게 요구하므로, 의문사에 대응하는 정보는 정보구조상 관계적 신정보에 해당한다. 따라서 초점 표지인 ‘이/가’만이 자연스럽게 결합할 수 있다. 반면 보조사 ‘은/는’은 한국어의 전형적인 화제 표지로, 관계적 구정보와 결합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의문사와 결합하기 어렵다. 따라서 그러한 화제 표지 ‘은/는’이 의문사에 결합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수사의문문임을 짐작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

여기에서 ‘은/는’의 의미는 ‘대조’로, 언급된 것 외에도 자매항이 존재함을 암시한다. 곧 ‘누구, 언제, 어디, 무엇(뭐)’에 ‘은/는’이 결합함으로써 ‘다른 사람, 다른 때, 다른 곳, 다른 것’에도 마찬가지로 명제 내용이 적용될 수 있다는 의미를 덧붙인다.

3.1.5. -답시고

'-답시고'는 '-다 하-'의 인용문 형식에서 출발해 문법화를 거친 어미 중 하나이다. 기본적으로 '-답시고'는 행위의 목적이나 의도 뒤에 결합하거나(안정호 2018:140), '명사+이다' 뒤에 결합해 자격을 나타낸다(안정호 2018:149).

(16) ㄱ. 불경기에 사업을 한답시고 지난주에 회사를 그만두었잖아.
ㄴ. 한 푼이라도 더 번답시고 밤낮으로 일하다가 병만 얻었다.
ㄷ. 어딘가에서 주워온 자전거 바퀴를 작품이랍시고 전시하고, 원작이 분실되어도 상관하지 않는다.

(안정호 2018:145-149)

(16ㄱ)은 '불경기에 사업을 한다'는 목적 뒤에, (16ㄴ)은 '한 푼이라도 더 번다'는 목적 뒤에 '-ㄴ답시고'가 결합하였다. (16ㄷ)은 '작품+이다' 뒤에 '-답시고'가 결합하여 자격을 나타낸다. '-답시고'에서 독특한 점은 원래의 인용문 형식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사태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인 판단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16ㄱ)의 '불경기에 사업을 하기 위해 지난주에 회사를 그만둔 사태', (16ㄴ)의 '한 푼이라도 더 번답시고 밤낮으로 일하다가 병만 얻은 사태', (16ㄷ)의 '어딘가에서 주워온 자전거 바퀴를 작품이라며 전시하는 사태'에 대해, 그 목적과 행위를 화자가 못마땅하게 여긴다는 의미가 전달된다(안정호 2018:145).

이러한 '-답시고'가 의문문에 사용될 경우에도 화자의 못마땅한 태도를 강조하는 수사의문문으로 해석된다.

(17) ㄱ. 너도 좀 배웠답시고 나서는 거냐?
ㄴ. 그걸 그림이랍시고 그렸니?

《표준국어대사전》

(17ㄱ, ㄴ)은 '배웠다고 나서는 것인지', '그림이라고 그린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 발화된 질문은 아니다. (17ㄱ)은 청자가 '좀 배웠다고 나서는 상황'에 대한 비우호적인 태도를 전달하고 있으며, (17ㄴ)은 '그걸 그림이라고 그린 상황'에 대한 못마땅함을 표현하고 있다.

3.1.6. -기로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기로'는 첫째로 "까닭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둘째로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의 뜻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로 풀이된다.

(18) ㄱ. 행동이 타의 모범이 되기로 이에 표창을 함.
ㄴ. 아무리 그가 좋기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니?

《표준국어대사전》

(18ㄱ)은 첫 번째 뜻에 해당하는 예문이며, (18ㄴ)은 두 번째 뜻에 해당하는 예문으로 '아무리 그가 좋다고 해도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수사의문문으로 해석된다. 곧 '-기로' 앞에 결합한 명제에서 유발되는 기대가 후행절에서 부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비단 '-기로'뿐만 아니라 '-기로'에서 나온 또 다른 연결어미인 '-기로니', '-기로서', '-기로서니'도 마찬가지로 수사의문문에 출현한다.[12)]

(19) ㄱ. 아무리 시골이<u>기로니</u> 약국 하나 없을까?
ㄴ. 점수가 좀 떨어졌<u>기로서</u> 그렇게 야단을 칠 거야 있나?
ㄷ. 아무리 사장이<u>기로서니</u> 아버지뻘인 사람에게 반말을 해도 되는 겁니까?

《표준국어대사전》

12) '-기로니', '-기로서'는 각각 "'-기로'를 강조하여 이르는 말", 그리고 '-기로서니'는 "'-기로서'를 강조하여 이르는 말"로 사전에서 풀이하고 있다.

(19ㄱ)은 '아무리 시골이어도 약국 하나는 있다', (19ㄴ)은 '점수가 좀 떨어졌다고 하지만 그렇게 야단을 칠 것은 없다', (19ㄴ)은 '아무리 사장이라고 해도 아버지뻘인 사람에게 반말을 하면 안 된다'로 이해된다.

3.1.7. -거든

연결어미 '-거든'은 "'어떤 일이 사실이면', '어떤 일이 사실로 실현되면'의 뜻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라는 기본적인 의미를 지닌다. 또한 '-거든'은 "앞 절의 사실과 뒤 절의 사실을 비교하여, 앞 절의 사실이 이러하니 뒤 절의 사실은 더욱 당연히 어떠하다는 뜻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로 풀이되기도 한다. 앞절의 내용을 사실로 간주하고 나서, 이에 견주어 뒷절의 내용을 강조하는 효과를 갖는 것이다(윤평현 1992:36).

(20) ㄱ. 동생이 저토록 영리하거든, 형이야 더 말할 나위가 없다.
ㄴ. 까마귀도 어미의 은혜를 알거든, 하물며 사람이 부모의 은혜를 모르겠느냐?

《표준국어대사전》

즉 (20ㄱ)은 '동생이 저토록 영리하므로, 형 또한 당연히, 말할 나위 없이 영리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20ㄴ)은 '까마귀도 어미의 은혜를 알고, 그러므로 당연히 사람도 부모의 은혜를 안다'로 해석됨이 자연스럽다. (20ㄴ)과 같이 '-거든'이 의문문에 쓰이면 수사의문문으로 해석되는데, 이때 뒤에서 언급할 '하물며'와도 자주 어울린다는 사실도 특징이다(윤평현 1992:36).

3.1.8. -ㄴ들

'-ㄴ들'은 연결어미와 보조사로서의 쓰임을 모두 가지며, 둘 다 '양보'

의 의미를 나타낸다. 먼저 윤평현(1992)에서는 '양보'의 연결어미들은 공통적으로 '가정, 강조'의 의미를 공유한다고 본다. 그러나 '가정'의 기능이 있는 조건의 연결어미와 다르게 양보는 자매항을 함축하고 있다고 보았다. 즉 조건의 연결어미가 사용되면 해당 연결어미가 이끄는 명제만을 가정하는 폐쇄적 가정을 의미하지만, 양보의 연결어미가 사용될 경우는 그 외의 명제에 대한 가정까지도 포함한다.

(21) ㄱ. 비가 오면, 떠나겠다.
ㄴ. 비가 와도, 떠나겠다.

(윤평현 1992:54)

(21ㄱ)은 떠나는 조건으로 '비가 온다' 만을 가정하지만, (21ㄴ)은 비가 오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조건이라 할지라도 떠나겠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양보의 연결어미가 이끄는 선행절은 후행절의 단언을 강조하는 기능을 가진다. (21ㄴ)과 같은 양보 접속문은 '비가 오면 떠나지 않겠다'와 같은 예상을 전제로 발화되는 것으로, 후행절 내용의 실현을 저해하는 내용이 선행절로 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행절 내용을 실현하겠다는 의도를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윤평현 1992:55-56).

양보의 연결어미가 가지는 다른 특징은 극성 표현과 결합하기도 하지만 그 자체로도 극성의 의미를 더한다는 점이다.

(22) 아인슈타인이 풀어도, 이 문제는 풀 수 없다.
(23) ㄱ. 내가 풀어도, 이 문제는 풀 수 없다.
ㄴ. 내가 풀어도, 이 문제는 풀 수 있다.

(윤평현 1992:56-57)

(22)의 선행절에는 '아인슈타인은 어느 문제든 풀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전제가 포함되어 있다. '아인슈타인이 (이 문제를) 푼다'는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하는 데 양보의 연결어미가 사용되었다. 한편 (23)에서는 양보의

연결어미에 의해 '나'에게 극성이 부여되고 있는데, 후행절 내용에 따라 (23ㄱ)에서 '나'는 어지간한 문제들을 충분히 풀어낼 수 있다고 생각되는 능력자로, (23ㄴ)에서는 어지간한 문제도 풀 줄 모르는 무능력자로 이해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기대되는 결과가 후행하는 명제 내용과 대치됨에따라, 후행하는 명제 내용이 더욱 강조됨을 알 수가 있다.

이러한 양보 접속어미에 속하는 '-ㄴ들'을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어떤 조건을 양보하여 인정한다고 하여도 그 결과로서 기대되는 내용이 부정됨을 나타낸다"고 설명한다.

(24) 그렇게 악착같이 내 욕심 차려서 결혼한들 행복할 리두 없구.
<압구정 백야 120회>

예문 (24)에서는 '악착같이 내 욕심을 차려서 결혼한다'는 선행절의 조건을 인정한다면 자연히 행복할 것으로 기대되나, '행복할 리가 없다'는 후행절이 이어져 그러한 기대가 부정된다. 이처럼 '-ㄴ들'은 후행절에서 선행절의 기대가 부정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의문문에 사용될 경우 글자 그대로 후행절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묻는 질문으로는 해석될 수 없게 된다.

(25) ㄱ. 아무리 쓸고 닦은들 이 너저분한 집이 깨끗해지니? <글로리아 44회>
ㄴ. 지금 와서 그걸 따진들 뭐가 달라지냐구요! <빛나는 로맨스 108회>

(25ㄱ)은 '아무리 쓸고 닦아도 이 너저분한 집은 깨끗해지지 않는다'로, (25ㄴ)은 '지금 와서 그걸 따져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로 해석되는 수사의문문임을 알 수 있다.

한편 '-ㄴ들'은 같은 형태의 보조사가 존재한다. 성미향(2020ㄱ)에서는

이 보조사 ‘ㄴ들’의 의미를 ‘양보, 강조’로 분석하고 있다.

(26) ㄱ. 평안 감사도 저 싫다면 시킬 수 없고, 사서 욕을 보겠다는 걸 나랏님인들 어찌할 건가.
ㄴ. 온상 재배는 도시 상댄데 그 깊은 산골에서 대구까진들 어떻게 실어내?

(성미향 2020ㄱ:220-222)

(26ㄱ)은 ‘양보’의 의미로 ‘ㄴ들’이 쓰인 예로, 같은 형태의 연결어미와 그 의미가 유사하다. 즉 여기서의 ‘ㄴ들’은 자매항의 존재를 함축하며, 그 가운데서 극단적인 항에 결합하여 “그 밖의 다른 경우는 더 말할 필요도 없이 그러하다”를 뜻하게 된다(성미향 2020ㄱ:220). (26ㄱ)은 ‘나랏님’이라는 가장 높은 권위자과 결합해, ‘다른 이들은 말할 것도 없고 나랏님이라도 어찌할 수가 없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그런데 (26ㄴ)의 ‘ㄴ들’은 (26ㄱ)의 ‘ㄴ들’과 달리 자매항을 함축하지 않고, 극단적인 경우와도 관계가 없어 보인다. 이런 ‘ㄴ들’은 강조의 ‘ㄴ들’로, 선행 부사어에 결합해 “양태성, 또는 서술어를 강조하는 기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성미향 2020ㄱ:223). 이러한 보조사 ‘ㄴ들’ 또한 평서문에서 부정 표현과 어울리는 것이 일반적인데(성미향 2020ㄱ:232), 수사의문문에서 사용될 시에는 긍정 표현과 어울리면서 반대 극성의 함축을 갖게 된다.

3.1.9. -(으)ㄹ라고

《고려대한국어대사전》에서는 ‘-(으)ㄹ라고’의 의미를 두 가지로 제시하는데, 첫째로 “어떤 사실을 의심하면서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의미로 상대방에게 되묻는 뜻을 나타내는 말”, 둘째로 “어떠한 사실이나 상황을 감탄조로 인정하는 뜻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풀이된다.

(27) ㄱ. 설마 너 혼자 이 밥을 다 먹을라고?

ㄴ. 얼굴 참하지, 성품도 곧지, 세상에 저만 한 사람이 또 있을라고.

《고려대한국어대사전》

(27ㄱ)의 화자는 '너 혼자 이 밥을 다 먹는다'는 명제 내용에 대해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7ㄴ)은 '세상에 저만 한 사람이 또 없다'는 의미로, 강한 진술 혹은 감탄으로 이해할 수 있는 문장이다. '-(으)ㄹ라고'는 (27ㄱ)처럼 가능성이 낮음을 드러내는 '설마'와도 자주 어울리는데, (27ㄴ)에서 볼 수 있듯이 그렇다고 '설마'가 반드시 있어야지만 수사의문문으로 해석되는 것은 아니다.

3.1.10. -(으)ㄹ쏘냐

'-(으)ㄹ쏘냐'는 "'어찌 그럴 리가 있겠느냐'의 뜻으로 강한 부정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로,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주로 의문문 형식을 취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28) ㄱ. 내가 너에게 질쏘냐?
ㄴ. 해오라기 겉이 희다고 속까지 흴쏘냐?
ㄷ. 나라고 대장부가 아닐쏘냐?

《표준국어대사전》

사전 뜻풀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으)ㄹ쏘냐'는 의문문에만 주로 쓰이면서 항상 수사의문문을 형성하며, 이때 극성이 전환된 해석을 가진다. (28ㄱ)은 '나는 너에게 지지 않는다'를, (28ㄴ)은 '해오라기 겉이 희다고 속까지 희지 않다'를, (28ㄷ)은 '나도 대장부이다'를 의미한다.

3.1.11. 리

의존명사 '리'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까닭', '이치'의 뜻을 나타내는 말"로 풀이된다.

(29) ㄱ. 그럴 리가 없다.
ㄴ. 민기의 성격으로 그 비밀을 그의 처에게 고백하지 않았을 리 또한 없을 터였다.
ㄷ.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이 없고 문은 잠겨져 있었으므로 나갔을 리 만무다.

《표준국어대사전》

위 예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리'에는 '어간+(으)ㄹ'이 선행하며, 평서문에 사용될 때는 뒤에 항상 부정적인 내용이 따른다. 예를 들어 (29ㄱ)과 (29ㄴ)에서는 '없다'가 후행했으며, (29ㄷ)에서는 '만무'를 통해 '나갔을 까닭'이 없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리'가 의문문에 사용될 경우에는 수사의문문을 형성한다.

(30) ㄱ. 주란: 이 동네서 안 살면, 세탁물 못 맡기나요?
이문: <u>그럴 리가 있나요</u>?

<전설의 마녀 12회>

ㄴ. 기술자: 괜찮습니까?
강필: <u>괜찮을 리가 있습니까</u>?

<흔들리지 마 13회>

(30ㄱ)의 '이문'의 발화는 '세탁물을 못 맡길 리가 없다'를, (30ㄴ)의 '강필'의 발화는 '괜찮을 리가 없다'를 의미한다. 이처럼 의문문에서 '리'는 주로 '있다'와 어울리는데, 평서문에서 반드시 부정적인 내용이 후행하는 성격 때문에 의문문에 쓰일 경우 수사의문문으로 해석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3.1.12 턱

의존명사 '턱'은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첫째 "(흔히 어미 '-을' 뒤에서 '없다'와 함께 쓰이거나, '있다'와 함께 반어형으로 쓰여) 마땅히 그리하여야 할 까닭이나 이치", 둘째 "그만한 정도나 처지"로 풀이된다. 아래는 각각에 해당하는 예문을 든 것이다.

(31) ㄱ. 그가 나를 속일 턱이 없다.
ㄴ. 별로 달라진 것이 없이 늘 그 턱이지요.
《표준국어대사전》

이때 첫 번째 '턱'은 평서문에서 주로 '없다'와 함께 어울리는데, 의문문에 쓰일 경우는 극성이 전환되어 '있다'와 어울리게 된다.

(32) ㄱ. 그러면 그렇지! 당신이 하는 얘기, 거기서 거기지. <u>더 발전할 턱이 있나!</u> <밥 줘 87회>
ㄴ. <u>평생 돈 한 푼 안 벌어봤으니 사회를 알 턱이 있어!</u> 그야말로 전쟁터야! <살 맛 납니다 3회>

(32ㄱ)의 밑줄 친 문장은 '더 발전할 턱이 없다'로, (32ㄴ)의 밑줄 친 문장은 '평생 돈 한 푼 안 벌어봤으니 사회를 알 턱이 없다'로 해석된다.

3.1.13. 어련하다, 어련히

'어련하다'의 사전적 의미는 "따로 걱정하지 아니하여도 잘될 것이 명백하거나 뚜렷하다"(《표준국어대사전》)로 제시할 수 있다. 또《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어련하다'가 "대상을 긍정적으로 칭찬하는 뜻으로 쓰

나, 때로 반어적으로 쓰여 비아냥거리는 뜻을 나타내기도 한다"고도 설명한다.

(33) ㄱ. 선생님께서 직접 하신 일인데 어련하시겠습니까.
ㄴ. 네까짓 녀석이 한 일인데 어련하려고.

(34) 아들놈 그만큼 키웠으면 이제 밥벌이야 어련히 알아서 안 할까.
《표준국어대사전》

(33ㄱ)은 '선생님께서 직접 하신 일이므로 명백히 잘 될 것이다'는 의미로 해석되지만, (33ㄴ)은 '네까짓 녀석이 한 일이니 당연히 잘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반어적인 해석이 되어야 자연스럽다. '어련한지, 아닌지'를 묻기 위해 발화된 의문문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어련하다'가 사용된 의문문은 항상 수사의문문으로 실현됨을 알 수 있다. 한편 부사형인 '어련히'도 의문문에 사용되면 수사의문문을 낳는다. (34)는 '아들놈을 그만큼 키웠으니 이제 밥벌이를 당연히 알아서 할 것이다'로 해석된다.

3.1.14. 뭐

의문사 '무엇'은 구어에서 '뭐'로 자주 실현되며, 목적격 조사가 결합한 '무엇을'은 '뭘'로 자주 실현된다. '뭐, 뭘'은 일반적인 의문사로서의 기능 외에 독특한 기능을 보일 때가 있다. 먼저 눈에 띄는 점은 이들이 논항으로 요구되지 않을 때도 문장에 출현한다는 것이다.

(35) ㄱ. 네가 뭐 사장이야? /*네가 무엇 사장이야?
ㄴ. 너는 그런 걸로 뭘 울어? /*무엇을 울어?/왜 울어?

(35ㄱ)은 서술어의 '사장+이다'가 주어 외의 논항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무엇'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사용되었다. (35ㄱ)의

‘뭐’를 ‘무엇’으로 바꾸면 예문의 부자연스러운 구조가 확실히 드러난다. (35ㄴ) 또한 자동사 ‘울다’가 목적어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원래는 ‘무엇+을’이 들어갈 수 없다. 이때 ‘뭘’은 ‘왜’로 대치하면 의미가 같다.

다음으로 일부 ‘뭐’는 문장 안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이동하는 경우가 있으며, 삭제되더라도 의미는 변하지 않는다는 점은 아래 예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36) ㄱ. 네가 뭐 사장이야?
ㄱ′. 뭐 네가 사장이야?
ㄴ. 너는 그런 걸로 뭘 울어?
ㄴ′. 뭘 너는 그런 걸로 울어?
ㄴ′′. 너는 뭘 그런 걸로 울어?

(37) ㄱ. 네가 사장이야?
ㄴ. 너는 그런 걸로 울어?

(36)에서 보듯이 ‘뭐’는 문장 내 다양한 위치에 올 수 있으며, (38)에서 보듯이 ‘뭐’를 삭제해도 여전히 문장은 수사의문문으로 해석되는 데 무리가 없다. 그러나 (37)은 맥락에 따라 일반의문문으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는 반면, ‘뭐’가 삽입된 (35)는 수사의문문의 해석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뭐’가 수사의문문으로 해석되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13]

13) ‘뭐’가 삽입되지 않은 문장은 일반의문문과 수사의문문 모두의 해석이 가능하며, 중의성은 대화 맥락을 통해 해소될 수 있다. 그런데 ‘뭐’가 삽입되면 수사의문문으로만 해석되며 대개 극성이 전환된 해석을 갖는다는 점에서, 수의적이며 명제 의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담화표지의 특징과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담화표지가 화용적인 면에서까지 수의적이거나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담화표지는 의미를 더하거나 문법에 영향을 주지는 못해도 구조적 관계를 드러내 주는 등의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Brinton 1996:34). ‘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다기보다 ‘뭐’가 개입하기 전부터 가능했던 복수의 해석 중 하나를 명시하는 역할에 가깝다고 생각된다. 또한 담화표지가 생략되면 문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지라도 부자연스럽거나, 어색하거나, 불손한 담화가 될 수 있다(Brinton 1996:35-36). ‘뭐’가 개입한 의문문이 반대 극성으로 해석되는 것은 ‘뭐’를 통해 명제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표출된 결과로 볼 여지도 있다. 구종남(2015)에서는 ‘이해 불가한 상황에 대한 의문 태도 표출’, ‘불쾌감 표출’, ‘주어의 행위에 대한 비판적 태도 표출’을 ‘반어적 해석’과 구별

김영희(2005), 이효진(2005), 구종남(2015) 등 선행 연구에서는 이러한 '뭐'를 담화표지로 간주한다. 먼저 '뭐'는 어휘적인 의미를 나타내지 않아 명제 의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또 문장 안에서 출현하는 위치가 자유롭고, 다른 성분과 문법적인 관계를 맺지 않으며, 화자의 심리적 태도를 나타내는 기능을 가지기도 한다(구종남 2015:47). 구종남(2015)에서 제시한 '뭐'의 여러 기능 중에서도, 본고의 논의와 관련된 기능으로 '이해 불가한 상황에 대한 의문 태도 표출', '불쾌감 표출', '반어적 해석 기능', '주어의 행위에 대한 비판적 태도 표출'을 들 수 있을 것이다.

(38) ㄱ. 뭐 그 문제가 중요해요?
ㄴ. A: 너 서울로 대학 갈 거냐?
B: 나는 뭐 서울로 대학 못 가요?
ㄷ. 너는 뭐 안 떠들었냐?
ㄹ. 너는 뭐 만화책을 보냐?

(구종남 2015:54-63)

(39) A: 정말 고생 많았어요.
B: 뭘요.

(38ㄱ)은 '그 문제가 중요하다'는 명제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 화자가 의문을 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38ㄴ)은 'B는 서울로 대학을 갈 것이다'에 의문을 가지는 상대방에 대해 불쾌감을 표출하는 것으로 읽힌다. (38ㄷ)은 극성이 전환되어 '너도 떠들었다'로 해석되며, (38ㄹ)은 만화책을 보는 상대방의 행동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비판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39)와 같이 상대방의 칭찬이나 치하 등에 대답하는 '뭘'은 '부정 및 겸손'의 기능을 가져, 겸손하게 앞말을 부정하는 수사의문문을 구

하기는 했지만, 각각에 해당되는 예들은 선행 발화나 상황에 대한 비동의로도, 반어적으로도 충분히 해석될 수 있다. 이로 보아, 화자가 명제에 대해 가지는 부정적 태도와 명제 자체의 반어적 해석은 매우 가까운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담화표지 '뭐'는 명제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드러낼지언정 명제 의미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기존 담화표지의 특징에 부합한다.

성할 수 있음도 눈에 띈다(이효진 2005). 이렇게 '뭐'가 의문문에 출현할 경우 그 기능을 세분화할 수 있겠지만, 공통적으로는 청자의 선행 발화나 행위에 대해 화자가 동의하지 못하는 태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의문문에서 '뭐'가 더하는 의미는 앞서 살펴본 수사의문문의 기본적인 의미인 '기존에 화자가 가진 기대와 대립됨을 표현'하는 것으로 귀결시킬 수 있을 듯하다.

3.1.15. 어디

앞서 살펴본 '뭐'와 유사하게 '어디' 또한 담화표지로서의 사용이 관찰된다. 이 또한 어휘적 의미를 나타내지 않고, 문장 내에서 다양한 위치에 분포할 수 있고, 수의적이며, 다른 성분과 문법적인 관계를 맺지 않는다는 점 등에서 담화표지로 볼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구종남(2015)에 따르면 담화표지 '어디'는 맥락에 따라 '지각적 경험 욕구 표시', '확인 욕구 표시', '주의 집중', '결과에 대한 화자의 궁금함 표시', '요청에 대한 허락', '판단을 위한 시간 벌기', '막연한 심리적 태도 표출' 등 다양한 화용적 기능을 가질 수 있다. 담화표지 '어디'의 기능 중에서도 특히 '부정 표시', '불쾌감/이해 불가의 태도 표시', '반어적 해석'은 담화표지 '뭐'에서도 관찰되는 쓰임인데, 역시 수사의문문과 관련이 깊다.

(40) ㄱ. A: 철수 왔대.
B: 철수가 어디(가) 와.
ㄴ. A: 네 것이 내 것보다 더 큰 것 같다.
B: 어디(가).
ㄷ. 너는 돼지 갈비를 사왔냐?
ㄷ´. 너는 어디 돼지 갈비를 사왔냐?
ㄹ. 희영이가 제 말을 듣겠어요?
ㄹ´. 희영이가 어디 제 말을 듣겠어요?

(구종남 2015:86-92)[14]

(40ㄱ)은 '어디'가 상대의 진술 혹은 질문에 대해 '부정 표시'의 기능을 수행하는 예이다. 한편 (40ㄴ)과 같이 '어디'가 단독으로 사용될 수도 있는데, 이때 상대의 선행 발화를 부정한다. '네 것이 내 것보다 큰 것 같다'는 A의 말에 B는 '어디'라고 묻는데, 문장을 복원하면 '내 것이 네 것보다 어디가 더 크냐?' 정도가 될 것이다. 이때 수사의문문은 A의 선행 발화를 부정하여 '네 것이 내 것보다 크지 않다'는 뜻을 전달한다.

(40ㄷ´)은 '어디'가 '불쾌감/이해 불가의 태도 표시'의 기능을 수행하는 예이다. (40ㄷ)은 맥락에 따라 일반적인 의문문과 수사의문문 모두로 해석될 수 있으나, (40ㄷ´)처럼 '어디'가 삽입된 경우 수사의문문으로만 해석될 수가 있다. 이때 돼지 갈비를 사온 상대방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여 비난하는 태도를 읽을 수 있다.

예문 (40ㄹ´)은 '반어적 해석 기능'의 예이다. (40ㄹ)는 맥락에 따라 일반적인 의문문과 수사의문문 모두로 해석되나, (40ㄹ´)는 수사의문문으로만 해석된다. 즉 '희영이는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로, 표면적인 극성이 전환된 해석을 갖게 된다. 수사의문문을 구성하는 담화표지 '뭐'가 그렇듯이, '어디'의 세분화된 기능 또한 선행 발화나 상황이 화자가 가진 기대와 대립됨을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듯하다.

3.1.16. 무슨(뭔)

'무슨'은 후행하는 대상의 종류를 묻는 의문사로, 구어에서는 '뭔'으로도 자주 실현되며 '무슨'에 대한 대답은 후행하는 명사의 하의어로 주어진다(서정목 1987:296). '무슨'에 후행할 수 있는 명사구에는 여러 제약이 존재한다. 먼저 의문사 '무슨'에는 특정적인 명사구가 후행할 수 없다. '무슨'은 그것이 묻는 대상이 화자에게, 또는 청자에게까지 알려져 있지

14) 두 문장이 '어디'의 유무에서만 차이가 나도록 원문의 예문을 약간 수정했음을 밝힌다.

않은 경우에 쓰일 수 있는데(임홍빈 1998:221) '무슨' 뒤에 특정적인 대상이 온다면, 이는 화자가 이미 알고 있는 대상일 것이므로 '무슨'과 함께 어울리기 어려운 것이다.

(41) ㄱ. 철수가 무슨 새 책을 샀느냐?
ㄴ. ?*철수가 [무슨 [영희가 보낸 책]]을 읽었느냐?
ㄷ. ?영희가 [무슨 [맛있는 것]]을 먹느냐?
ㄹ. ??영희가 [무슨 [맛있는 과자]]를 먹느냐?
(임홍빈 1998:201)

특별한 맥락적인 정보가 주어지지 않을 때 (41ㄴ~ㄹ)은 어색한 느낌을 준다. (41ㄴ)의 '영희가 보낸 책'은 화자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대상으로 생각되므로 '무슨'과 어울리기 어렵다. (41ㄷ)의 '맛있는 것'이 (41ㄹ)의 '맛있는 과자' 보다 자연스러운 것은 '것' 대신 '과자'라고 하는 데서 화자가 대상을 알고 있다는 암시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무슨'의 또 다른 제약으로 서정목(1987) 등에서는 일반적으로 인성 명사가 후행할 수 없다는 점을 들었다.

(42) ㄱ. {*무슨, 어느, 어떤} 사람을 만났니?[15] (서정목 1987:295)

(43) ㄱ. ??무슨 친구가 너에게 말을 걸었느냐?
ㄴ. ??무슨 동생이 전기 시설을 하느냐?
ㄷ. ??무슨 형이 집안 살림을 하느냐?
ㄹ. ??네가 존경하는 사람은 무슨 사람이냐?
(임홍빈 1998:214)

(42)는 '사람' 앞에 그 사람의 종류 혹은 성격을 묻기 위하여 '어느, 어떤'은 결합할 수 있지만 '무슨'은 결합하기 어려움을 보인다. 사람을 가리키

15) 원문에서 '{므슨, 어느, 우떤} 사람을 만냇노?'와 같이 경남 방언으로 작성된 것을 표준어로 옮겼다.

는 명사 일반이 ‘무슨’ 뒤에 오기 어려움은 (43ㄱ~ㄹ)에 나타나 있다.

그런데 이상의 제약을 무시하는 경우가 관찰되는데, 이때는 ‘무슨’에 대한 응답을 요구하는 일반의문문이 아닌 수사의문문으로 해석된다.

(43) ㄱ. 애한테 무슨 그런 소리를 하냐?
ㄴ. 너는 낮잠을 무슨 두 시간 동안 자냐?
ㄷ. 이게 무슨 만 원이나 해요?

(44) ㄱ. 무슨 사람이 그래?
ㄴ. 무슨 학생이 그 모양이냐?

(임홍빈 1998:206)

(43ㄱ)은 ‘애한테 그런 소리는 하는 것이 아니다’, (43ㄴ)은 ‘낮잠은 두 시간씩이나 자는 게 아니다’, (43ㄷ)은 ‘이것은 만 원의 가치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런 소리’는 특정적인 해석을 가지며 하의어도 존재하지 않고, ‘두 시간’과 ‘만 원’도 하의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무슨’ 뒤에 올 수 없다. (44ㄱ)은 ‘사람이 그래서는 안 된다’를, (44ㄴ)은 ‘학생이 그 모양이어서는 안 된다’를 의미하는 수사의문문이며 ‘사람, 학생’ 등 사람을 가리키는 명사가 후행하였다. 위 예문들은 ‘무슨’ 뒤 명사구의 종류나 성격을 묻는 것이 아니다.

위 (43~44)의 ‘무슨’은 김선영(2016)에 의하면 ‘발화 내용 관련 기능’을 갖는다. 즉 화자의 태도나 의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사용된 ‘무슨’으로, ‘반박, 평가절하’ 등의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낸다(김선영 2016:94). 본고에서는 이러한 ‘무슨’을 담화표지로 볼 수 있다고 본다. 그 근거로 (45)에서와 같이 ‘무슨’은 문장 내에서 다양한 위치로 옮겨갈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의미 변화가 없다. 이는 ‘무슨’이 다른 성분과 문법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있음을 뜻한다.

(45) ㄱ. 애한테 무슨 그런 소리를 하냐?

ㄱ′. 무슨 애한테 그런 소리를 하냐?
ㄴ. 너는 낮잠을 무슨 두 시간 동안 자냐?
ㄴ′. 무슨 너는 낮잠을 두 시간 동안 자냐?
ㄴ′′. 너는 무슨 낮잠을 두 시간 동안 자냐?
ㄷ. 이게 무슨 만 원이나 해요?
ㄷ′. 무슨 이게 만 원이나 해요?

또한 '무슨'이 삽입된 (43)이 수사의문문으로만 해석되는 반면 (46)은 맥락에 따라 일반의문문으로도, 수사의문문으로도 해석될 가능성을 지닌다.

(46) ㄱ. 애한테 그런 소리를 하냐?
ㄴ. 너는 낮잠을 두 시간 동안 자냐?
ㄷ. 이게 만 원이나 해요?

서희정·홍윤기(2011)에서는 '무슨'을 포함하는 수사의문문을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먼저 제1유형은 청자 중심 '무슨'-수사의문문으로, 청자의 생각이 질문의 대상이 되며 이것이 화자의 기대와 다름을 나타낸다. 제2유형은 화자 중심 '무슨'-수사의문문으로 청자나 화자 자신의 말과 행위, 주변 상황에 대한 화자의 생각을 표현하며 이것이 화자 자신의 기대와 다름을 나타낸다. 제1유형과 제2유형의 차이는 제1유형의 경우 '표면적으로 제시된 말과 문장 의미에 차이가 있지만, 제2유형은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달리 설명하면 제1유형에서는 표면적인 명제의 극성과 함축된 의미의 극성이 서로 반대임을 뜻하며, 제2유형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먼저 제1유형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47) ㄱ. A: 두 사람 고생했어요, 어제 다녀와서 좀 쉬었어요?
B: 고생은 무슨 고생이에요?
ㄴ. A: 웃자고 한 소리가 누군가의 이미지엔 먹칠을 할 수도 있

으니까 그렇지!

B: 그깟 농담이 무슨 이미지에 먹칠까지 해요?

ㄷ. A: 우리 진실게임 한번 해.

B: 뭐? 진실게임은 무슨? 그거 하자고 나 불러낸 거야?

(서희정·홍윤기 2011:232-234)

(47ㄱ~ㄷ)에서 B가 발화하는 '무슨' 의문문은 각각 '전혀 고생하지 않았다', '그깟 농담은 이미지에 먹칠까지 하지 않는다', '진실게임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즉 상대방의 선행 발화를 부정하거나 거절하는 기능을 가진다. (47ㄷ)과 같이 의문사로 의문문을 맺는 것이 가능한 것은 가령 '진실게임은 무슨 진실게임을 해?'와 같이 문장 일부분이 되풀이된 의문문에서 뒷부분이 생략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서는 3절의 '되풀이 현상'에서 더욱 자세히 기술할 것이다.

다음은 제2유형에 해당하는 예문들이다.

(48) ㄱ. A: 너 솜씨 좋다.

B: 나? 나 아냐. 아줌마가…….

A: 우리 엄마 이런 거 안 해. 평생 안 했어. <u>쓸데없이 무슨 거짓말이야?</u>

ㄴ. 너 무슨 그런 막말을 하니?

ㄷ. 무슨 자폐에 피아노 잘 치는 애가 이렇게 많아?

ㄹ. 아직도 안 끝났어? <u>무슨 공부를 이렇게 오래 해?</u>

ㅁ. <u>뭔 놈의 학이 한 마리 접는 데 30분이 걸려?</u> 참, 젠장.

(서희정·홍윤기 2011:236-238)

(48ㄱ)에서 A의 두 번째 발화에 포함된 수사의문문은 '쓸데없이 거짓말을 하지 마라'는 금지, 명령으로 해석된다. (48ㄴ)은 '그런 막말을 하면 안 된다'는 금지 및 명령으로 해석되는데, 지시사 '그런'이 '무슨' 뒤에 삽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무슨'이 일반적인 의문사로 쓰인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48ㄷ)과 (48ㄹ), (48ㅁ)은 각각 '자폐에 피아노 잘 치는 애가 이렇게 많을 줄 몰랐음', '공부를 이렇게 오래 할 줄 몰랐음', '학 한 마리를 접는 데 30분이 걸릴 줄 몰랐음'으로 해석되어, 사태가 화자의 예상과 어긋남을 뜻하게 된다. 이때 예상에서 벗어나는 사태에 대한 감탄, 의아함, 한탄, 불평 등이 함께 드러난다.

이상에서 살펴본 결과, '무슨'이 포함된 수사의문문은 결국 "어떤 사건이나 사실에 대한 청자 또는 화자의 생각이 화자의 기대와 다름"을 그 기본 의미로 설정할 수 있다(서희정·홍윤기 2011:238). 제1유형은 극성의 전환을 수반하는 수사의문문으로 화자의 기대와 다른 상대방의 말을 부정하는 기능을 가진다. 제2유형은 상대방의 말을 부정하기보다는 화자의 기대와 다른 어떤 사건이나 사실에 대한 감탄, 의아, 한탄, 불평 등을 나타내는 기능을 한다.

3.1.17. 좀, 여간, 하루 이틀, 어제오늘, 하나, 한둘

이 절에서는 공통적으로 '낮거나 적은 정도'를 의미하는 '좀, 여간, 하루 이틀, 어제오늘, 하나, 한둘'이 의문문에 사용되어 수사의문문의 해석을 유발하는 양상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좀'은 기본적으로 '조금', '아주 최근, 짧은 시간'등을 의미한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그 외에 "'어지간히'의 뜻을 나타내는 말", "(주로 수사 의문문에 쓰여) '얼마나'의 뜻을 나타내는 말"로 뜻을 풀이하고 있다. 아래 (49ㄱ)과 (49ㄴ)이 이에 해당하는 예문을 보여 주는데, (49ㄴ) 같은 경우 '좀' 대신 '얼마나'로 대체해도 의미는 같아진다. '좀'은 (49ㄱ)과 같이 '조금'을 의미할 때를 제외하고, (49ㄴ)처럼 '어지간히, 얼마나'의 의미로 쓰였을 때 수사의문문을 형성하게 된다.

(49) ㄱ. 날씨가 좀 추워야 기동을 하지.
ㄴ. 둘이 그렇게 사이좋게 지내니 좀 좋으냐?

《표준국어대사전》

ㄴ´. 둘이 그렇게 사이좋게 지내니 얼마나 좋으냐?

다음으로 '여간'은 "그 상태가 보통으로 보아 넘길 만한 것임을 나타내는 말"(《표준국어대사전》)을 가리키며, 평서문에 쓰일 때는 부정문에 주로 쓰이고 의문문에 쓰일 때는 수사의문문을 만든다.

(50) ㄱ. 아이들이 피자를 여간 좋아하지 않는다.
ㄴ. 아이들이 피자를 여간 좋아합니까? (구종남 2003:7)

'하루 이틀', '어제오늘' 또한 유사한 의미를 지니면서 수사의문문에 자주 사용된다. 먼저 이들이 평서문에서 쓰이는 용례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51) ㄱ. 내가 이 일을 하루 이틀 한 게 아니다.
ㄴ. 그런 적이 하루 이틀이 아니다.
ㄷ. 걔가 그러는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위 예문에서 볼 수 있듯이, '하루 이틀', '어제오늘'은 항상 부정적인 맥락에서만 사용된다. 하지만 이들이 의문문에 사용될 경우, 긍정적인 맥락과 어울리며 수사의문문적 해석이 유발된다.

(52) ㄱ. 내가 이 일을 하루 이틀 했니?
ㄴ. 그런 적이 하루 이틀이니?
ㄷ. 걔가 그러는 게 어제오늘 일이냐?
ㄹ. ?그런 일이 어제오늘이니?

위 수사의문문은 극성이 전환되어 '짧은 시간 동안의 일이 아니라 오래되었다'라는 의미의 단언으로 해석되는 예들이다. 다만 '하루 이틀'은 부사로도 사용될 수 있으면서 서술격 조사 '이다'와도 자주 어울리는 반면,

‘어제오늘’은 의문문에서 주로 부사로 사용되고 ‘이다’와 잘 어울리지 않는 듯하다.

‘한둘’은 명사 및 수사로 사용될 수 있다. 명사로서의 ‘한둘’은 부정어와 호응할 때 “‘조금’의 뜻을 나타내는 말”(《표준국어대사전》)로 풀이되며, 수사로서의 ‘한둘’은 “하나나 둘쯤 되는 수”를 뜻한다. 아래에 평서문의 예를 보인다.

(53) ㄱ.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ㄴ.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다.
ㄷ. 네가 지각한 게 한두 번이 아니다.
ㄹ. 내가 그 사람을 안 게 한두 해가 아니다.

‘한둘’은 그 자체로 명사로서 조사와 결합할 수도 있으며, 일반적으로 ‘아니다’가 후행한다. 또한 수사로서는 ‘명, 번, 해’ 등과 같은 의존명사와 함께 자주 쓰인다. 이러한 분포적 특징은 수사의문문에서도 유지된다.

(54) ㄱ. 그런 사람이 한둘이니?
ㄴ.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니?
ㄷ. 네가 지각한 게 한두 번이야?
ㄹ. 내가 그 사람을 한두 해 알았니?

‘한둘’도 ‘하루 이틀’, ‘어제오늘’과 마찬가지로 부정적 맥락과 공기하는 특성으로 인해 의문문에 사용되면 극성이 반대로 해석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 표현은 공통적으로 ‘매우 적은 양’을 의미하지만, 수사의문문에 사용될 경우 반대 방향의 극단적 해석을 얻어 ‘매우 많은 양’을 의미하게 된다.

한편 ‘하나’는 여러 가지 뜻을 지녔지만 “주로 ‘하나도’의 꼴로 부정적인 뜻의 서술어와 함께 쓰여, ‘전혀’, ‘조금도’의 뜻을 나타내는 말”(《고려대한국어대사전》)로 해석될 때 수사의문문을 만든다. 마찬가지로 관

형사 ‘한’ 또한 단위명사와 결합하여 수사의문문에 쓰일 수 있다.

(55) ㄱ. 그 사람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
ㄴ. 그 사람은 손 하나 꿈쩍하지 않는다.
ㄷ. 그런다고 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ㄹ. 누구 하나 나설 사람이 없다.

(56) ㄱ. 그 사람이 손가락 하나 까딱하는 거 봤니?
ㄴ. 그 사람이 손 하나 꿈쩍하는 거 봤니?
ㄷ. 그런다고 내가 눈 하나 깜짝할까?
ㄹ. 누구 하나 나설 사람이 있어?

(57) 넌 돈 한 푼 보태 봤어?

수사의문문에 쓰일 때 양의 방향의 극단을 의미하는 앞의 예들과 달리 ‘하나’, ‘한’의 경우는 극성이 전환되면 ‘손가락도 전혀 까딱하지 않는다’, ‘손도 전혀 꿈쩍하지 않는다’, ‘눈조차 깜짝하지 않는다’, ‘누구도 나서지 않는다’, ‘돈을 전혀 보태 본 적이 없다’와 같이 반대 극성으로 해석된다.

3.1.18. 오죽

‘오죽’은 그 자체로 부사로 쓰이거나 형용사 ‘오죽하다’를 구성한다. 부사 ‘오죽’은 ‘얼마나’와 같은 뜻이라고 풀이되며, ‘오죽하다’는 “정도가 매우 심하거나 대단하다”로 풀이된다(《표준국어대사전》).

(58) ㄱ. 네 말대로 되면 오죽 좋을까?
ㄴ. 오죽하면 도둑질을 할까? (《표준국어대사전》)
ㄷ. 지금도 이렇게나 더운데 한여름은 오죽하{-랴/ㄹ까/...}?

‘오죽’은 (58ㄱ)처럼 후행하는 형용사를 수식하여 정도성을 강조한다. ‘오죽’이 사전에서 ‘얼마나’와 같은 뜻이라고 풀이되는 것은 이 부사가 의문문에서만 사용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때 실제로 ‘얼마나’와 교체해도 의미는 변하지 않는다. ‘오죽하다’는 (58ㄴ)처럼 ‘오죽하면’ 꼴로 흔히 사용되거나, (58ㄷ)처럼 의문형 종결어미와 결합하는 것이 관찰된다.

3.1.19. 대수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제시하는 ‘대수’의 뜻은 세 가지이다. 첫째로 “(부정문이나 의문문에 쓰여) 대단한 것”, 둘째로 “최상의 일”, 셋째로는 “자주 하는 일. 또는 주로 하는 일”을 가리킨다. 아래는 각각의 의미에 해당하는 예문이다.

(59) ㄱ. 나같이 기박한 팔자에 위험해 봤자 대수겠어요.
ㄴ. 돈만 있으면 대수인가?
ㄷ. 상도는 그때 그림을 좋아해서 유명한 배우의 초상을 본뜨기가 대수였고….

《표준국어대사전》

특히 (59ㄱ)과 (59ㄴ)은 의문문의 예인데, 각각 ‘나같이 기박한 팔자에 위험해 봤자 대단한 일이 아니다’, ‘돈만 있으면 최고가 아니다’를 의미하는 수사의문문이다. ‘대수’는 이처럼 ‘이다’와 결합해 의문문을 이룰 때 수사의문문을 형성한다.

(60) ㄱ. <u>판사 사위 보게 생겼는데 욕이 무슨 대수야?</u> <그대 없인 못살아 5회>
ㄴ. 난 아빠가 무사해서 너무 좋은데, <u>그깟 시험이 대수야?</u> <다시 시작해 4회>
ㄷ. 영란: 물병을 당신이 마시고 그냥 뒀나 부네! 아까두.

선우: 그까짓 물병 좀 그냥 둔 게 대수야?

<밥 줘 9회>

예문 (60ㄱ, ㄴ)의 '명사+이/가', (60ㄷ)의 '어간+-ㄴ 게'와 같이 '대수+이다' 앞에는 다양한 요소가 올 수 있다는 것이 관찰된다.

3.1.20. 별것(별거)

'별것'은 "드물고 이상스러운 것"(《표준국어대사전》)을 가리키는데, 구어에서는 '별거'로 자주 나타난다.

(61) ㄱ. 그녀는 별것 아닌 일에 수선을 떨었다.
ㄴ. 별거 아닌 것 가지고 뭐 그리 고민해.

《표준국어대사전》

'별거'는 '이다'와 결합하거나 '있다'와 함께 쓰여 수사의문문을 구성한다. 아래에 예를 든다.

(62) ㄱ. 마시라 그래! 마셔 마셔! 이까짓 게 별거야? 나 능력 있다구! <나도 꽃 9회>
ㄴ. 인생 뭐 별거 있어요? 그렇게 살다 가는 거지. <내 이름은 김삼순 6회>

(62ㄱ)은 '이까짓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다', (62ㄴ)은 '인생에는 대단한 것이 없다' 정도로 해석된다.

3.1.21. 감히, 설마, 차마

화자의 심리적 태도를 나타내는 몇몇 부사들은 수사의문문에 곧잘 출

현하기도 한다. 이들의 사전적 의미는 아래와 같다.

표 4 ‘감히, 설마, 차마’의 사전적 의미(《표준국어대사전》)

표제어	뜻풀이
감히	1. 두려움이나 송구함을 무릅쓰고. 2. 말이나 행동이 주제넘게. 3, ((주로 ‘못’, ‘못하다’와 함께 쓰여)) ‘함부로’, ‘만만하게’의 뜻을 나타내는 말.
설마	그럴 리는 없겠지만.
차마	부끄럽거나 안타까워서 감히.

(63) ㄱ. 감히 어떻게 제가 선생님 흉을 볼 수 있습니까?
ㄴ. 홍길동이 설마 맨손으로 호랑이를 잡았겠습니까?
ㄷ. 차마 혼자 갈 수 있습니까?

(이창덕 1992:161-162)

위 (63)에서 보듯 ‘감히, 설마, 차마’는 주로 선어말어미 ‘-겠-’과 함께 의문문에 출현하며 수사의문문으로 해석될 가능성을 높인다. 이때 의문문에 담긴 명제의 ‘실현 가능성’에 부정적인 태도를 더하는 것이 이들 부사의 역할이라고 하겠다. 즉, 명제 내용이 실현되기 어려운 사태라는 화자의 판단이 드러나므로 해당 의문문은 자연히 반대 극성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다. 명제에 비현실성의 의미를 더하는 ‘-겠-’과 특히 자주 어울린다는 점 또한 이를 뒷받침한다.

3.1.22. 하물며

‘하물며’는 “앞 내용보다 뒤 내용에 대한 더 강한 긍정을 나타낼 때 쓰여 앞뒤 문장을 이어 주는 말”(《고려대한국어대사전》) 정도로 풀이된다. 《고려대한국어대사전》에 따르면 ‘하물며’는 반어적이거나 감탄적인 의문문에 쓰이는데, 여기서 반어적인 의문문이란 수사의문문을 가리킨다.

(64) ㄱ. 짐승도 제 새끼는 귀한 줄 아는데, 하물며 사람이야. 《표준국어대사전》

ㄴ. 그 아이는 쪽지시험에도 밤을 새우며 공부하는데 하물며 중간고사는 얼마나 열심히 하겠니? 《고려대한국어대사전》

뜻풀이에 의하면 '하물며'는 후행하는 내용에 더 강하게 긍정함을 나타내므로, 의문문으로 표현할 때 순수한 의문문으로 해석되지 않고 수사의문문으로만 이해된다.

3.1.23. 아무려면(아무렴)

《고려대한국어대사전》에서 풀이하는 '아무려면'은 감탄사로, "말할 것도 없이 그렇다는 뜻으로, 상대방의 말을 긍정할 때 하는 말"이다. 줄어든 말인 '아무렴' 또한 자주 사용된다.

(65) ㄱ. 세훈: 그럼요. 절 어떻게 보고 그러세요? 설마하니 제가 그런 사고를 치고 도망왔겠어요?

정심: 그래, <u>아무려면 우리 세훈이가 그런 인간 같지 않은 짓을 했을까?</u>

<오늘만 같아라 58회>

ㄴ. 옥봉: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해요! 당신 그랬다간 나도 당신 안 봐요! 내 말 명심해요!

인식: 안 해! <u>내가 아무렴 그런 짓을 하겠어?</u> 걱정 마!

<살맛납니다 117회>

ㄷ. 도식: 이러다 또, 여기서 밤 새는 거 아냐?

영심: <u>아무렴 어때?</u> 밤에 못 자면 낮에 자면 되는 거지!

<밥 줘 33회>

(65ㄱ)에서 밑줄 친 문장은 '설마하니 제가 그런 사고를 치고 도망왔겠어요?'라는 '세훈'의 선행 발화에 대해 '정심'이 긍정하는 말로, '우리 세훈이는 그런 인간 같지 않은 짓을 하지 않았다'를 의미한다. (65ㄴ)은 '아무려면' 대신 '아무렴'이 쓰였다. 이 또한 '당신 그랬다간 나도 당신 안 봐요'라는 '옥봉'의 경고에 대한 응답으로, '옥봉'이 우려하는 사태는 당연히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여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5ㄷ)의 밑줄 친 문장은 '여기서 밤을 새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도식'의 말에 '밤을 새도 상관없다'는 뜻으로 하는 말인데, 이와 같이 '아무렴' 뒤에 '어떻-'이 이어지는 형식이 자주 관찰된다.

3.1.24. 어쩌면(어쩜)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어쩌면'을 "도대체 어떻게 하여서"를 뜻하는 부사로 뜻풀이하고 있다.[16] '어쩌면'은 항상 '이렇-', '저렇-'과 공기한다는 특징을 가지며(하의뢰 2022:61) 구어에서는 '어쩜'으로 줄어들 수 있다.

(66) ㄱ. <u>어쩌면 이렇게 곱냐.</u> 꼭 우리 해일이 애기 때 같애.
ㄴ. 영자씨, 영자씨 해가며 자신의 어머니를 닮았네, 어머니가 보면 며느리 삼고 싶어하겠네 했던 그가 <u>어쩌면 이럴 수가 있지?</u>

(하의뢰 2022:60)

'어쩌면/어쩜'이 수사의문문에 쓰이면 감탄을 나타낸다. (66ㄱ)은 긍정적

16) "놀라거나 따지거나 할 때 내는 소리"라는 뜻의 감탄사로도 풀이하고 있으나,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제시하는 예문을 살펴보면 부사와 감탄사 간의 경계가 뚜렷해 보이지는 않는다. 무엇보다 아래 예문에서 '어쩌면'이 쓰인 문장은 수사의문문이므로, 여기서는 부사와 감탄사의 구분을 크게 의미 있는 것으로 보지 않으려 한다.

ㄱ. 어쩌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니?
ㄴ. 어쩌면, 저를 이렇게도 모욕을 주십니까.

인 감탄으로 해석되고, (66ㄴ)은 '그'의 예상하지 못했던 행동에 대해 '이럴 수가 없다'며 놀라움 섞인 비난을 하는 것으로 읽힌다.

3.1.25. 뭐 하러

연결어미 '-(으)러'는 기본적으로 이동의 목적을 나타내는 연결어미로, 유사하게 목적을 나타내는 '-(으)려고, -고자, -게, -도록' 등과 달리 후행절에 이동 행위를 내포하는 동사가 오는 것이 일반적이다. 목지선(2015)에서는 연결어미 '-(으)러' 앞에 '뭐'와 '하다'가 결합한 '뭐 하러'가 고정적 형태로 사용될 때 일반적인 '-(으)러'와는 다른 통사적 특징을 보임을 근거로 '뭐 하러'가 하나의 어휘로 굳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때 '-(으)러'가 의문문에 사용될 때는 일반적인 의문문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수사의문문으로도 해석될 수 있지만[17] '뭐 하러'의 경우 수사의문문을 구성하게 된다.

'뭐 하러'는 단순히 의문사와 '하다'가 연결어미 '-(으)러'에 선행하는 구성으로만 보기 어려운 특징을 몇 가지 지닌다. 첫째로 '뭐 하러'는 형태가 고정되어 쓰이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뭐 하러' 내부에 부정소가 개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로 확인이 가능하다.

(67) ㄱ. 누가 철수를 만나러 안 가니?
ㄱ′. 누가 철수를 안 만나러 가니?
ㄴ. 그걸 뭐 하러 안 주냐?
ㄴ′. *그걸 뭐 안 하러 주냐?

(목지선 2015:188-189)

(67ㄱ, ㄱ′)과 같이 부정소 '안'은 '-(으)러' 선행절과 그 후행절 어디에 위치해도 자연스러우며 후행절을 부정하는 의미 또한 변하지 않는다. 반

17) 목지선(2015)에서는 같은 의문문이 일반의문문과 수사의문문으로 모두 해석될 수 있을 때 억양이 변별력을 지닌다고 보고 있다.

면 '뭐 하러'가 쓰인 (67ㄴ, ㄴ´)은 '안'이 '뭐 하러' 사이에 끼어들 경우 어색한 문장이 된다. 이때 (67ㄴ)은 '그걸 안 줄 이유가 없다'를 의미한다.

둘째로 '-(으)러'에 적용되던 통사적 제약이 '뭐 하러'에서는 해소된다. 먼저 '-(으)러' 뒤에는 이동 동사만이 올 수 있는 반면, '뭐 하러' 뒤에는 이동 동사 외에 다양한 동사가 오는 것이 가능하다. 아래 예문의 의문문은 모두 해당되는 행위를 할 이유가 없음을 뜻한다.

(68) ㄱ. 거길 내가 뭐 하러 가?
ㄴ. 그 비싼 걸 뭐 하러 사?
ㄷ. 그런 얘길 뭐 하러 해?
ㄹ. 그 여자를 내가 뭐 하러 만나?

(목지선 2015:186)

다음으로 일반적인 '-(으)러'는 한 문장에서 반복될 수 없는 반면, '뭐 하러'는 '-(으)러 + 이동동사' 형태로 쓰일 수가 있다.

(69) ㄱ. *누구 만나러 시내에 가러 나왔어?
ㄴ. 뭐 하러 거기까지 밥 먹으러 갔냐?

(목지선 2015:188)

(69ㄱ)은 한 문장 안에 '-으러'가 반복되어 문법적이지 않은 데 반해, (69ㄴ)은 자연스럽다.

'뭐 하러'의 또 다른 특징은 후행절 없이 그 자체만으로 수사의문문을 구성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70) A: 내가 아침 일찍 가서 널 좀 도와줄게.
B: 뭐 하러 도와줘?/뭐 하러.

(목지선 2015:189)

위에서 A의 제안에 대해 B는 '뭐 하러 도와줘?'라고 대답함으로써 '거절'을 나타낼 수 있지만, 후행절을 생략한 채 '뭐 하러'라고만 발화하더라도 거절로 이해된다.

이상에서 살펴본바, '뭐 하러'는 단순히 '뭐'와 '하-+-으러'가 결합한 구성으로 분석하기보다, 하나의 굳어진 표현으로서 수사의문문을 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2. 구문 층위

이 절에서 다루는 대상인 '구문'은 '실질적인 부분과 도식적인 부분을 모두 포함하는 연속된 구조로 이루어진, 형식과 의미의 직접적인 짝'을 가리킨다(Bybee 2010:9). 언어 사용자들이 접하는 구체적인 실례에서 유사한 것들끼리 모이면 한 구문의 표본이 형성되는데, 다양한 표본에서 빈번히 함께 나타나는 부분은 고정되고, 나머지는 개방된 자리로 남는다. 이렇게 표상된 구문의 의미는 그 구성 요소와 그러한 구문이 사용되는 맥락에 따라 결정되고, 구문의 형식은 의미와 직접적으로 짝을 짓게 된다(Bybee 2010:26).

다음에서 살펴볼 구문들은 의문문에 쓰였을 때 수사의문문을 실현한다. 이들이 그러한 의미와 용법을 갖게 된 데는 그 구성 요소와 사용 맥락이 관여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표 5 수사의문문을 실현하는 구문

항목	예문
의문사 + -다고	밥 먹은 지 얼마나 됐다고 간식을 먹어?
-아/어 봤자	지지율 까짓거, 제가 아무리 높아 봤자 뭐하겠습니까?
-(으)면 다이-	이름만 그럴싸하게 붙이면 다예요?
-(으)면 (어디가) 덧나-	많이 아프냐고 물어주면 어디가 덧나?
-(으)면 -게	그걸 알면 내가 천재게?
-(으)면 - 지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걸 포기할 것 같아?

이/가 어디-	ㄱ. 이런 좋은 기회가 어딨어? ㄴ. 혼자 가는 게 어디 있어요? ㄷ. 5만 원이 어디예요? ㄹ. 그래도 뭐라도 하려는 게 어디야?
-는 법이 어디 있-	사람을 이렇게 대하는 법이 어딨어요?
거 아니-	무슨 대책이 있어야 할 거 아냐?
이/가 다 뭐-	멀쩡한 제집 놔두고 기숙사가 다 뭐니?
-다 뿐이-	지겹다 뿐이니?
-지 뭐-	ㄱ. 너 좋아한다는 뜻이지 뭐야? ㄴ. 휴대폰 배터리가 없는 걸 좀 아까 발견했지 뭐야.
-(으)ㄹ 줄 알고	ㄱ. 누가 그런 거 준다고 좋아할 줄 알고? ㄴ. 언제 올 줄 알고?

3.2.1. 의문사 + -다고

의문사가 선행하는 '-다고, -자고, -라고'를 포함한 의문문은 수사의문문으로 해석된다.

(71) ㄱ. 밥 먹은 지 얼마나 됐다고 간식을 먹어?
ㄴ. 이게 누구 돕자고 하는 일인데?
ㄷ. 그게 뭐라고 난리야?

위 (71ㄱ~ㄷ)은 각각 '밥 먹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간식을 먹는다', '바로 널 돕자고 하는 일이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데도 난리이다' 정도로 해석되는 수사의문문이다. '-다고'를 '-다고'와 의미가 유사한 다른 연결어미로 대체하는 것도 가능하나, 이때는 '-다고'가 쓰일 때와는 달리 중의적인 해석이 발생한다.

(72) ㄱ. 밥 먹은 지 얼마나 돼서 간식을 먹어?
ㄴ. 이게 누구 도우려고 하는 일인데?

ㄷ. 그게 뭐길래 난리야?

위 (72ㄱ~ㄷ)은 예문 (71)의 '-다고'를 다른 연결어미로 대체한 것이다. 이때 (72ㄱ~ㄷ)은 화맥에 따라 일반적인 의문문으로도, 수사의문문으로도 해석될 여지를 갖는다. 이에 비해 '-다고'가 사용된 의문문은 수사의문문으로만 해석될 수 있으므로, 의문사가 선행하는 '-다고'가 수사의문문의 해석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다른 연결어미와 달리 '-다고'가 이러한 특징을 갖는 이유를 강규영(2017)에서는 '-다고'류가 내포하는 '화자의 비동의 함축'에서 찾는다. 곧 '-다고'에는 선행하는 내용이 후행절의 이유나 목적이 되는 것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인 태도가 실린다. 그러한 마땅치 않은 이유나 목적으로 행해지는 후행절의 행위에 대해 화자가 의문을 표한다면, 이는 수사의문문으로 해석되기 쉬울 것이다.

특히 '어디라고, 누구라고'의 경우는 하나의 굳어진 요소로 볼 여지가 크다. 아래 예문에서와 같이 '어디라고, 누구라고'는 '-라고'가 본래 갖는 '이유'의 의미로 해석되기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73) ㄱ. 여기가 어디라고 큰소리냐?
ㄴ. 내가 누구라고 큰소리냐?

(강규영 2017:100)

'-다고'류 연결어미에 후행하는 절이 생략되어 쓰이는 경우도 빈번하다. 아래에 예를 든다.

(74) ㄱ.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거짓말이냐).
ㄴ.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 고생을 하느냐).
ㄷ. 이게 뭐라고 (이렇게 떨리느냐).

(강규영 2017:96)

위와 같이 후행절이 생략되는 것은 전체 문장이 수사의문문일 때만 가능하며, 설명의문문일 때는 생략이 될 수 없다. 후행절이 생략되고 남은 '-

다고’ 구문은 그 자체로 수사의문문으로 해석되는데, 강규영(2017:102)에서는 이를 탈종속화의 결과로 본다.

3.2.2. -아/어 봤자

‘-아/어 봤자’ 구문은 ‘-았자’에 ‘-아/어 보-’가 결합한 것으로 분석된다. 성미향(2020ㄴ)에서도 제시했듯이 ‘-아/어 봤자’의 출현 빈도가 ‘-았자’ 보다 훨씬 높다는 점, 동사만이 결합할 수 있는 ‘-어 보다’와 달리 ‘-아/어 봤자’ 앞에는 동사, 형용사, 계사가 두루 결합할 수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아/어 봤자’는 그 이상 분석하는 것보다는 문법화 과정에 있는 하나의 덩어리로 이해할 수 있을 듯하다(성미향 2020ㄴ:158-159).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았자’가 표제어로 등록되어 있으며, 이를 “‘앞말이 나타내는 행동이나 상태가 이루어지더라도’의 뜻을 나타내는 어미”라고 설명하고 있다. ‘-아/어 봤자’는 평서문과 의문문에서 아래와 같이 사용된다.

(75) ㄱ. 분풀이 좀 했다고 복수가 되는 건 아니다. <u>야구빠따 같은 거 백날 휘둘러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u>
ㄴ. 최진철이 마음먹고 막겠다는데, <u>라인 뚫어봤자 얼마나 가겠어?</u> 괜히 시간 낭비 하고 싶지 않아.

(성미향 2020ㄴ:160)

(75ㄱ)은 ‘-아/어 봤자’가 평서문에 쓰인 예이고, (75ㄴ)은 의문문에 쓰인 예이다. (75ㄴ)에서 ‘라인 뚫어봤자 얼마 가지 않는다’라는 극성이 전환된 해석이 도출되는 데서 ‘-아/어 봤자’가 의문문에 사용되면 해당 문장은 수사의문문으로 해석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아/어 봤자’ 뒤에는 대체로 부정적인 내용이 이어지는데, (75ㄱ)의 평서문 예시에서 ‘아무 소용이 없다’가 이어지는 것과 (75ㄴ)에서 ‘얼마 가지 않는다’를 의미하는 수사의문문이 이어지는 것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렇듯 '-아/어 봤자'에 후행하는 절은 선행절의 기대를 부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의문을 표현할 때는 수사의문문으로만 해석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아/어 봤자' 구문의 의미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째로는 "선행절의 시도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무용함(無用)"(성미향 2020ㄴ:163)을 의미한다.

(76) ㄱ. 제가 구구절절 설명 드려봤자, 우린 계속 평행선일 것 같네요.

ㄴ. 이런 굵직굵직한 공약에서 밀리는데 지지율 까짓꺼, 제가 아무리 높아 봤자 뭐하겠습니까.

(성미향 2020ㄴ:163)

위 (76ㄱ)의 평서문, (76ㄴ)의 수사의문문은 각각 '화자가 구구절절 설명하는 시도가 무용하다', '화자의 지지율이 아무리 높아 봤자 무용하다'로 해석된다.

둘째로, '선행절을 인정하더라도 그 정도가 대단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77) ㄱ. 수아 씨나 나나 가는 데가 참 빤하지 않아요? 결국 가봤자, 제주도 그 동네구. 심란해서 걷고 또 걸어봤자...참...

ㄴ. 왜 못 찾아? 자박자박 걸어봤자 얼마나 갔을라구.

(성미향 2020ㄴ:164)

위 (77ㄱ)에서 밑줄 친 평서문은 각각 '간다고 하더라도 제주도 그 동네일 뿐 대단하지 않다'를 의미하고, (77ㄴ)에서 밑줄 친 의문문은 '자박자박 걷는다고 해도 얼마 가지 못한다'를 의미한다.

3.2.3. -(으)면 다이-

조건절을 포함한 문장이 전건 혹은 후건을 통해 다른 하나를 부정하는데 사용되는 양상은 비단 한국어에서만 관찰되는 일은 아니다. 김종현(2001)에서는 영어 수사의문문을 대상으로 조건절을 포함하는 수사의문문의 양상을 연구하였다. 이때 화자는 전건, 즉 조건절의 명제 내용을 부정하거나, 후건절의 명제 내용을 부정할 수 있다(김종현 2001:129-130).

(78) ㄱ. If exercise is so good for you, why do most athletes retire by the age thirty five?
ㄴ. If any of you has a sheep and it falls into a pit on the Sabbath, will you not take hold of it and lift it out?
(김종현 2001:130)

(78ㄱ)은 전건을 부정하기 위한 수사의문문으로, 이때 후건의 내용을 사실로 설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건의 내용을 부정함으로써 '운동은 몸에 좋지 않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78ㄴ)은 후건을 부정하기 위한 수사의문문으로, "현실세계에서 화자나 청자의 기대에 위배되며 거부감을 주는 명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화자는 후건절의 성립 가능성이 부정되어야 함을 단언"하는 것이 된다(김종현 2001:130). 이에 따라 (78ㄴ)은 '누구든지 양을 꺼내 줄 것이다'로 해석된다. 한편 아래는 전건 혹은 후건 중 하나가 분명한 거짓을 포함하고 있어, 다른 한쪽 내용의 실현 불가능을 강조하는 용법의 한국어 예이다(윤평현 1992:34).

(79) ㄱ. 내가 거짓말하면, 네 아들이다.
ㄴ. 해가 서쪽에서 뜨면 영호가 부모님께 편지를 쓸 것이다.
(윤평현 1992:34)

위 (79ㄱ, ㄴ)은 평서문의 예를 인용한 것이다. (79ㄱ)의 후건인 '화자가

청자의 아들임'은 분명한 거짓이기 때문에, 전건이 부정되어 '화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를 의미하게 된다. (79ㄴ)에서 '해가 서쪽에서 뜬다'는 전건 또한 거짓으로, 분명히 거짓인 전건을 따라 도출되는 후건 또한 거짓이 된다. 따라서 '영호는 부모님께 절대 편지를 쓰지 않을 것이다'라고 추론해 낼 수 있다.

조건절을 이끄는 연결 어미 '-(으)면'을 포함하는 '-(으)면 다이-'는 아래와 같이 후건을 부정하는 수사의문문을 형성한다.

(80) ㄱ. 죄송하다면 다야? 조용히 끝내야 할 일을 더 자극시켜 놓구선. <글로리아 40회>
ㄴ. 지가 회장 손자면 다야? 누굴 만만히 보구 헛짓거리야, 헛짓거리가! <다시 시작해 36회>
ㄷ. 이름만 그럴싸하게 붙이면 다예요? <뉴스룸 시즌5 2회>

위 (80ㄱ~ㄷ)의 밑줄 친 부분은 '죄송하다면 다가 아니다', '자기가 회장 손자면 다가 아니다', '이름만 그럴싸하게 붙이면 다가 아니다'로 해석되는 수사의문문이다. 즉 '-(으)면 다이-'는 의문문에 쓰였을 때 '-(으)면'에 결합된 명제의 내용이 불충분함을 의미한다. (80ㄷ)과 같이 한정을 의미하는 보조사 '만'이 함께 어울려, '-(으)면' 앞의 내용이 제한적이고 충분하지 않다는 의미를 강조할 수도 있다. 반면 '-(으)면 다이-' 구문은 순수한 의문문에서는 사용되기 어렵다.

(81) A: 오실 때 필기구를 반드시 지참해 주세요.
B: ?필기구만 가져오면 다예요? 메모장은 필요 없나요?
B′: 필기구만 가져오면 돼요? 메모장은 필요 없나요?

이처럼 '-(으)면 다이-'가 실제로 '-(으)면' 앞의 내용이 충분한지를 묻는 의문문에 사용되면 다소 어색한 느낌을 준다. 같은 상황에서는 B′과 같이 질문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로부터 '-(으)면 다이-' 구문이 수사의문

문을 구성하는 구문으로 굳어졌음을 알 수 있겠다.

이처럼 '-(으)면'에 뒤이은 '다이-'가 수사의문문을 구성하는 것은, 조건의 수사의문문에서 후건이 "현실세계에서 화자나 청자의 기대에 위배되며 거부감을 주는 명제내용"(김종현 2001:130)을 내포하고 있을 때 후건이 부정된다는 것과 연관 지어 짐작할 수가 있겠다. 가령 다른 조건 없이 '-(으)면' 앞에 오는 단 하나의 조건만 충족되어야 하는 극단적인 경우는 현실에서 좀처럼 없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즉 후건에 일반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내용을 포함되어 있어, 해당 의문문을 순수한 의문문으로 해석하기 어렵게 한다. '-(으)면 다이-'가 수사의문문을 구성하는 구문으로 굳어지게 된 데는 이러한 맥락이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3.2.4. -(으)면 (어디가) 덧나-

'-(으)면 (어디가) 덧나-'를 포함한 의문문은 수사의문문을 형성한다.

(82) ㄱ. 적당히 놀래주면 덧나나. <하얀 거짓말 139회>
ㄴ. 어쩜 그렇게 잔인하냐? 말이라도 좋게 해주면 어디 덧나? <내 이름은 김삼순 8회>
ㄷ. 많이 아프냐고 물어주면 어디가 덧나?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매정하냐? <개인의 취향 9회>

(82ㄱ~ㄷ)은 '적당히 놀라 주면 덧나지 않는다', '말이라도 좋게 해 주면 어디 덧나지 않는다', '많이 아프냐고 물어 주면 어디가 덧나지 않는다'를 의미하며, '-(으)면' 앞의 행위가 실현되지 않은 것에 대해 청자 혹은 제3자를 질책하거나, 원망과 불만을 표현한다. (82ㄱ)과 같이 '어디(가)' 없이 사용될 수도 있지만 말뭉치에서는 (82ㄴ, ㄷ)처럼 '어디(가)'가 자주 함께 출현하는 양상을 보인다.

'-(으)면 (어디가) 덧나-'를 포함한 의문문 또한 '-(으)면 다이-'와 같이

후건이 부정된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덧나다'는 "병이나 상처 따위를 잘못 다루어 상태가 더 나빠지다"라는 의미인데, '-(으)면' 앞 행위의 결과로 어딘가가 덧나는 상황은 일반적으로 상상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에 대한 의문을 표했을 때 문자 그대로 순수한 의문으로 해석되기 어려운 것이다.

3.2.5. -(으)면 - 게

종결어미 '-게'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앞 절의 사실이 그러하니 자연히 뒤 절의 사실은 이러할 것이라고 추측하여 물음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를 뜻한다.

(83) 그 사람이 형사가 아니라니, 그럼 그 사람이 사기꾼이었게?
《표준국어대사전》

(83)에서 '-게'는 '그 사람이 형사가 아니다'라는 사실에 뒤따르는 '그 사람이 사기꾼이다'라는 명제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런데 '-게'는 "앞 절의 사태가 성립하지 않음을 나타내기 위하여 반어적인 물음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로도 사용된다.

(84) ㄱ. 숙제를 다 해 놓았으면 내가 야단을 안 치게?
ㄴ. 그것을 알면 내가 천재게?
《표준국어대사전》

위 예문 (84)는 모두 '-(으)면'을 포함하면서 전건이 부정되고 있다. 즉 (84ㄱ)은 이미 화자가 야단을 치는 상태에서, (84ㄴ)은 화자가 천재가 아닌 것이 분명한 상태에서 발화되기 때문에 각각의 전건이 부정되어 '숙제를 다 해 놓지 않았다', '그것을 모른다'를 의미하게 된다. 이와 같이 '-게'는 그것이 결합한 절의 명제 내용을 부정하는 효과가 있는데, 명백히

부정되어야 하는 후건을 내세움으로써 그것의 조건인 전건도 함께 부정됨을 보이는 것이라 하겠다. 이는 앞에서 들었던 (79ㄱ) “내가 거짓말하면, 네 아들이다”와 유사하다.

3.2.6. -(으)면 - 지

본 항은 ‘-(으)면 - 지’와, 이에 과거 시제 선어말어미 ‘-았/었-’이 결합한 ‘-(으)면 - 았/었지’ 두 가지에 대해 다룬다. 신현규(2019)에서도 지적했듯이 이 둘은 형태는 유사하지만 서로 다른 의미 기능을 지닌다. 먼저 아래에서 ‘-(으)면 - 지’의 예를 살펴본다.

(85) ㄱ. 좋으면 좋은 거지, 뭐가 이렇게 복잡해?
ㄴ.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은 거지. 뭐가 이렇게 어렵고 복잡하냐고.

(신현규 2019:73)

(85ㄱ, ㄴ)에서 ‘X면 X지’는 “X는 단순히 X에 불과하다”라는 해석을 가지는데(신현규 2019:73), 이에 따라 후행하는 ‘뭐가 이렇게 복잡해?’는 ‘이렇게 복잡할 이유가 없다’를 뜻하게 된다. 신현규(2019:73)에 따르면 이 구문은 “조건절이 지시하는 사건 혹은 상황에서 별도의 귀결점으로 향하기 위하여 별도의 인위적인 조작이나 노력이 가해지지 않아도 되는, 조건절 사태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임을 나타낸다. 조건절 사태는 별도의 노력 없이도 그 자체로 존재하므로, 이에 대해 더한 의문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렇기에 ‘X면 X지’ 뒤에 의문문이 따르면 ‘이러한 의문을 가질 이유가 없음’을 뜻하는 수사의문문으로 해석되기 쉽다.

다음으로 신현규(2019)에서는 미실현 사태인 X와 Y에 대한 ‘X면 X었지, Y하지 않다’를 하나의 구성으로 보고, 화자가 Y의 실현에 대한 단호한 ‘거부’를 나타낸다고 설명한다. 또 후행하는 ‘Y하지 않다’에 반의 의문

문[18]이 쓰일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86) ㄱ. 앞서면 앞섰지 뒤떨어지지는 않겠다. (신현규 2019:71)
ㄴ.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걸 포기할 것 같아? <흔들리지 마 162회>

(86ㄱ)에서 '앞서다'와 '뒤떨어지다'는 모두 미실현 사태로 이해되는데, 이때 '뒤떨어지는 사태'의 실현에 대한 화자의 강한 거부를 느낄 수 있다. (86ㄴ)은 의문문의 예로, '죽으면 죽었지'를 통해 극단적인 사태를 가정함으로써 후행하는 내용의 실현에 대한 거부 의지가 강하게 표출되어 '절대로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발생한다. 아래와 같이 '-(으)면' 앞에도 '-았/었-'이 올 수 있으나, '-(으)면'은 '-았/었-'의 결합 여부와 관계없이 미실현 사태를 가리키기에 뚜렷한 의미 차이는 나타나지 않는다.

(87) ㄱ. 같이 죽으면 죽었지, 어떻게 새끼를 낳아서 버려요? <여자를 울려 19회>
ㄱ′. 같이 죽었으면 죽었지, 어떻게 새끼를 낳아서 버려요?

3.2.7. 이/가 어디

담화표지 '어디'가 수사의문문을 구성함은 앞절에서 보인 바 있다. '어디'를 포함하는 '이/가 어디 있-', '이/가 어디이-' 등의 구문도 수사의문문에 자주 출현한다. 먼저 '이/가 어디 있-'이 수사의문문에 쓰인 예를 살펴본다.[19]

(88) ㄱ. 여기 매장이 어딨죠?
ㄴ. 만약에 결혼한다고 해도, 당장 우리 신혼집 구할 돈이 어딨

18) 이는 국내 연구에서 '수사의문문'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술어 중 하나이다.
19) (88ㄱ~ㄷ)의 출처는 마영리(2021:4)이다.

냐?

ㄷ. 이런 좋은 기회가 어딨어? 두말하지 말고 받아들여.

ㄹ. 해보기나 했어? 해서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영웅시대 41회>

(88)은 주격 조사 앞에 명사가 결합한 예이다. (88ㄱ)은 일반의문문으로 매장의 위치를 묻고 있지만, (88ㄴ~ㄹ)은 '당장 우리 신혼집 구할 돈이 없다', '이런 좋은 기회는 없다', '해서 안 되는 것은 없다'를 의미하는 수사의문문이다. (88ㄴ)에서 '돈'이라는 보통 명사가, (88ㄷ)에서 '기회'라는 추상 명사가, (88ㄹ)에서 '것'이라는 의존 명사가 사용된 것으로 보아 명사의 종류에 구애받지 않고 수사의문문을 형성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이/가 어디 있-'을 포함하는 의문문은 '주어가 되는 대상이 어디에도 없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88ㄹ)에서 '게'(것이)의 '것'은 '해서'의 목적어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아래는 그렇게 분석할 수 없다는 점이 독특하다.

(89) ㄱ. 무슨 일 있으면 나한테도 얘기해주지. <u>혼자 가는 게 어디 있어요?</u> <하얀 거짓말 65회>

ㄱ´. *<u>혼자 간 게 어디 있어요?</u>

(89ㄱ)은 '혼자 가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수사의문문이다. (89ㄱ)에서 '가다'는 자동사이므로 '게'의 '것'이 '가다'의 목적어로 해석될 수가 없다. 또한 '게' 앞의 현재시제 관형형 어미 '는'을 (89ㄱ´)과 같이 다른 관형형 어미로 교체할 경우 어색한 느낌을 준다. 따라서 (89)에서는 '-는 게 어디 있-' 자체가 하나의 구문으로 굳어진 것을 알 수 있다. '-는 게 어디 있-'은 '해당 행위를 하는 것은 어디에도 있을 수 없다', 즉 '해당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로 해석된다.

다음으로, '이/가 어디'가 계사 '이다'와 구문 구성을 이룬 '이/가 어디이-' 또한 자주 사용된다. 이때 '주어가 최선에는 못 미치지만, 그나마 최

악을 면한 것이 다행스럽다'는 의미를 지닌다.

(90) ㄱ. 다섯 시간 노래하고 5만 원이 어디예요. 신나게 노래하고 돈 받고. <메리 대구 공방전 1회>
ㄴ. 허긴 못 만났으면 그만인데 와인 두 잔이 어디야. <엄마의 정원 2회>

(91) ㄱ. 그래도 뭐라도 하려는 게 어디야? <메이퀸 14회>
ㄴ. 힘든 시간 잘 지내구 저만큼 마음잡은 게 어디야. <다시 시작해 82회>

(90)은 '이/가 어디 있-'의 주격 조사 앞에 명사가 결합한 예이고, (91)은 주격 조사 앞에 '-(으)ㄴ/는 것'이 옴으로써 구어에서 '-(으)ㄴ/는 게 어디 이-'로 자주 실현되는 양상을 보인 예이다. (90ㄱ)은 '비록 큰 금액은 아니지만 5만 원은 최악이 아니다'를, (90ㄴ)은 '와인 두 잔이라도 마시게 되었으니, 상대를 아예 못 만나서 아무것도 못 얻는 것보다는 낫다'를 의미한다. (91ㄱ)은 '뭐라도 하려는 것만으로도 최악보다 낫다'로 해석할 수 있다. (91ㄴ)은 '힘든 시간 잘 지내고 저만큼 마음 잡은 것만으로 충분하다'로 해석된다. 이때 '-게' 앞에는 (91ㄱ)과 같이 현재형 어미 '-는'이나, (91ㄴ)과 같이 과거형 어미 '-(으)ㄴ'이 올 수 있다.

3.2.8. -는 법이 어디 있-

'-는 법이 어디 있-'은 '-는' 앞의 내용이 부당함을 의미하는 구문으로 굳어져 사용된다.

(92) ㄱ.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사람을 이렇게 대하는 법이 어딨어요! <메이퀸 10회>
ㄱ´. *사람을 이렇게 대할 법이 어딨어요!

ㄱ´´. *사람을 이렇게 대한 법이 어딨어요!
ㄱ´´´. *사람을 이렇게 대하는 법은 어딨어요!

(92)는 '아무리 화가 나도 사람을 이렇게 대해서는 안 된다'로 해석된다. (92ㄱ´, ㄱ´´)으로부터 '법' 앞에는 어미로 '-는'만이 올 수 있으며 '-(으)ㄴ, -(으)ㄹ' 등의 다른 어미로 교체하면 어색하다는 점을 알 수 있고, '법' 뒤에 주격 조사만이 올 수 있다는 것이 (92ㄱ´´´)에서 드러난다. 이로부터 '-는 법이 어디 있-'이 수사의문문을 구성하는 하나의 구문으로 굳어졌음을 알 수 있다.

3.2.9. 거 아니-

남길임(2018)에서는 명제에 대한 부정의 의미를 가지는지의 여부에 따라 '거 아니-' 구문을 두 가지로 구분한다.

(93) ㄱ. 아무리 배 고파두 땅에 떨어진 건 주워 먹는 거 아니야.
ㄴ. 미리 얘길 해 줘야 될 거 아냐.
(남길임 2018:81)

(93ㄱ)은 [+개념적 부정]의 성질을 갖는 '거 아니-1'의 예로, "청자의 전제를 부정하거나 일반적인 상식이나 관습, 기대 즉, 선행 명제를 부정한다"면, (93ㄴ)은 [-개념적 부정]의 성질을 갖는 '거 아니-2'의 예로서 '아니-'가 '긍정의 반대'로서의 의미 기능을 담당하지 못한다. 즉 '아니-'가 쓰였지만 '미리 얘길 해 줘야 된다'는 명제를 강조함으로써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는 기능을 한다(남길임 2018:81). 이 항에서 주목할 '거 아니-' 구문은 후자에 해당한다.

'거 아니-2'의 화용적 기능은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선행하는 전제에 대해 '청자에게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며, '명제에 대한 평가나 의견을 주장'하거나, '화자 자신의 행위나 청자의 행위를 공언 혹

은 요구'하는 기능을 들 수 있다. 다음에서 차례로 예문을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94) ㄱ. 너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ㄴ. 너 시력이 어떻게 된 거 아니야?
ㄷ. 어차피 수업 시간은 다 똑같을 거 아니에요.
(남길임 2018:86)

위는 남길임(2018)에서 '확인'의 기능으로 사용된다고 제시한 예이다. 이때 전체 문장은 (94ㄱ, ㄴ)처럼 상승 억양으로도, (94ㄷ)처럼 하강 억양으로도 발화된다. 남길임(2018)에서는 확인의 '거 아니-'가 단순한 확인뿐 아니라 (94ㄴ)과 같이 청자를 비난하거나 사태를 우려하는 맥락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상승 억양과 함께 의문형으로 사용될 때는 "화자의 태도나 평가에 청자를 좀 더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고 청자의 인식이나 확인을 요청"한다(남길임 2018:87).

두 번째 기능인 '화자 자신의 의견 및 평가를 주장'하는 기능, 그리고 세 번째 기능인 '화자의 행동 표명 혹은 청자의 행동 요구'는 이러한 '확인, 동의 요청'의 기능에서 확장된 것으로 보인다.

(95) ㄱ. 누구나 완벽할 순 없는 거 아냐.
ㄴ. 그게 소원이라면 내가 설거지하면 될 거 아냐.
ㄷ. 너 임마, 무슨 대책이 있어야 할 거 아냐?
(남길임 2018:87)

(95ㄱ)은 '누구나 완벽할 순 없다'는 명제를 강조하며, (95ㄴ)은 '그게 싫으면 내가 설거지를 하겠다'는 자기 행동의 의지를 공언하고 있고, (95ㄷ)은 청자에게 '무슨 대책을 마련하라'며 행동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95ㄴ, ㄷ)과 같이 '-어야 {하-/되-}ㄹ' 구문과 자주 결합하여 "화자가 판단하기에 마땅히 되어야 할 사태에 대해 청자의 동의와 주의 집중을 요

구”하는 것 또한 관찰된다(남길임 2018:89).

3.2.10. 이/가 다 뭐-

김염(2014)에서는 ‘말할 나위도 없고’의 의미를 지니는 ‘커녕’류 표현의 하나로 ‘이/가 다 뭐야’를 소개하고 있다. ‘커녕’류 표현들이 공유하는 의미는 ①어떤 사실은 더 말할 나위도 없이 부정하고 그보다 덜하거나 못한 것까지 부정하는 뜻, ②어떤 사실은 말할 나위도 없이 부정하고 그보다 더 심한 일을 맞이하는 뜻, ③‘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도리어’, ④어떤 사실은 더 말할 나위도 없이 긍정하고 그보다 더한 것까지 긍정하는 뜻, ⑤잠시 미루어 문제 삼지 않음의 뜻, 다섯 가지이다.

표 6 ‘이/가 다 뭐야’ 구문의 의미 분류 (김염 2014:40-43)

구문	의미	예문
이/가 다 뭐야 1	어떤 사실은 더 말할 나위가 없이 부정하고, 그보다 덜하거나 못한 것까지 부정하는 뜻	치아 검사가 다 뭐야. 손금도 제대로 못 봤다는데.
이/가 다 뭐야 2	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도리어	열쇠 세 개 바라는 게 다 뭐야... 오히려 처가에 열쇠꾸러미를 주겠네 주겠어...
이/가 다 뭐야 3	어떤 사실을 긍정하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고 그보다 더한 사실까지 긍정하는 뜻	세상에, 콩알만한 게 가출이 다 뭐야, 유랑극단이라니...
이/가 다 뭐야 4	잠시 미루어 문제 삼지 않음, 우선 내버려둠	재미가 다 뭐야. 내가 지금 며칠째 뭐에 씌여 있다.

김염(2014)에 의하면 ‘이/가 다 뭐야’는 그중 네 가지 의미를 나타낼 수 있으며 각각을 예문과 함께 옮기면 위 표와 같다. 이에 따르면 ‘이/가 다

뭐야'는 여타 '커녕'류 표현 '커녕, 고사하고, 물론, 말할 것도 없고, 하물며'가 나타내는 의미와 상당히 겹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가 다 뭐야 3'에서 재고의 여지를 찾아볼 수 있다. 우선 예문을 위 기술을 따라 해석하면 '청자가 가출을 시도함'을 긍정하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고 그보다 더한 '청자가 유랑극단에 들어가려고 했음'까지 긍정하는 의미가 될 것인데, 화자가 이 둘을 긍정한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충분치 않아 보인다. 게다가 '유랑극단에 들어가려고 한 것'을 '가출을 시도한 것'보다 더한 사실로 간주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남는다. 이 둘은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보다 더하거나 덜하다기보다는, '유랑극단에 들어가기 위해 가출을 함'처럼 '행위'와 '목적'의 관계로 연결된 것처럼 보인다. 마지막으로, 후행하는 '유랑극단이라니'를 삭제하더라도 '콩알만한 게 가출이 다 뭐야'만으로 자연스러운 발화로 받아들여진다는 데서, '이/가 다 뭐야 3'은 '커녕'류 표현이 전형적으로 나타내는 의미와는 다소 동떨어져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더해 '이/가 다 뭐야 4'의 경우도 위의 다른 의미들과는 다소 차이가 있어 보인다. 다른 의미들은 두 사실 중 하나가 다른 하나보다 덜하거나, 혹은 서로 배타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관찰되는데 '이/가 다 뭐야 4'의 경우는 특별히 두 사실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본고는 두 사실이 관여하는 '이/가 다 뭐야 1, 2'가 아닌, '이/가 다 뭐야 3, 4'를 해당 구문의 기본적인 의미로 파악할 것을 제안한다. '이/가 다 뭐야'를 '말할 나위도 없이 터무니없음' 정도로 설정한다면, '이/가 다 뭐야 1, 2'가 나타내는 '그보다 덜하거나 못한 것까지 부정하는 뜻', '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도리어'는 해당 구문 뒤에 다른 정보가 이어서 제시될 때 맥락적으로 충분히 파악될 수 있는 의미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세상에, 콩알만 한 게 가출이 다 뭐야'는 '콩알만 한 게 가출을 하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이 당치 않다'로, '재미가 다 뭐야. 내가 지금 며칠째 뭐에 씌어 있다'는 '재미는 당치도 않고, 오히려 며칠째 뭐에 씌어 있다' 정도로 해석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아래는 종결어미 '-야'뿐 아니라 다양한 종결어미가 '이/가 뭐'와 결합

할 수 있음을 보인 것이다.

(96) ㄱ. 멀쩡한 제집 놔두고 기숙사가 다 뭐니? 얼굴이 반쪽이 됐네. <흔들리지 마 40회>
ㄴ. 진짜로 까닥 안 하시면 박수가 다 뭐예요? 발가벗고 나가서 춤출게요. <베토벤 바이러스 8회>
ㄷ. A: 겨울에는 그러면 뜨거운 물도 부족하겠네요?
B: 뜨거운 물이 다 뭡니까? ... 북한은 뜨거운 물은커녕 찬물이라도 좀 있어야 되는데 물도 안 나와가지고 낮에는 저기 공장 기업소 건설 현장에 전기를 돌려보내고... <통일전망대 689회>

(96ㄱ)은 '멀쩡한 제집 놔두고 기숙사에 가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이 당치 않다', (96ㄴ)은 '박수를 치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고, 그보다 더한 것도 하겠다', (96ㄷ)은 '뜨거운 물이 부족한 것은 말할 나위도 없고, 그보다 못한 것도 없다'로 이해된다.

3.2.11. -다 뿐이-

'뿐'은 그 품사가 보조사 혹은 의존명사로 나뉜다. 보조사 '뿐'은 매우 제한적인 분포를 특징으로 하며, 서술어로 '이다'와 '아니다' 만을 취할 수 있다고 알려졌지만 성미향(2021)의 분석에 의하면 '뿐' 뒤에도 다양한 조사와 서술어가 뒤따를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의존명사 '뿐'은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두 가지 뜻으로 풀이된다. 첫째는 "다만 어떠하거나 어찌할 따름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말", 둘째는 "오직 그렇게 하거나 그러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다. 아래에 각각의 예를 든다.

(97) ㄱ. 그는 웃고만 있을 뿐이지 싫다 좋다 말이 없다.

ㄴ. 이름이 나지 않았다 뿐이지 참 성실한 사람이다.

《표준국어대사전》

본 항에서 주목할 대상은 두 번째 '-다 뿐이-' 구성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다 뿐이지' 꼴만을 제시하여 다른 절에 선행하는 용법만을 제시했지만, 말뭉치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다 뿐이-'가 의문문을 구성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98) ㄱ. 영희: 오래됐구나. 지겨웠겠다.

OJ: <u>지겹다 뿐이니?</u> 아주 돌아버리는 줄 알았다.

/? 지겨울 뿐이니? 아주 돌아버리는 줄 알았다.

/*지겨워 뿐이니? 아주 돌아버리는 줄 알았다.

<그분이 오신다 97회>

ㄴ. 주인: 뱀 잡는다더니 좀 잡았냐?

땅꾼: <u>잡았다 뿐이냐?</u> 아주 이번엔 대박이다!

/?잡았을 뿐이냐? 아주 이번엔 대박이다!

/*잡았어 뿐이냐? 아주 이번엔 대박이다!

<그분이 오신다 84회>

(98ㄱ, ㄴ)에서 밑줄 친 의문문의 해석은 '그냥 지겹기만 한 것이 아니다', '그냥 잡기만 한 것이 아니다'로, 그 뒤로 '-다'에 선행하는 명제보다 더한 내용이 이어진다. (98ㄱ, ㄴ)의 'OJ'와 '땅꾼'의 전체 대사는 '그냥 지겹기만 한 것이 아니라 돌아버릴 정도였다', '그냥 잡기만 한 것이 아니라 아주 대박이 났다' 정도로 해석된다. 이때 '-다' 대신 관형사형 어미나 다른 종결어미로 대체하면 같은 해석이 발생하지 않고 어색해진다는 점, 그리고 '뿐'이 쓰인 다른 의문문은 항상 수사의문문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다 뿐이-' 전체를 '수사의문문을 구성하는 구문으로 봄직하다.

이때 '-다' 앞에는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어미가 (98ㄱ)처럼 결합하지 않아도, (98ㄴ)처럼 결합해도 자연스럽다. (98ㄱ)에서 '영희'의 선행 발화

가 과거에 대한 추측이므로 'OJ'의 대답 또한 과거 시제로 실현되어야 자연스럽겠지만, '-다' 앞에 '-았/었-'이 결합하지 않았음에도 과거 시제로 이해될 수 있다.

3.2.12. -지 뭐-

'-지 뭐-'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로, 상대방의 의문에 반응하여 '그러한 의문을 품을 이유가 없이 당연하다'는 의미를 강조하는 '-지 뭐-1'이 있다.

(99) ㄱ. 유나: 지금 나한테 언니라고 했니?
몽희: <u>그럼 언니지 뭐야.</u>
<금 나와라 뚝딱 40회>
ㄴ. 인혜: 아까는 또 영화 보러 가자고 그러던디, 그게 무슨 뜻이여요?
삼순: <u>너 좋아한다는 뜻이지 뭐야?</u> 이 바보야.
<내 이름은 김삼순 15회>

(99ㄱ, ㄴ)에서 밑줄 친 문장의 의미는 '당연히 (청자는) 언니이다', '당연히 너를 좋아한다는 뜻이다'로 해석될 수 있겠다. '-지 뭐-1'의 의미는 의문사 '뭐'를 부정 전칭 양화로 해석함으로써 얻어진다. 곧 '그럼 언니지 뭐야'는 '(청자는) 언니이지, 다른 것이 아니다'로 해석되고, '너 좋아한다는 뜻이지 뭐야?'도 마찬가지로 '너 좋아한다는 뜻이지, 다른 뜻이 아니다'로 해석된다. '-지 뭐-1'은 상대방이 가진 의문에 대한 반응으로 발화되며, 앞의 명제가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을 정도로 당연함을 드러낸다. 여기에는 화청자가 모두 아는 명제 내용과 어울리는 종결어미 '-지'의 의미가 관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로는 선행하는 명제 내용에 대한 감탄을 드러내는 '-지 뭐-2'가 있다.

(100) ㄱ. 원빈: 근데 웬 두유예요?

이나영: 저번에 차 뽑아 가신 고객님이 두유 회사 다니시잖아. <u>고맙다고 직원들 수대로 보내주셨지 뭐야.</u>

ㄱ′. 고맙다고 직원들 수대로 보내주셨지.

ㄱ′′. 고맙다고 직원들 수대로 보내주셨어.

<대장금이 보고 있다 15회>

ㄴ. 시완: 아저씨! 왜 이렇게 전화가 안 되세요?

기우: <u>휴대폰 배터리가 없는 걸 좀 아까 발견했지 뭐야.</u>

ㄴ′. 휴대폰 배터리가 없는 걸 좀 아까 발견했지.

ㄴ′′. 휴대폰 배터리가 없는 걸 좀 아까 발견했어.

<스탠바이 48회>

(100ㄱ, ㄴ)에서 밑줄 친 문장은 각각 '고맙다고 직원들 수대로 (두유를) 보내주셨다', '휴대폰 배터리가 없는 걸 좀 아까 발견했다'는 명제 내용에 대해 화자 또한 예상하지 못했음을 드러낸다. 이는 '뭐-' 없이 '-지'로 문장을 끝맺거나 다른 종결어미로 대체했을 때와 비교하면 더욱 확실히 드러난다.

'-지 뭐-1'과 달리 '-지 뭐-2'에서는 '-지'에 선행하는 명제 내용이 당연한 것임이 전제되지 않는다. (100ㄱ, ㄴ)의 밑줄 친 문장은 맥락상 청자가 '고객이 고맙다고 직원들 수대로 두유를 보내 주셨다', '휴대폰 배터리가 없는 것을 조금 전 발견했다'는 사실을 청자가 미리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발화되었고, 더구나 화자 또한 이를 미리 예상하지 못했음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이때는 종결어미 '-지'의 의미가 투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3.2.13. -(으)ㄹ 줄 알고

의문문이 '-(으)ㄹ 줄 알고'로 종결될 경우, 다음과 같이 수사의문문으로 해석되는 경향을 보인다.

(101) ㄱ. 팥칼국수에다, 김부각에다 지금 나한테 뇌물 써? 이러면 내 마음이 풀어질 줄 알고? <오늘만 같아라 40회>

ㄴ. 한우는 무슨. 누가 그런 거 준다고 좋아할 줄 알고? <스탠바이 97회>

(101ㄱ~ㄴ)로부터 '-(으)ㄹ 줄 알고'가 판정의문문과 설명의문문 모두를 형성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101ㄱ)에서 밑줄 친 의문문은 '이래도 내 마음이 풀어지지 않는다'를 의미하고, (101ㄴ)은 '나는 그런 걸 준다고 좋아하지 않는다'를 의미한다. 위 예문 (101)의 해석에서는 '-(으)ㄹ 줄 알고'에 선행하는 내용이 부정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한편 같은 형식을 띠지만 아래와 같은 문장은 해석에서 차이를 보인다.

(102) 용준: 가스레인지에 올려놓은 거 뭐야?
정금: 사골국 데우는 거야.
용준: 언제 들어올 줄 알고?

<천하일색 박정금 50회>

(102)에서 밑줄 친 '용준'의 발화는 '언제 들어올 줄 모른다'는 의미이며, '언제 들어올 줄 알고 사골국을 데워?'와 같은 의문문에서 후행 요소가 생략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러한 '용준'의 발화는 기다리는 사람이 언제 들어올 줄 모르면서도 사골국을 데우는 '정금'의 행위가 합리적이지 않음을 지적한다. 이때 (101ㄱ, ㄴ)과는 달리 '-(으)ㄹ 줄 알고'에 선행하는 부분이 아닌, '알다'가 부정되어 함축된 의미는 '모르다'로 해석된다. 이와 같이 (102)와 같은 '-(으)ㄹ 줄 알고'는 '-(으)ㄹ' 앞의 사태에 대해 알지 못하는 상태를 고려했을 때 청자의 선행 발화나 행위가 적절하지

않음을 지적하는 데 사용된다.

3.3. 숙어 및 속담 층위

어떤 언어 표현이 관습적인 성격을 띨 때 이들을 관용표현이라고 하며, 이들은 기표와 기의 사이의 연관성이 관습성을 갖는 '숙어', 특정 단어 간의 결합이 관습성을 갖는 '연어', 그리고 표현과 그 사용 상황 사이의 관계가 관습성을 갖는 '화용론적 관용표현'으로 나눌 수 있다(박진호 2003:364). '속담'은 관습적으로 "보편적인 진리를 어떤 구체적인 사실로 비유하여 표현"한 것으로(주경희 2006:423), 명제적 의미에서 은유적인 해석 과정을 거쳐 관용적 의미를 얻는다.[20]

그중 숙어나 속담 중에는 주로 의문문의 형식으로 사용되어 수사의문문을 구성하는 것들이 존재한다.

(103) ㄱ. 이게 웬 떡이냐? (박진호 2003:371)
ㄴ. 너 약 먹었니? (박진호 2003:371)
ㄷ. 이걸 누구 코에 붙이냐?

(104) ㄱ.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랴?
ㄴ. 공든 탑이 무너지랴?
ㄷ.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ㄹ. 외 손뼉이 소리 나랴?
ㅁ. 제 버릇 개 주니?
ㅂ. 첫 술에 배 부르랴?

(한지현 2007:57-58)

20) 한편 '속담'은 관습적인 성격을 지니기는 하나 관용표현과는 구분된다고 여겨지는 듯하다. 박진호(2020:375)에서도 어휘부에 일반 언어 재료로서 저장되고 사용되는 관용표현과 달리, 속담이나 격언은 언급 혹은 인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용법에서 차이가 난다고 보고 있다. 또 주경희(2006)에서는 속담의 의미 구현이 '비유성'에 기반하고 있음을 근거로 여타 관용표현들과는 구분된다고 주장한다.

(103ㄱ)은 예기치 않게 횡재했을 때, (103ㄴ)은 상대가 정상적이지 않은 행동을 보일 때, (103ㄷ)은 터무니없이 양이 적을 때 흔히 쓰이는 표현이다. (104ㄱ)은 '다소 방해되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마땅히 할 일은 하여야 함', (104ㄴ)은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한 일은 그 결과가 반드시 헛되지 아니함', (104ㄷ)은 '원인이 없으면 결과가 있을 수 없음', (104ㄹ)은 '일은 상대가 같이 응하여야지 혼자서만 해서는 잘되는 것이 아님', (104ㅁ)은 '나쁜 버릇은 쉽게 고쳐지지 않음', (104ㅂ)은 '어떤 일이든지 단번에 만족할 수는 없음'으로 해석되는 속담들이다(《표준국어대사전》). 특히 속담의 경우, 수사의문문으로 발화됨으로써 청자에게 함축된 의미를 더 강하게 전달하는 효과를 가진다고 하겠다(한지현 2007:57).

이들의 기표와 기의는 필연적이 아닌 관습적 관계를 맺고 있으며, 따라서 합성적인 의미로는 쓰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들 표현이 갖는 관용성을 이해하는 대화참여자라면, 이들이 의문문에 사용되는 것을 듣는 즉시 수사의문문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3.4. 통사적 현상 층위

이 절에서는 수사의문문에서만 나타나는 다양한 통사적 현상을 다룬다. 먼저 의문사 후행 요소 및 의문사가 반복되는 현상을 통틀어 '되풀이 현상'이라는 이름 아래 함께 다룰 것이다. 다음으로 어떤 의문사와 그 의문사가 요구하는 대상이 한 의문문에서 공기하는 현상을 살펴본다.

표 7 수사의문문을 실현하는 통사적 현상

항목	예문
의문사 후행 요소의 되풀이	내가 언제 너를 만났어, 만나기는/를?
의문사의 되풀이	ㄱ. 뭐기는 뭐야? ㄴ. 누구기는 누구야? ㄷ. 어디긴 어디야? ㄹ. 언제긴 언제야? ㅁ. 어떻게긴 어떻게야? ㅂ. 왜긴 왜야?
의문사항과 대응하는 성분의 공기	내가 언제 두 시에 왔니? 세 시에 왔지.

3.4.1. 되풀이 현상

3.4.1.1. 의문사 후행 요소의 되풀이

설명의문문에서 서술어를 포함한 문장의 일부분이 반복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서술어에는 명사형 어미 '-기'가 결합하고 그 뒤에 조사 '은/는' 또는 '을/를'이 반드시 결합한다. 이렇게 반복되는 명사구는 문두, 문미, 문중 등 다양한 위치에 삽입될 수 있다.

(105) ㄱ. 내가 왜 안 오니, 안 오기는/를.
ㄴ. 담배를 누가 피워요, 피우기는/를.
ㄷ. 돈을 어째서 안 갚아요, 안 갚기는/를.
ㄹ. 어딜 가니, 가기는/를.

(김영희 2005:131)

(106) ㄱ. 알기는/를, 네가 뭘 알아.
ㄴ. 네가 뭘 알아, 알기는/를.
ㄷ. 네가, 알기는/를, 뭘 알아.
ㄹ. *네가 뭘, 알기는/를, 알아.

(김영희 2005:149)

(105)는 각각 서술어 '오다', '피우다', '갚다', '가다'에 '-기'가 결합한 명사구에 조사 '은/는' 혹은 '을/를'이 더해진 구성이 반복될 수 있음을 보이는 예이다. 이들의 의미는 각각 '나는 온다',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돈을 갚는다', '아무 데도 가지 않는다, 혹은 가지 못한다'로 풀이된다. (106)은 이 반복 구성이 각각 문두, 문미, 문중에 놓일 수 있음을 보이는데, 다만 동일하게 반복 구성이 문중에 끼어든 (106ㄷ)과 달리 (106ㄹ)은 문법적인 문장을 구성하지 못한다. 이때 (106ㄱ~ㄷ)의 의미는 반복 구성의 위치가 달라도 '너는 아무것도 모른다'로 동일하다.

한편 의문사 '무슨'이 쓰인 의문문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무슨'이 이끄는 명사구 뒤에 보조사 '은/는'이 바로 결합한 구성이 되풀이된다.

(107) ㄱ. 게임은 무슨 게임이야?
ㄴ. 무슨 게임이야, 게임은?

김영희(2005)에서는 이를 '되풀이 현상'으로 명명하였다. 되풀이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조건은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로, 되풀이 성분이 나타내는 사태가 발화 상황에 주어져 있거나 선행 맥락에서 언어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맥락적 증거가 주어져 있어야 한다. 둘째로, '진술'이나 '명령'과 같은 언표 내적 효력을 지니는 수사의문문에서만 되풀이가 일어날 수 있다.[21] 셋째로, 의문사가 포함된 설명의문문이어야 한다.[22] 여기서 첫 번째 조건은 본고에서 규정하는 수사의

21) 순수한 의문문은 되풀이를 할 경우 수사의문문으로 해석되지 않고 강조의 기능만 가진다고 김영희(2005)에서 기술하고 있다.

22) 김영희(2005:137)에서는 세 번째 조건은 앞의 조건들을 선결 조건으로 한다고 기술한다. 선결 조건인 '언표 내적 효력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의문사를 포함하더라도 되풀이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하며, 그 예로 '얼마를 챙겼어?'와 같이 수량 의문사를 포함하는 의문문은 순수 의문문이므로 되풀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수량 의문사를 포함하더라도 '그게 얼마나 한다고 그러니?'와 같이 진술의 수사의문문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얼마나'가 포함된 수사의문문에서 되풀이가 어려운 이유는 진술 및 명령의 기능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보다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있을 듯하다.

문문의 발화 배경에 포함되므로,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되풀이 현상은 '진술 혹은 명령의 화행을 가지며 설명의문문의 형식을 한 수사의문문에서만 일어날 수 있다'고 하겠다.

수사의문문에서 되풀이될 수 있는 범위는 의문사에 후행하는 성분들로 제한되며, 여기엔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포함된다. 서술어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는 문법적인 문장을 성립할 수 없다.

(108) ㄱ. 왜 천천히 걸어, 천천히 걷기는/를.
ㄱ´. 왜 천천히 걸어, 걷기는/를.
ㄱ´´. *왜 천천히 걸어, 천천히는/를.

(김영희 2005:145-146)

(108)은 의문사 '왜'에 후행하는 성분 중 서술어를 필수적으로 포함하는 범위만이 되풀이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108ㄱ, ㄱ´)과 달리 (108ㄱ´´)은 서술어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되풀이를 할 경우 비문이 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되풀이되는 성분은 문두, 문미, 문중에 위치할 수 있으나, 문미에 위치하지 않는 이상 의문사에 후행할 수는 없다는 특징을 가진다.

(109) ㄱ. 부르기는/를, 누가 너를 불러.
ㄴ. 누가 너를 불러, 부르기는/를.
ㄷ. *누가, 부르기는/를, 너를 불러.
ㄹ. *누가 너를, 부르기는/를, 불러.

(김영희 2005:150)

되풀이 현상에는 '서술어 시상의 중화' 현상이 동반될 수 있다(이창덕 1992:169). 대화상대방의 말에 되풀이가 일어난 수사의문문으로 답할 경우, 선행 발화에 사용된 시제와는 관계없이 수의적으로 서술어의 기본형이 사용될 수 있다.

(110) ㄱ. A: 철수 어제 학교에 갔니?
B: 가긴 뭘 가?
B: *안 가.
ㄴ. A: 설악산에 여행 갔었지?
B: 설악산에 여행을 언제 가냐?
B: *설악산에 여행 가지 않아.
ㄷ. A: 어제 여기 비 왔지?
B: 비는 무슨 비가 와?
B: *어제 여기 비 안 와.

(이창덕 1992:170)

위 예문 (110)에서 B의 발화는 모두 수사의문문으로, A의 발화를 부정하는 데 쓰였다. 특징은 A가 발화하는 의문문의 시제는 과거형인 데 반해 B의 발화에서는 과거형이 쓰이지 않아도 자연스럽다는 것이다. 반면 대응하는 진술문의 경우 기본형이 사용될 수 없다는 점에서 수사의문문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으로 주목할 만하다.

이상과 같은 되풀이 문장에서 파생된 구어적 형식 '-긴'을 함께 살펴볼 만하다. 포연(2016)에서는 구어에서 자주 출현하는 '-긴'을 의문사 후행 요소가 되풀이되는 문장에서 후행 요소의 생략이 이루어진 다음, '-긴'('-기는')이 탈종속화를 겪은 결과 탄생한 것으로 보고 이를 '부정 및 반박'의 기능을 가지는 '-긴1'과 '평가'의 기능을 가지는 '-긴2'의 두 가지로 나누었다.[23] '-긴1'은 다시 '명제 부정'의 기능을 하는 '-긴1-1'과 '상위언어적 부정'의 기능을 하는 '-긴1-2'로 나뉜다.

(111) ㄱ. A: 그쪽은 월급 많이 받아요?
B: <u>많긴요</u>. 새벽까지 부려먹으면서, 월급은 쥐꼬리만큼 주고. 나 참 더러워서 때려치우든지 해야지.

23) 그런데 전체 절을 수사의문문으로 복원할 수 있는 '-긴1'과 달리 '-긴2'는 후행 요소를 복원하기가 쉽지 않다. 이때 후행 요소가 복원된 전체 문장이 평서문 혹은 수사의문문일 가능성이 제기되었다(포연 2016:48).

ㄴ. A: 갔다 와서 할 거야.
B: 갔다 와서 하긴. 안 돼. 들어와.

ㄷ. A: 그래도 멋있어 보인다, 너.
B: 멋있긴.

(포연 2016:15-20)

위 예문에서 B의 발화 속에서 '-긴'으로 종결된 문장은 순서대로 '많긴 뭐가 많아요?', '갔다 와서 하긴 뭘 갔다 와서 해?', '멋있긴 뭐가 멋있어?'와 같은 수사의문문에서 '-긴'으로 끝나는 되풀이 구성 뒤의 성분이 생략된 것으로 분석된다.

'-긴1-1'은 기본적으로 '명제 부정'의 기능을 갖는데, 구체적으로는 부정(111ㄱ), 거절 및 금지(111ㄴ), 겸양 표시(111ㄷ) 등에 사용된다. (111ㄴ)은 전형적이고 직접적인 금지 표현에 비해 강도가 낮아 화자의 의사가 완곡하게 전달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더불어 (111ㄷ)은 상대방의 칭찬을 공손하게 부인하는 데 사용되었다. 본래 강한 진술이나 명령 등을 나타내는 수사의문문에서 비롯된 '-긴'이 이렇듯 그 기원과는 다르게 완곡함이나 공손함을 나타낼 수 있게 된 것은 공손 책략에서 설명하는 "'문장을 완성하지 마라(be incomplete)'나 '생략을 이용하라'"라는 전략과 맥을 같이한다(포연 2016:23). 수사의문문의 후행 요소를 생략한 결과 명령의 경우는 그 강도가 약해지고, 상대방의 칭찬에 대한 반응으로 쓰일 때는 단호하게 부정할 때보다 공손성이 높아질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역으로, '-긴'의 기원이 되는 수사의문문의 발화수반력이 그만큼 강력함을 뜻하기도 한다.

한편 아래와 같이 '-긴' 이나 '은/는' 뒤의 동사구만 생략되고 의문사만 남은 형태가 쓰이기도 한다.[24)]

(112) ㄱ. 유나: 저희 엄마의 마지막을,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4) '-긴'뿐만이 아니라, '무슨'에 후행하는 명사구에 '은/는'이 결합한 되풀이 구성 또한 "진실게임은 무슨?"(서희정·홍윤기 2011:234)처럼 의문사만 남은 형태로 쓰일 수 있다.

심덕: 고맙긴 뭘.

ㄴ. 영희: 혹시 엄마, 촬영 못해서 삐진 거야?

소정: 삐지긴 누가?

(서희정·홍윤기 2011:234)

이상에서 의문사에 후행하는 성분의 되풀이 현상을 살펴보았는데, 수사의문문은 의문사가 되풀이되어 형성되는 수도 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후행 성분이 생략되어 '-긴'으로 종결되는 문장 형태가 구어에서 사용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되풀이 문장과 그에서 파생된 '-긴' 문장은 의문사에 후행하는 성분이 되풀이된 문장과는 다른 기능을 갖게 되는데, 이를 다음 절에서 이어서 알아보도록 한다.

3.4.1.2. 의문사의 되풀이

앞서 살펴본 되풀이 현상이 의문사에 후행하는 성분의 되풀이라면, 의문사가 되풀이되어 수사의문문을 형성하는 경우도 관찰된다.

(113) ㄱ. 뭐{?는, 기는} 뭐야?[25]

ㄴ. 누구{는, 기는} 누구야?

ㄷ. 어디{는, 기는} 어디야?

ㄹ. 언제{는, 기는} 언제야?

ㅁ. 어떻게{는, 기는} 어떻게야?[26]

ㅂ. 왜{는, 기는} 왜야?

ㅅ. 무슨 일{은, 이기는} 무슨 일이야?[27]

---

25) 다른 의문사들과 달리, '뭐' 뒤에는 '-기'가 생략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26) 류현미(1994:136)에서는 이 중에서 '어떻게'는 제약을 가진다고 주장하며, 그 이유를 '어떻게'는 '-이-'와 결합하여 서술어 자리에 오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같은 논문 135면에서 '어떻게는 어떻게야?'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어떻게'가 무리 없이 '-이-'와 결합해 있다(어떻게-이-야). 본고의 판단으로도 이러한 문장은 자연스러우므로, 여기서는 '어떻게는 어떻게야?'와 '어떻게기는 어떻게야?'를 모두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본다.

27) 후행하는 명사구 없이 단독적으로 쓰일 수 없는 '무슨'은 예외적으로 후행 성분을 동

이때 첫 번째로 출현하는 의문사에는 반드시 보조사 '은/는'이 결합하되, 의문사에 직접 결합할 수도 있고 '-이다 + -기' 뒤에 결합할 수도 있다. 이때 의미의 차이는 관찰되지 않는다. '은/는'이 의문사와 결합했다는 사실은 위 의문문이 일반적으로 정보를 구하는 의문문이 아님을 명시적으로 나타내 주기도 한다. 의문사에 화제 표지 '은/는'이 붙을 수 없음은 앞절에서 '의문사 + 은/는' 형식("누구는 돈이 없냐?")을 설명할 때 보인 바 있다.

의문사가 되풀이되는 수사의문문의 특징은 대화상대방이 선행 발화로 설명의문문을 발화했을 때 그에 대한 응답으로 발화된다는 점과, 해당 선행 의문문에 쓰인 의문사가 수사의문문에서 되풀이된다는 점이다.

(114) ㄱ. A: 왜 그 아이를 때렸니?
B: 왜{는/기는} 왜야?
ㄴ. A: 너는 어디 갔다 온 거야?
B: 어디{는/기는} 어디야?
ㄷ. A: 누가 우승을 했니?
B: 누구{는/기는} 누구야?
ㄹ. A: 어떻게 돈을 모은 거야?
B: 어떻게{는/기는} 어떻게야?

(류현미 1999:137)

앞서 의문사 후행 요소가 되풀이될 때도 되풀이 성분이 나타내는 사태가 발화 상황에 주어져 있거나 선행 맥락에서 언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전제가 되었다. 의문사가 되풀이될 때는 해당 의문사가 선행 발화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되풀이 문장이 갖는 기능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의문사가 되풀이되는 수사의문문이 의문사 후행 요소가 되풀이되는 수사의문문과 구별되는 점은 '상위언어적 부정' 기능을 갖는다는 것이다.

반한다. 앞서 의문사의 후행 요소가 되풀이될 때와는 달리, 이때는 '이다'와 함께 '-기'가 결합할 수 있다.

상위언어적 부정이란 명제적 부정과는 달리 선행 발화의 다양한 국면을 부정의 대상으로 하는 것을 가리킨다. 예문 (114)는 명제 내용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선행하는 상대방의 질문 행위 자체의 적절성을 부정하고 비판하는 기능을 갖는다. 여기서 질문 행위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평가하는 이유는 해당 질문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질문자가 능히 알 수 있기에 물어볼 필요도 없다고 화자가 생각하기 때문이다.

의문사의 후행 요소가 되풀이되는 수사의문문과 마찬가지로, 의문사가 되풀이되는 수사의문문에서도 후행 요소를 생략하여 '-긴'으로 종결되는 구어 형식을 형성할 수가 있다.

(115) A: 아니, 왜요?
B: <u>왜긴...</u> 몰라서 물어요?

(포연 2016:30)

이때의 '-긴'을 포연(2016)에서는 '-긴1-1'과 구별하여 '-긴1-2'으로 명명하였다. 그 기원이 되는 수사의문문과 마찬가지로 '-긴1-2'는 선행 발화의 적절성을 문제 삼는 데 사용된다. 가령 위 (115)에서 B는 A의 '왜요?'라는 물음에 '왜긴'이라고 답하는데, 'A 또한 그 이유를 충분히 알 법하므로 물어볼 필요도 없음'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것은 A의 질문 행위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는 이유가 된다.

3.4.2. 의문사항과 대응하는 성분의 공기

일반적인 설명의문문의 경우, 의문사에 대응하는 성분은 한 문장 안에 나타나기 어렵다.

(116) ㄱ. 철수가 {언제/두 시에/*언제 두 시에} 학교에 갔니?
ㄴ. 내가 {누구를/철수를/*누구를 철수를} 만났니?
ㄷ. 너 {거기서/어디서/*거기서 어디서} 그것을 주웠니?

ㄹ. 영희는 {무엇을/빵을/*무엇을 빵을} 먹었니?
ㅁ. 이 기계는 {이렇게/어떻게/*이렇게 어떻게} 작동하니?

(이창덕 1992:169)

위 의문문에서는 화자가 알지 못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 그 정보에 해당하는 의문사가 사용되므로, 그에 대응하는 성분이 함께 쓰이지 못한다. 그러나 수사의문문에서는 이것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28]

(117) ㄱ. 내가 언제 두 시에 왔니? 세 시에 왔지.
ㄴ. 왜 바빠서 못 오니? 성의가 없어서 못 오지.
ㄷ. 뭘 밥을 먹니? 조금 있다가 저녁 먹으면 되지.
ㄹ. 네가 뭐가 바빠? 항상 집에만 있잖아.

(118) ㄱ. *누가 철수가 거길 가?
ㄴ. *내가 누구를 철수를 만났니?
ㄷ. *어디서 거기서 그것을 주웠니?

(이창덕 1992:169)

위 예문들에서는 의문사와 그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성분이 한 문장 내에서 함께 나타나고 있다. (117ㄱ~ㄹ)의 밑줄 친 수사의문문은 상대방의 선행 발화를 부정하거나 그에 동의하지 못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118)에서 볼 수 있듯 모든 의문사가 대응하는 성분과 공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8) 아래 (117) 중 (117ㄹ)을 제외한 (117ㄱ~ㄷ)은 이창덕(1992:169)에서 인용하였다.

4. 한국어 수사의문문의 의미적 실현 요소

이 장에서는 형식적인 실현 요소나 문장 바깥, 즉 화맥에서 얻을 수 있는 단서를 제외하고 의문문 내에서 수사의문문임을 판별할 수 있게 하는 의미적 요소를 살펴보고자 한다. 물론 의미를 이해하는 일이 화용적인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것인 만큼, 여기에 화용적인 정보가 완전히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의미에서 화용적인 측면을 완전히 분리해 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 담화에서 어떤 의문문이 수사의문문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데 문장 외부의 구체적인 장면이 큰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앞뒤 발화나 구체적인 대화 상황, 개별 대화참여자만이 공유하는 정보 등을 배제한 다음에도 거의 고정적으로 수사의문문으로 해석되게 하는 내용들이 존재한다면 이들이 그만큼 구체적인 맥락을 떠나 관습화되어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본고는 그러한 것들이 수사의문문의 성격을 잘 나타내 줄 것이라고 기대한다.

수사의문문이 맥락과 독립될 수 있다면, 이는 그 내용이 언어 사용자들이 공유하는 지식, 규범, 가치관 등에 의거하고 있기 때문이다(이경희 2011:37). 화청자가 모두 가지고 있다고 전제되는 언어외적인 경험적 지식으로 판단했을 때 일반적인 의문문으로 간주하기 어렵게 하는 내용으로 명제가 구성되어 있다면(김종현 2004:140-141) 이들은 맥락과 관계없이 대체로 수사의문문으로 해석된다. 이렇게 일반적이고 전형적인 상식들이 구체적인 대화 상황을 넘어, 대부분의 대화참여자들의 공통 기반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Gunlogson 2001:40).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그러한 일반적인 내용들을 수사의문문의 의미적 실현 요소로 보고, 크게 '일반적 통념과의 대립', '항진명제', '화자 자신의 심리나 지식', '대상의 온전한 상태 및 태도에 대한 의심'으로 나뉘는 것을 확인한다.

4.1. 일반적 통념과의 대립

의문문의 내용이 해당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일반적인 지식에 대립하는 경우, 물어볼 것도 없이 그 답은 부정적일 것이므로 순수한 의문문으로는 잘 해석되지 않는다. 해당 언어가 사용되는 배경 문화에 따라서 구체적인 내용은 차이를 보일 것이나, 언어가 표현하는 의미는 여러 다른 언어에 걸쳐서 보편적인 만큼, 이러한 방식도 언어 보편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생각된다. Špago(2016)에서는 영어에서 나타나는 수사의문문의 의미적 표지(semantic indicator)로 '의미적으로 양립불가능한 개념들의 결합', '분명히 소용이 없는 무언가의 효용에 대한 물음', '청자가 불쾌한 것을 희망하거나 좋다고 여기는지에 대한 물음'을 든 바 있다.

먼저, 의미적으로 양립불가능한 개념들이 결합해 의문문을 이루는 경우 자주 수사의문문으로 해석되는 것을 볼 수 있다.

(1) ㄱ. 그런다고 죽은 애가 다시 살아 돌아와? <흔들리지 마 142회>

ㄴ. <u>보이는데 어떻게 안 봐!</u> 반지 두 개가 아주 쌍으루 엄마 눈을 호벼 파는데 어떻게 안 봐! <다시 시작해 33회>

(1ㄱ)에서 이미 '죽은 애'가 '다시 살아 돌아오는' 일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으므로 두 개념은 양립이 어렵다. 따라서 해당 문장은 '그런다고 죽은 애가 다시 살아 돌아 오지 않는다'는 반대 극성으로 이해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1ㄴ)에서 이미 눈에 '반지가 보이는데' 동시에 그것을 '안 보는' 것은 모순되므로, 해당 의문문은 '안 볼 도리가 없다'는 의미를 강조하는 의미로 이해된다.

다음으로, 소용이 없어 보이는 사물이나 행위의 효용을 묻는 의문문 또한 수사의문문으로 해석되기 쉽다.

(2) ㄱ. 죽어서 유명해지면 뭐해? <옥션 하우스 2회>

ㄴ. 출품작이 없으면 도록이 무슨 소용이지? <옥션하우스 6회>

(2ㄱ)의 '죽어서 유명해지는 것'과, (2ㄴ)의 '출품작이 없는 상황에서의 도록'은 상식적으로 의미가 없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효용을 묻는 위와 같은 의문문은 반대로 의미가 없다는 수사의문문으로 해석됨이 자연스럽다.

또 불쾌한 것을 희망하거나 좋다고 여기는지 청자에게 묻는 의문문 또한 수사의문문으로 자주 해석된다.

(3) ㄱ. 넌 니 오빠가 이혼당했으면 좋겠어? <당신 참 예쁘다 86회>
ㄴ. 넌 니 애미가 계속 안 낫고 아팠으면 좋겠니? <그분이 오신다 91회>
ㄷ. 누가 너랑 재숙이랑 비교하면 좋아? <그분이 오신다 79회>
ㄹ. 너 이 녀석! 파리채로 맞고 싶어? 어떻게 책상 앞에 십 분을 못 앉아 있어? <살맛납니다 100회>

(3ㄱ)의 '청자의 오빠가 이혼을 당하는 것', (3ㄴ)의 '청자의 엄마가 계속 아픈 것', (3ㄷ)의 '청자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것', (3ㄹ)의 '화자에게 맞는 것'은 모두 일반적으로 청자에게 좋지 않거나 해가 되는 일들이다. 청자를 포함한 일반 사람들이 이러한 일들을 바람직하게 여기지 않을 것은 당연하므로, 청자가 이를 바라는지를 물어보아야 하는 상황은 흔치 않다. 따라서 특별한 상황을 상정하지 않는다고 할 때 일반의문문으로의 해석이 배제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이러한 수사의문문이 발화되는 동기는 청자의 선행 행위나 발화에 있다. 청자의 말이나 행동에서, '청자가 그러한 불쾌한 사태들을 바라고 있다'를 보여 주는 맥락적 증거가 발생할 때 위와 같은 수사의문문이 발화되는 배경이 된다. 예를 들어 (3ㄹ)의 경우, 공부를 하라고 시켰는데 책상 앞에 십 분도 앉아 있지 않는 청자의 행동에서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을 보니, 내게 맞고 싶어 하는 것이다'라는 편향이 발생함으로써 '맞고

싶지 않을 텐데, 왜 말을 안 듣느냐'는 의미의 수사의문문이 발화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불쾌한 행위나 득이 되지 않는 행위에 대한 이유나 목적을 묻는 의문문도 수사의문문일 가능성이 높다.

(4) ㄱ. 순상: 집 나간다더니?
덕희: 저렇게 잘난 아들을 두고 내가 왜 집을 나가요?
순상: 하여간…….
<금 나와라 뚝딱 40회>

ㄴ. 시완: 그냥 제가 했다고 할게요. 그렇게 마무리 짓는 게 낫겠어요.
은지: 그걸 왜 니가 뒤집어 써! 이모한테 딱 방법이 있어.
<스탠바이 55회>

ㄷ. 건: 왜 울어? 누구 좋으라고 울어요, 지금!
미영: 눈물이 나오는 걸 어떡해요!
<운명처럼 널 사랑해 2회>

(4ㄱ, ㄴ)의 '잘난 아들을 두고 집을 나가는 일', '남의 잘못을 뒤집어 쓰는 일'은 유쾌한 행위도 아니고 일반적으로 득이 되는 일도 아니다. 이때 (4ㄱ, ㄴ)의 의문사 '왜'는 부정 전칭 양화로 해석되어, (4ㄱ)은 '저렇게 잘난 아들을 두고 내가 집을 나갈 이유가 없다, 그러니 집을 나가지 않을 것이다'로, (4ㄴ)은 '네가 그걸 뒤집어 쓸 이유가 없다, 그러니 뒤집어 쓰지 마라'로 이해된다. (4ㄷ)과 같이 누가 봐도 행위의 주체에게 득이 되지 않는 행위를 하는 목적을 물을 경우에도 대체로 수사의문문으로 해석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때 '우는 것은 득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

또, 다음과 같이 의문문이 통념상 용납되지 않거나 불쾌한 행위를 하는 방법을 물을 때 수사의문문일 가능성이 높다.

(5) ㄱ. 그렇다고 어떻게 애미가 돼서 아들이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걸 두 손 놓고 보고 있어? <빛나는 로맨스 5회>
ㄴ. 그렇게 순하고 착한 애한테 어떻게 그런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씌울 수가 있어? <전설의 마녀 8회>
ㄷ. 오빠,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뻔뻔할 수가 있어요? <오늘만 같아라 93회>

(5ㄱ)은 '엄마가 아들이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걸 두 손 놓고 보고 있는' 행위, (5ㄴ)은 '순하고 착한 애한테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씌우는' 행위, (5ㄷ)은 '뻔뻔스럽게 구는' 행위 등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이러한 행위들은 일반적으로 용인이 어렵거나 불쾌한 성격을 지니므로, 이들을 행하는 방법을 화자가 정말로 궁금해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어렵다. 따라서 대체로 수사의문문으로 해석된다.

그 밖에 기타 일반적인 통념과 대립하는 내용을 포함한 의문문은 대체로 수사의문문으로 해석되는 것을 알 수 있다.

(6) ㄱ. 남의 것을 훔치면 되니?
ㄴ. 이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 있니? (이창덕 1992:139)

(6ㄱ)은 일반적인 윤리관에 비추어 보았을 때 '남의 것을 훔치면 안 된다'를 의미하는 수사의문문으로 해석된다. (6ㄴ)은 '세상 사람들은 모두 돈을 좋아한다'는 통념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이 의문문이 통념에 대립하는 명제 내용에 대해 질문할 때 대체로 일반의문문의 해석이 배제되는 것을 알 수 있다.

4.2. 항진명제

항진명제란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참인 명제를 가리킨다. 한국어 항진명제는 주로 'X는 X다' 꼴을 취하는데, 그밖에 'X가 X다', 'X도 X다'와

같이 다른 조사가 결합한 형식 또한 한정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관찰된다. 다만 이때는 'X는 X다' 형식이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의미보다 한정된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으로 보아, 하나의 굳어진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봄이 적절하겠다(전혜영 2012:283).

(7) ㄱ. 인간은 인간이다.
ㄴ. 좋은 게(것이/?것은) 좋은 거야.
ㄷ. 그놈(이/?은) 그놈이다.
ㄹ. 거기(가/?는) 거기다.
ㅁ. (나도 나지만) 너도 너다.(이정애 2010: 191)

(전혜영 2012:282-283)

모든 명사가 항진명제에 출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전혜영(2012)에서는 항진명제 표현인 'X는 X다'에서 'X'에 들어가는 명사의 성격을 '사회·문화적 통념', '높은 인지도', '특수한 경험과 지식의 공유'의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즉 해당 사회에서 관련된 통념이 사회·문화적으로 공유되고 있거나, 인지도나 대표성을 띠는 명사, 화자와 청자가 관련된 경험이나 지식을 공유하고 있는 명사라야 항진명제 표현에 출현할 수 있다는 조건을 지닌다.

항진명제는 논리적으로 당연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의미 있는 정보를 담고 있지 않아 양의 격률을 위반한 것으로 생각되기도 한다. 그러나 대화의 협동 원리가 작용하고 있음을 상정한다면 화자가 양의 격률을 위반함으로써 의도한 바가 무엇인지 그 함축된 의미를 추론해 낼 수가 있다. 이때 대화의 맥락이 추론의 주요 근거가 되므로, 같은 문장일지라도 맥락에 따라 다양한 해석을 가질 수 있다.

이정애(2010)는 항진명제의 의미를 바탕으로 그 유형을 '일반화의 인식과 부정', '인간 본성에 대한 체념적 인식', '현실 상황의 수용', '차이에 대한 인식', '차이 없음의 인식', '한계에 대한 인식', '바꿀 수 없는 사실', '강조' 등으로 분류하였다. 그중에서도 '일반화의 인식과 부정'의 기능을

하는 항진명제로 이루어진 의문문은 수사의문문으로 해석된다.

(8) ㄱ. 학생이 다 학생이니?
ㄴ. 낳으면 다 부모냐?

(8ㄱ)은 기본적으로 '모든 학생이 학생인 것은 아니다'를 의미하는 수사의문문이며, 화맥에 따라 '공부를 착실히 해야 진정한 학생이라고 할 수 있다', 혹은 '성실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등 학생들도 다 제각각이다' 등 구체적인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8ㄴ)과 같이 동어 반복이 아닌 항진명제도 수사의문문이 될 수 있다. (8ㄴ)의 의미는 '아이를 낳았다고 다 부모가 아니다'로, 구체적인 의미는 화맥에 따라 결정될 것이나 '자기 아이를 정성껏 돌보아야 진정한 부모다' 등의 의미로 발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밖에 개체와 전체 집합의 관계를 나타내는 명제 또한 유사하게 기능하는 것이 포착된다.

(9) 그 개가 개냐? (이창덕 1992:143)

(9)에서 지시사가 결합한 구 '그 개'는 한정적인 개체를 지시하고 있는데, 이 개체가 전체 집합 혹은 상위어인 '개'에 속하는 것은 당연하다. (9)는 이에 대해 질문함으로써 '그 개는 개답지 않다'는 함축적인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위와 같은 문장들의 구체적인 해석은 맥락에 따라 결정되지만, 항진명제로 이루어진 의문문이라는 점만으로 수사의문문임을 바로 알 수 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4.3. 화자 자신의 심리나 지식

화자 자신의 심리, 지식 등에 대한 질문 또한 수사의문문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다. 화자의 감정이나 지식은 본인이 가장 잘 알 것으로 생각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질문할 경우 일반적으로 정보를 구하는 의문문으로 해석되기가 어렵다(이창덕 1992:146).

(10) ㄱ. 지금 내 기분이 어떻겠냐? 생각을 해 봐라. (이창덕 1992: 146)
ㄴ. 걱정하지 마. 내가 누구냐?
ㄷ. 그걸 내가 알아?

(10ㄱ)은 '지금 자신의 기분이 어떠한지'를 청자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화자의 기분을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데도 기분을 알아주지 않는 데 대한 불만 표시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10ㄴ)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나는 이 일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사람이다'를 의미하는 강한 단언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10ㄷ)은 화자가 자신의 지식에 대해 청자에게 질문을 하여 정보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자면 어색하다. 이때는 '나도 그것을 모른다'를 의미하는 강한 단언으로 해석됨이 자연스럽다.

4.4. 대상의 온전한 상태 및 태도에 대한 의심

먼저 어떤 대상, 주로 청자가 보통의 상태에서 벗어난 것인지를 묻는 의문문은 수사의문문으로 굳어지기도 한다.

(11) ㄱ. 왜 끊어? 너 바보야? 할 말은 해야 할 거 아냐. <그분이 오신다 47회>
ㄴ. 너 미쳤어? 니가 왜 내 집에 들어와 있어? <다시 시작해 102회>
ㄷ. 2천 빌려 가 놓고 겨우 5백? 장난하냐? <민들레 가족 13회>

(11ㄱ)은 대상(청자)이 '바보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 묻는 의문문으로는 보기 어렵다. (11ㄴ) 또한 대상이 '정신적인 문제가 생겼는지, 아닌지'를 물을 때는 발화되지 않는다. (11ㄷ)은 대상이 일반적으로 타인에게 기대되는 진실된 태도에서 벗어나 있는지를 묻고 있으나, 정말로 그 여부를 알기 위한 의문문은 아니다.

이들은 대상의 선행하는 행동이나 발화로 인해 대상의 온전한 상태나 태도가 의심이 될 때, 그러한 행동이나 발화를 나무라는 기능을 갖는다. 즉 (11ㄱ)의 밑줄 친 의문문은 '할 말을 다 하지 못하고 전화를 끊어버린' 상대의 행동이 바보처럼 보여 발화된 것이며, (11ㄴ)의 밑줄 친 의문문은 '자신의 집에 들어와 있는' 상대의 행동이 제정신이 아닌 사람의 행동으로 판단되어 발화된 것이며, (11ㄷ) 또한 '2천만 원을 빌려 가 놓고 5백만 원만 돌려주는' 상대의 행동은 진지하다고 믿기 어렵다는 뜻에서 발화되어 대상의 선행 발화나 행동을 비난한다.[29]

또, 어떤 대상이 무언가를 존중하지 않고 있는지 묻는 의문문이 수사의문문으로 굳어져 쓰일 때가 있다.

(12) ㄱ. <u>너 내가 우스워?</u> 생일파티 안 간다니까 문자는 왜 보내? <스탠바이 98회>

ㄴ. 미국으로 간다는 이유가 너무 유아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니? <u>세상이 그렇게 만만해?</u> 어떻게 재미가 없어서 떠나. <엄마의 정원 36회>

ㄷ. <u>회의가 장난이야?</u> 벌써 11시가 넘었는데 김 피디 왜 아직 안 와? <스탠바이 25회>

ㄹ. 거짓말! <u>날 바보로 알아?</u>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끝까지 발뺌할 셈이야? <왔다! 장보리 45회>

---

29) 비단 한국어뿐만 아니라 (11ㄱ~ㄷ)에 각각 대응하는 표현으로 영어의 'Are you a fool?', 'Are you crazy?', 'Are you kidding?'이 존재하고, 이들 또한 답을 구하는 일반적인 의문문으로 해석되지 않고 주로 청자를 비난할 때 쓰이는 데서 이러한 의미적 실현 요소의 보편성을 찾을 수 있다고 하겠다.

(12ㄱ~ㄹ)은 각각 '청자에게 화자가 우스운지', '청자에게 세상이 만만한지', '회의가 장난인지', '화자를 바보로 아는지'를 알고자 묻는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은 수사의문문은 선행하는 행동이나 발화에서 청자가 존중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날 때, 그러한 행동이나 발화를 나무라는 기능을 갖는다. (12ㄱ)에서 '생일파티에 가지 않는다고 했는데도 화자에게 문자를 보낸' 청자의 행동, (12ㄴ)에서 '재미가 없다는 이유로 미국행을 결심한' 청자의 행동, (12ㄷ)에서 '12시가 넘었는데 회의에 오지 않는' 김 피디의 행동, 마지막으로 (12ㄹ)에서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발뺌하는' 청자의 행동으로부터 대상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맥락적 편향이 형성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발화된 수사의문문은 그런 상대를 비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4.5. 수사의문문 실현 요소의 의미적 분류

이상 3, 4장에 걸쳐 한국어에서 수사의문문의 해석에 기여하는 형태소, 단어, 구문, 숙어 및 속담, 통사적 현상, 그리고 의미적 요소를 살펴보았다. 이 절에서는 이들에게서 의문문을 수사의문문으로 해석되게 만드는, 어떤 의미적인 공통점이나 경향성을 찾을 수 있는지 살펴본다.[30]

첫째, 명제 내용이 실현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화자의 판단을 나타내는 형식적 요소는 의문문을 수사의문문으로 해석되게 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것은 앞에서 세상에 대한 일반적인 통념과 대립하는 내용을 의문문이 포함할 때, 명제 내용의 실현 가능성을 떨어뜨려 수사의문문으로 해석되기 쉽다는 사실과 궤를 같이한다.

(13) ㄱ. 아무리 쓸고 닦<u>은들</u> 이 너저분한 집이 깨끗해지니?

30) 이 절에서는 앞에서 다룬 형식적 요소 중에서도 양태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으며 양태적 의미가 수사의문문의 해석에 기여한다고 판단되는 요소만을 분류의 대상으로 삼는다. 수사의문문에만 출현하는 요소는 그 의미를 수사의문문과 분리하여 생각하기 어려우므로 분류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내용과 공기하는 요소들, 관습적으로 굳어진 표현들 일부는 양태적 의미를 찾기 어려워 제외되었다.

ㄴ. 아무리 그가 좋기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니?
ㄷ. 지지율 까짓거, 제가 아무리 높아 봤자 뭐하겠습니까.

'-ㄴ들'과 '-기로', '-어 봤자'는 양보를 나타내며, 선행절 명제 내용의 결과로 기대되는 내용이 후행절에서 부정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선행절 내용에서 비롯되는 기대가 실현될 가능성이 떨어짐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14) ㄱ. 홍길동이 설마 맨손으로 호랑이를 잡았겠습니까?
ㄴ. 차마 혼자 갈 수 있습니까?
ㄷ. 어쩌면 이렇게 곱냐.

'설마'는 '그럴 리는 없겠지만'으로 풀이되고, '차마'는 '애틋하고 안타까워서 감히', '아무리 해도'로 풀이되는바, 사태에 대해 화자가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쩌면(어쩜)'은 후행하는 사태가 '도대체 어떻게 하여서' 발생할 수 있는지를 묻는 데 사용되는데, 여기에는 사태가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화자의 판단이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15) ㄱ. 이름만 그럴싸하게 붙이면 다예요?
ㄴ. 많이 아프냐고 물어주면 어디가 덧나?
ㄷ. 그것을 알면 내가 천재게?

'-(으)면 다이-', '-(으)면 (어디가) 덧나-'가 쓰인 (15ㄱ, ㄴ)에서는 후건이 부정된다. 조건문 형식의 수사의문문에서는 후건이 현실세계에서 화자나 청자의 기대에 위배되거나, 거부감을 주는 명제 내용을 담고 있을 경우 후건이 부정되는 특징을 지닌다. 결과적으로 위 수사의문문의 화자는 후건절의 성립 가능성이 부정되어야 함을 단언하는 것이 된다. '-(으)면 -게'가 쓰인 (15ㄷ)에서는 먼저 후건에서 현실과는 다른 비현실적인 내용이 제시함으로써, 후건의 조건이 되는 전건마저 현실성이 떨어짐을

나타낸다.

낮은 실현 가능성이 수사의문문의 해석에 관여한다는 점은 '-겠-'이 수사의문문과 자주 어울린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의문문에서 '-겠-'의 첨가 여부는 맥락에 따라 의문문의 종류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주기도 한다.

(16) ㄱ. 제가 안 하면 누가 합니까?
ㄴ. 제가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전혜자 2013:72)

(16ㄱ)은 '어떤 사람이 그 일을 할 것인지'를 묻는 일반적인 의문문으로도 해석될 수 있고, 동시에 '나밖에는 그 일을 할 사람이 없다'를 의미하는 수사의문문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중의적인 의문문으로, 그 적절한 해석은 화맥에 따라 정해진다. 반면 '-겠-'이 첨가된 (16ㄴ)에서는 일반적인 의문문의 해석이 배제됨을 알 수 있다(전혜자 2013:74). '-겠-'이 결합하지 않은 의문문도 맥락에 따라 수사의문문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이와 같이 '-겠-'이 결합하면 '명제 내용이 비현실적임'이 강조되어 수사의문문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다.

둘째, 명제 내용이 실현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는 화자의 판단을 나타내는 요소가 의문문에 쓰이면 수사의문문으로 해석되는 경향을 보인다. 항상 참일 수밖에 없어 그 자체로 실현 가능성이 높은 항진명제가 의문문으로 발화되면 수사의문문을 구성하는 것과 유사하다.

(17) ㄱ. 아무 가죽으로 만들<u>어서야</u> 누가 그 신을 신겠는가?
ㄴ. 물건만 좋다<u>면야</u> 값이 문젠가.

보조사 '야'는 명제에 '당위'라는 의미를 더해 주며, 연결어미에 '야'가 붙은 '-어서야'와 '-면야'도 유사한 의미를 더한다.

(18) ㄱ. 선생님께서 직접 하신 일인데 어련하시겠습니까.
ㄴ. 아들놈 그만큼 키웠으면 이제 밥벌이야 어련히 알아서 안 할까.
ㄷ. 그 아이는 쪽지시험에도 밤을 새우며 공부하는데 하물며 중간고사는 얼마나 열심히 하겠니?
ㄹ. 아무려면 우리 세훈이가 그런 인간 같지 않은 짓을 했을까?

'어련하다'와 '어련히'는 '따로 걱정하지 아니하여도 잘될 것이 명백하거나 뚜렷하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하물며'는 앞 내용보다 뒤 내용을 더 강하게 긍정함을 나타낸다. 또한 '아무려면' 은 '말할 것도 없이 그렇다'는 의미를 지닌다.

(19) 너 좋아한다는 뜻이지 뭐야?

'-지 뭐-' 구문은 종결어미 '-지'로 인해 선행하는 명제가 화청자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라는 의미가 전달된다.

셋째, 상황이나 명제 전체에 대해, 평가절하를 비롯한 화자의 부정적 태도가 드러나는 경우이다. 의미적 요소 중에서는 대상의 온전한 상태 및 태도에 대한 의심이 담긴 의문문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먼저 대상의 상태가 온전한지, 태도가 존중적인지에 대해 묻는다는 것은 곧 상대의 선행하는 행동이나 발화가 온전하지 않은 상태나 존중적이지 못한 태도를 반영한다고 판단했음을 내포하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이나 발화에 대한 일종의 평가절하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0) ㄱ. 그것이 먹잘 것이라도 있습니까?
ㄴ. 철수가 꼼짝이나 합니까?

'이라도'는 앞말이 "최선의 것이 아니라 차선의 것"임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며, '이나'는 "마음에 차지 않는 선택, 또는 최소한 허용되어야 할 선택

이라는 뜻”, 혹은 빈정거리는 뜻을 나타낸다.

(21) ㄱ. 그걸 변명이라고 하니?
ㄴ. 그걸 그림이랍시고 그렸니?
ㄷ.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거짓말이냐.

‘이라고’, ‘답시고’, ‘의문사+-다고’는 공통적으로 화자의 못마땅함, 비동의 등을 드러낸다.

(22) 자박자박 걸어봤자 얼마나 갔을라구.

‘-어 봤자’는 선행절의 결과가 무용함, 혹은 선행절을 인정하되 그 정도가 대단하지 않음을 뜻하며 평가절하의 태도 또한 전달한다.

(23) ㄱ. 네가 뭐 사장이야?
ㄴ. 너는 그런 걸로 뭘 울어?

(24) 너는 어디 돼지 갈비를 사왔냐?

(25) ㄱ. 무슨 공부를 이렇게 오래 해?
ㄴ. 뭔 놈의 학이 한 마리 접는 데 30분이 걸려?

(23)의 담화표지 ‘뭐’는 명제에 대한 의문, 불쾌감, 비판적 태도를 표현한다. (24)의 담화표지 ‘어디’는 명제 내용에 대한 화자의 불쾌감 내지는 이해 불가의 태도를 표시한다. (25)에서 드러나듯이 ‘무슨’의 기능 중 일부는 한탄이나 불평 등 화자가 가진 부정적인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다.

(26) 감히 어떻게 제가 선생님 흉을 볼 수 있습니까?

‘감히’는 ‘두려움이나 송구함을 무릅쓰고’, ‘말이나 행동이 주제넘게’, ‘함부로’, ‘만만하게’ 등으로 뜻이 풀이되며, 명제 내용이 실현되어서는 안 되는 부정적인 사태라는 화자의 판단을 드러낸다.

(27) 그 비싼 걸 <u>뭐 하러</u> 사?

‘뭐 하러’는 해당 명제에서 나타내는 행위가 가치가 떨어짐을 나타내면서 ‘부정, 거절, 금지, 나무람’의 의미를 띤다.

표 8 형식적 실현 요소들의 양태 의미에 따른 분류

양태 의미	예
낮은 실현 가능성	-ㄴ들, -기로, 감히, 설마, 차마, 어쩌면(어쩜), -(으)면 다이-, -(으)면 (어디가) 덧나-, -(으)면 - 게
높은 실현 가능성	(이)야, -아/어서야, -면야, 어련하다, 어련히, 하물며, 아무려면(아무렴), -지 뭐-
평가절하	(이)나, (이)라도, (이)라고, 답시고, 의문사+-다고, -아/어 봤자, 뭐, 어디, 무슨, 감히, 뭐 하러

요약하면 수사의문문의 해석이 유도되는 데는 낮은 실현 가능성, 높은 실현 가능성, 평가절하의 태도 등을 드러내는 인식 양태 및 감정 양태 요소가 개입하는 것으로 보인다. 화자가 명제에 대한 자신의 강한 인식적 편향을 명시함과 동시에 명제에 대한 순수한 의문을 제기하는 일은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인 의문문으로 해석되지 않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다.[31] 이들로부터 화자의 태도가 명시적으로 드러난다면, 이와 더불어 일부 수사의문문 전용 표지(‘-ㄹ쏘냐’, ‘-을라고’, ‘오죽’

31) 유사하게, Huddleston(1994)에서는 영어에서 의문문을 편향적으로 만드는 요소인 편향 표지(Bias Markers)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그에 따르면 ‘no doubt’, ‘surely’, ‘of course’, ‘I take it that...’과 같은 표현이 이에 해당하며, 이들은 질문의 대상이 되는 명제적 내용의 바깥에 위치하며 질문자가 해당 의문문에 긍정적인 답을 기대하는지, 아니면 부정적인 답을 기대하는지를 표시한다고 보았다. 이는 양태 의미를 나타내는 다양한 요소가 화자가 명제에 대해 지니는 태도를 명시함에 따라 의문문을 수사의문문으로 해석되게 한다는 본고의 해석과도 일치한다.

등), 수사의문문에서 담화표지로 활용되면 그렇지 않을 때의 문법 제약이 해소되는 요소('뭐/뭘', '무슨' 등), 수사의문문에서만 나타나는 통사적 현상(되풀이 현상, 의문사항과 대응하는 성분의 공기 등), 수사의문문의 형태로만 사용되는 관용표현 등의 존재는 일반적인 의문문과의 차이를 표면적으로 드러내 주기도 한다.

이상은 수사의문문이 화자의 편향을 강력하게 표현하고 발화수반력을 강화하는 의문문임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바이다. 만약 한국어 수사의문문이 일부 선행연구의 주장과 같이 체면 위협 행위를 간접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방책으로서 발화수반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발화된다면, 수사의문문과 일반의문문 사이의 중의성을 제거하는 확실한 요소가 다수 관찰된다는 것, 그리고 일부는 수사의문문하고만 어울리는 전용 표지, 혹은 명제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판단 및 명제에 대한 태도를 명시적으로 표현하는 요소라는 것을 설명하기 어려워진다. 이러한 관찰을 따라, 수사의문문은 화자가 어떤 명제에 대해 맥락적 편향과는 대립하는 강한 편향을 가질 때, 그러한 편향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의문문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겠다. 이는 여타 의문문의 부류들 가운데서 수사의문문을 독보적으로 만드는 특징이라 할 것이다.

5. 결론

본고는 정보를 요구하는 일반의문문과는 다른 기능을 갖는 수사의문문의 전반적인 특성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수사의문문의 특징과 수사의문문이 담화에서 작동하는 방식을 설명하고, 여타 간접화행과의 차이점을 제시했으며, 의문문을 수사의문문으로 해석되게 하는 형식적, 의미적 요소에 대해 살펴보고 이들에게서 경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2장에서는 수사의문문의 전반적인 성격을 알아보기 위해 특징, 하위분류, 담화에서의 작동 원리, 여타 간접화행과의 차이를 살폈다. 수사의문문은 첫째, 형식은 의문문이지만 강한 단언, 비난, 명령, 감탄 등을 수행할 수 있고, 둘째로 청자에게 응답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나 의문문의 종류에 따라 응답을 오히려 요구할 수 있으며, 셋째로 대체로 극성이 전환된 함축을 가지나, 알려진 것과 달리 항상 극성이 전환되지는 않았다. 이러한 관찰을 바탕으로 수사의문문을 '형식, 발화 의도, 중의성 정도'를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다음으로, 화자가 수사의문문을 발화하는 배경과 청자가 수사의문문을 이해하는 과정을 밝혔다. 화자는 자신이 가진 믿음을 부정하는 상황을 마주했을 때, 그러한 믿음이 화청자의 공통기반에 있다는 전제를 공고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의문문을 발화한다. 한편, 청자는 질문 화행의 적정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수사의문문이 일반적인 의문문이 아님을 알 수 있으며, 상대가 협력적인 대화 상대라는 가정 아래 맥락적 단서를 활용해 수사의문문의 의미를 추론해 낸다는 것을 설명했다. 또한 일반적으로 간접화행이 요청이나 명령의 발화수반력을 약화하여 공손성을 높이는 데 사용된다면, 수사의문문은 반대로 발화수반력을 강화하고 불손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질 수 있어 구별된다는 것을 보였다.

의문문을 수사의문문으로 해석되게 하는 형식적, 의미적 요소가 있다면 청자는 수사의문문의 함축에 도달하기 위해 매번 추론을 거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이에 따라 3장과 4장에서는 그러한 형식적, 의미적 요소들

이 수사의문문을 구성하는 양상을 예문과 함께 살폈다. 형식적 요소들은 어휘 층위, 구문 층위, 숙어 및 속담 층위, 통사적 현상 층위로 나누어졌으며, 의미적인 요소들은 '일반적 지식 및 통념과의 대치', '항진명제', '화자 자신의 심리나 지식', '대상의 온전한 상태 및 태도에 대한 의심'으로 크게 나누어, 대체로 이들을 포함한 의문문이 수사의문문일 가능성이 높음을 보였다. 이어서, 일부 항목들이 갖는 의미적 경향성은 첫째, 명제가 실현 가능성이 극히 높음을 드러내는 인식 양태와 둘째, 명제가 실현 가능성이 극히 낮음을 드러내는 인식 양태, 그리고 셋째로 명제 내용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화자의 태도를 표현하는 감정 양태로 크게 나눌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화자가 명제에 대해 가지는 태도가 명시적인 장치로 표현되는 데서 알 수 있는 바는 수사의문문은 강력한 발화수반력을 동반한다는 점이며, 이 점에서 다른 간접의문문과 차별점을 지닌다고 본고는 판단하였다.

결과적으로 본고는 기존 연구에서 수사의문문이라고 일컬어져 왔던 의문문의 특성을 두루 살피고, 수사의문문을 화자가 자신의 강한 믿음을 강조하고, 화청자의 공통 기반에 해당 명제가 존재함을 공고히 하여 청자를 설득하기 위해 발화하는 의문문이라고 그 성격을 정리할 수 있었다. 이는 수사의문문의 해석을 유도하는 형식적 요소나 의미적 요소의 경향성으로 뒷받침된다. 이러한 연구는 여타 의문문과 비교되는 수사의문문의 지위를 명확히 하면서, 한국어 교육 분야나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도 실용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아쉽게도 본 연구는 수사의문문 내에서 관찰되는 특징에 치중하여 수사의문문과 관련된 현상 전반을 풍부하게 다루지는 못하였다. 가령 Ilie(1994) 등에서 다룬 것과 같은 화용적인 측면이 본 연구에서는 제한적으로만 제시되었다. 말뭉치를 기반으로 하여 텍스트의 장르, 대화참여자의 관계, 구체적인 상황 맥락에 따라 수사의문문이 한국어에서 어떻게 이용되는지를 살핀다면 주제를 더욱 흥미롭고 깊이 있게 살펴볼 수 있었을 것이다. 그 외 수많은 아쉬움을 뒤로한 채, 다만 본고가 향후 관련 연구를 위한 착상을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및 논문>

강규영(2017), 연결어미 '-다고'류와 조사 '-이라고' 연구,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강규영(2022ㄱ), 한국어 수사의문문의 두 유형에 대하여, 《국어학》 103, 국어학회, 473-505.

강규영(2022ㄴ), 한국어 수사의문문의 의미와 구문적 특징, 제20회 국어연구회 정기학술발표대회 발표문.

고영근(1989),《國語形態論 硏究》, 서울대학교 출판부.

구종남(1999), 담화표지 '어디'에 대하여, 《언어학》 7-3, 대한언어학회, 217-234.

구종남(2003), 국어 부정극어의 유형, 《국어문학》 38, 국어문학회, 5-27.

구종남(2015), 《국어의 담화표지》, 경진.

김미숙(1998), 否定文의 間接話行 硏究, 명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김사랑(2015), 화맥을 고려한 수사의문문 교육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김선영(2016), 구어 담화에서 나타나는 '무슨(museun)'의 담화표지 기능, 《언어와 문화》 12-3, 한국언어문화교육협회, 83-98.

김송희(2014), 한국어의 비전형적인 부정 구성 연구 : 상위언어적 부정 및 부정 아닌 부정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김애화(2009), 부정의문문의 명령화행을 론함, 《중국조선어문》 4, 길림성민족사무위원회, 22-27.

김연희(2020), 한국어교육을 위한 연결 어미 '-아/어서야'의 기술 방안 연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59,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

육원 한국어학당, 65-84.
김염(2014), ‘커녕’ 및 관련 표현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김영희(2005), 수사 의문문에서의 되풀이 현상, 《어문학》 87, 한국어문학회, 131-155.
김종현(2004), 영어 수사의문문에서의 형식, 의미, 언어적 추론, 《어학연구》 40-1,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123-159.
남기심·고영근(1985), 《표준 국어문법론》, 塔出版社.
남길임(2018), 구어 부정 구문의 기능과 특성, 《한글》 319, 한글학회, 67-98.
류현미(1999), 국어의문문의 연구, 충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마영리(2021), ‘어디’류 수사의문문 부정의미의 생성과 처리, 2021년 10월 22일 소속 연구실 발표.
목지선(2015), 어미 ‘-으러’의 통사·의미적 특징 - 수사의문문 용법을 중심으로, 《언어과학연구》 72, 언어과학회, 171-197.
문숙영(2015), 한국어 탈종속화(Insubordination)의 한 종류, 《한국어학》 69, 한국어학회, 1-39.
박유경(2020), 장형 부정의문문의 편향적 의미에 대하여, 《한국어 의미학》 67, 한국어의미학회, 53-91.
박재승·권선아(2009), 반어문의 통사적·화용적 특징에 관한 연구, 《한중언어문화연구》 19, 한국중국언어문화연구회, 116-134.
박재연(2009), 연결어미와 양태, 《한국어 의미학》 30, 한국어의미학회, 119-141.
박종갑(1982), 의문문과 간접 언어행위, 《한민족어문학》 9, 한민족어문학회, 55-76.
박진호(2003), 관용표현의 통사론과 의미론, 《국어학》 41, 국어학회, 361-379.
박진호(2019), 正反의문문과 수사의문문, 《韓國學報》 36, 中華民國韓國

研究學會, 1-24.
서정목(1987), 《국어 의문문 연구 : 慶南方言과 中世國語의 WH-현상을 중심으로》, 塔出版社.
서정수(2013), 《국어문법》, 집문당.
서희정·홍윤기(2011), 한국어 교육에서 수사의문문의 교육 내용 - '무슨'-수사의문문을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88, 한국국어교육학회, 221-244.
성미향(2020ㄱ), 보조사 '(이)ㄴ들'의 의미와 분포에 대한 연구, 《문법 교육》 40, 한국문법교육학회, 209-238.
성미향(2020ㄴ), '-어 봤자' 구문에 대한 담화문법 연구 - 형태, 의미, 사용 맥락을 중심으로 -, 《언어와 문화》 16-3,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151-182.
신자영(2015), 자료기반 스페인어 구어 담화 분석 및 화행 연구 - 의문문 형식의 화행 연구를 중심으로, 《이베로아메리카 연구》 26-1,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99-129.
신현규(2019), 한국어 '-면' 관련 구성 연구,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안정호(2018), 한국어교육을 위한 연결어미 '-답시고'의 의미와 교육 내용 연구 - 세종 말뭉치 자료 분석을 통하여 -, 《한국언어문화학》 15-3,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135-160.
양용준(2020), 영어와 한국어의 간접화행 비교 분석, 《현대영어영문학》 64-4, 한국현대영어영문학회, 99-122.
윤평현(1992), 《국어의 접속어미 연구 : 의미론적 기능을 중심으로》, 한신문화사.
이경희(2011), 의미와 형태의 불일치, 《노어노문학》 23-3, 한국노어노문학회, 29-47.
이연우(2016), 적합성 이론을 기반으로 한 수사의문문 연구, 《담화·인지언어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담화·인지언어학회, 163-167.

이정애(2010), 국어 항진명제에 대한 의미 연구, 《한국어 의미학》 33, 한국어의미학회, 179-202.
이창덕(1992), 질문행위의 언어적 실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이현희(1982), 國語의 疑問法에 대한 通時的 硏究,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이효진(2005), '뭐'의 담화상 의미기능 연구, 《어문논총》 16, 전남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소, 65-81.
임홍빈(1998), 《국어 문법의 심층 3》, 태학사.
장경기(1986), 국어의 부정의문문과 전제, 《어학연구》 22-1,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19-40.
전혜영(2012), 구어 담화에 나타나는 'X는 X다' 표현의 화용 양상, 《국어학》 64, 국어학회, 273-299.
전혜자(2013), 선어말어미 '-겠-'이 사용된 문장의 세 가지 특징—구어에서 보이는 '현장성', '주체의 고정성' 및 '전제성'에 대하여—, 《한글》 301, 한글학회, 43-82.
주경희(2006), 속담 비유성의 의미,화용론적 연구, 《국어교육학연구》25, 국어교육학회, 421-444.
포연(2016), 한국어의 구어 문말 형식 '-긴'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하의뢰(2022), '어찌-/어쩌-'류 활용형과 부사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한길(2005), 《현대 우리말의 반어법 연구》, 역락.
한지현(2007), 한국어 교육을 위한 수사의문문의 담화맥락적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전공 석사학위논문.
허경행(2009), "이나"와 "이라도"에 대하여 -선택 환경과 전제를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39, 이중언어학회, 375-395.
홍사만(2002), 《국어 특수조사 신연구》, 역락.
Bhattasali, S., Cytryn, J., Feldman, E. & Park, J.(2015), Automatic

Identification of Rhetorical Questions, In C. Zong & M. Strube, *Proceedings of the 53rd Annual Meeting of the Association for Computational Linguistics and the 7th International Joint Conference on Natural Language Processing* (Volume 2: Short Papers), Beijing, China: Association for Computational Linguistics, 743 - 749,

Bousfield, D.(2007), *Impoliteness in Interaction*, Philadelphia: J. Benjamins Pub.

Brinton, L.(1996), *Pragmatic Markers in English*, Berlin; New York: Mouton de Gruyter.

Brown, P. & Levinson, S. C.(1987), *Politeness: Some Universals in Langu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Bybee, J.(2010), *Language, Usage and Cogn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Frank, J.(1990), You Call That a Rhetorical Question?, *Journal of Pragmatics* 14, Amsterdam: Elsevier, 723-738.

Gunlogson, C.(2001), True to Form: Rising and Falling Declaratives as Questions in English, University of Rochester, PhD dissertation.

Haverkate, H.(1997), Indirectness in speech acts from a diachronic perspective: some evolutionary aspects of rhetorical questions. In J. Gvozdanovic(Ed.), *Spanish dialogue, Language Change and Functional Explanations*, Berlin: De Gruyter Mouton, 219-246.

Horn, L. R.(1985), Metalinguistic Negation and Pragmatic Ambiguity, *Language* 61(1), Washington: Linguistic Society of America, 121-174.

Huddleston, R.(1994), The Contrast between Interrogatives and Questions, *Journal of Linguistics* 30(2),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411-439.

Ilie, C.(1994), *What Else Can I Tell You?*, Stockholm: Almqvist & Wiksell International.

Jespersen O.(1933), *Essentials of English Grammar*, New York : Henry Holt and company.

Morgan, J. L.(1978), Two types of convention in indirect speech acts, *Syntax and Semantics 9: Pragmatics*, London: Academic Press, 261 - 280.

Rohde, H.(2006), Rhetorical Questions as Redundant Interrogatives, *San Diego Linguistics Papers* 2, San Diego: University of California, 134-168.

Schmidt-Radefeldt, J.(1977), On So-called 'Rhetorical' Questions, *Journal of Pragmatics* 1(4), Amsterdam: Elsevier, 375-392.

Searl, J. R.(1975), Indirect Speech Acts, In J. P. Kimball(Ed.), *Syntax and Semantics*, New York: Academic Press, 59-82.

Špago, D.(2016), Rhetorical questions or rhetorical uses of questions?, *Explorations in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4(2), Berlin: De Gruyter, 102-115.

Sudo, Y.(2013), Biased Polar Questions in English and Japanese, In D. Gutzmann & H. Gärtner(Eds.), *Beyond Expressives: Explorations in Use-Conditional Meaning*, Leiden: Brill, 275 - 295.

Quirk, R., Greenbaum, S., Leech, G., & Svartvik, J.(1985), *A Comprehensiv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New York & London: Longman.

Zillman, D. & Cantor, J. R.(1974), Rhetorical Elicitation of Concession in Persuasion,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94(2), Abingdon: Routledge, 223-236.

<사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Abstract

A Study on Functions and Forms of Korean Rhetorical Questions

Park Jisang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reveal the overall features of rhetorical questions, interrogatives that have different functions from the ordinary information-seeking interrogatives, in Korean. To this end, I try to explain the characteristics of rhetorical questions, how they work in discourses, and how their illocutionary acts are different from other indirect speech acts. I also present lists of syntactic and semantic elements that give an interrogative a rhetorical interpretation, and investigate if any semantic tendency can be observed.

Chapter 2 accounts for three characteristics of Korean rhetorical questions. First, a rhetorical question is an interrogative in form but performs strong assertion, reproach, command, and exclamation. Second, typically a rhetorical question does not expect an answer from the hearer, but some of its subtypes may require a response. Third, a rhetorical question generally exhibits opposite polarity, but not always. From these

observations, the subcategories of Korean rhetorical questions are based on three criteria: form, intention of utterance, and degree of ambiguity. A speaker utters a rhetorical question when facing context where their commitment is denied, in order to confirm their presupposition that the commitment is shared by the hearer. However, the hearer notices that the question is not an ordinary felicitous interrogative from its violation of felicity conditions of question, and on the assumption that the discourse participant is cooperative, tries to infer its implication with the given contextual clues. In addition, the indirect speech act of a rhetorical question can amplify the illocutionary force and impoliteness, while other indirect speech acts performed by interrogatives in general are purposed to mitigate the illocutionary force of requests and commands to compose them more polite.

Chapters 3 and 4 examine formal and semantic elements that cause rhetorical interpretations and investigate if any tendency can be generalized. Formal elements are classified by four levels: lexical level, construction level, idiomatic level, and syntactic phenomenon level. The semantic elements include contents conflicting with general knowledge, tautologies, the internal experience or knowledge of the speaker themselves, and the suspicion about the abnormal status or attitude of the target. Some of the elements presented are found to express epistemic modality, indicating extremely high or low possibility of the proposition, and emotive modality, which is the dismissive, dissatisfied attitude to the proposition. I argue that this tendency indicates that a rhetorical question is accompanied by an amplified illocutionary force, which is in line with the argument presented before.

This study concludes that a rhetorical question is an interrogative to emphasize the speaker's strong commitment, to confirm the commitment is in the common ground, and to persuade the hearer, which is supported by

the tendency observed in the frequent formal and semantic element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identifies the position of the rhetorical questions when compared to other interrogatives, and can have practical uses in areas such as Korean as foreign language education and natural language processing.

keywords : interrogatives, rhetorical question, bias, indirect speech act, impoliteness
Student Number : 2020-21293